

국립국어원 2012-01-04

|        |
|--------|
| 발간등록번호 |
|--------|

|                      |
|----------------------|
| 11-1371028-000377-01 |
|----------------------|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연 구 원: 박 원 호(한남대학교)
- ▣ 조사 주제: 외연도의 어로 생활
- ▣ 조사 지역: 서해 근해(외연도)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연구 원: 박원호



## 제 1 부      사업 개요

|                      |                    |
|----------------------|--------------------|
| 제1장 연구 개요 .....      | 3                  |
| 1. 조사 개요 .....       | 3                  |
|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                    |
|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                    |
| 1.3. 조사 방법_5         |                    |
| 1.3.1. 조사의 의의        |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
| 2. 조사 지침 .....       | 7                  |
| 2.1. 현장 조사 지침_8      |                    |
| 2.1.1. 일반 원칙         |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 2.1.3. 제보자 선정 기준     |                    |
| 2.2. 전사 지침_10        |                    |
|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                    |
| 2.3.1. 일반 원칙         | 2.3.2. 세부기준        |
| 2.4. 뜻풀이 지침_15       |                    |
| 2.4.1. 기본 원칙         | 2.4.2. 뜻풀이 형식      |
| 2.4.3. 뜻풀이 용어        |                    |
|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   | 16                 |
| 1. 조사 계획 .....       | 16                 |
| 2. 조사 보고 .....       | 17                 |
| 2.1. 제보자_17          |                    |
|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8   |                    |
| 2.3. 조사 지역_19        |                    |
| 2.4. 조사 내용_19        |                    |

- 2.4.1. 어로 생활
- 2.5. 조사 결과물\_20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구술 발화 ..... 23

1. 어로 생활 구술 발화 ..... 23

- 1.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_23
  - 1.1.1 집에서 먹을 것만 담지
  - 1.1.2. 사람으로 말하면 보약 먹이는 식이지
  - 1.1.3. 초등에는 삶고, 늦음에는 굵으면 젓 담 담고 그랬지
  - 1.1.4. 늦음에 삶는 거는 둔탕이라 살이 툭툭 갈라져서 젓을 담어
  - 1.1.5. 성질이 급해서 건지기만 하면 죽어
  - 1.1.6. 머르치보다 싸니까 군납으로 많이 들어 갔지
  - 1.1.7. 한 해 넘겨서 빼야 비린 맛이 없지
  - 1.1.8. 자갈 깔아 놓고, 모기장 넣고
- 1.2. 외연도의 기타 어로 생활 구술 발화\_45
  - 1.2.1. 외연도는 안 잡히는 고기가 없어요
  - 1.2.2. 안개 속에 눈 뜬 봉사      1.2.3. 삼치잡이
  - 1.2.4. 하느님이 돈 벌어라 해야 하지
  - 1.2.5. 봄고기는 말려도 맛이 없어
  - 1.2.6. 셋바람 불면 고기 머리 아프다
  - 1.2.7. 배 이야기                      1.2.8. 그물과 물고기

2. 외연도의 풍어제 관련 구술 발화 ..... 78

- 2.1. 햇곡식, 햇과일, 돌김 팔어다 제사 지냈어요\_78
- 2.2. 황소도 땅에 단 데는 제사에 안 써요\_80
- 2.3. 부정 없는 사람\_81

제4장 조사된 어휘 ..... 90

1. 어로 생활 ..... 90

- 1.1. 까나리잡이 및 멸치잡이\_90
  - 1.1.1. 환경                              1.1.2. 어획물
  - 1.1.3. 시기·상태·행위              1.1.4. 배
  - 1.1.5. 어로도구                      1.1.6. 단위

|             |           |
|-------------|-----------|
| 1.1.7. 음식   | 1.1.8. 기타 |
| 1.2. 풍어제_99 |           |
| 1.2.1. 제의   | 1.2.2. 도구 |
| 1.2.3. 행위자  | 1.2.4. 행위 |
| 1.2.5. 음식   | 1.2.6. 금기 |

## 제 3 부 연구 결과

|                      |     |
|----------------------|-----|
| 제5장 마무리 .....        | 105 |
| 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 | 105 |
| 2. 풍어제 .....         | 107 |
| 참고 문헌 .....          | 109 |
| 부    록 .....         | 111 |
| 찾 아 보 기 .....        | 129 |





## 제 1 부

#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 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제 1 장 연구 개요

## 1. 조사 개요

###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부터 한반도 남쪽 전 해안에 분포되어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의 제3차 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3차 년도인 2012년의 조사는 1차 ~ 2차 년도인 2010년과 2011년도에 실시한 해안 어촌 생활어를 기초로 한 섬 중심의 어촌 생활어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

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섬 중심의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또한 섬과의 해양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사람들의 언어, 문화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섬사람들의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

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안 어촌과 섬사람들의 어촌 생활어의 실태를 비교 파악할 수 있다.

###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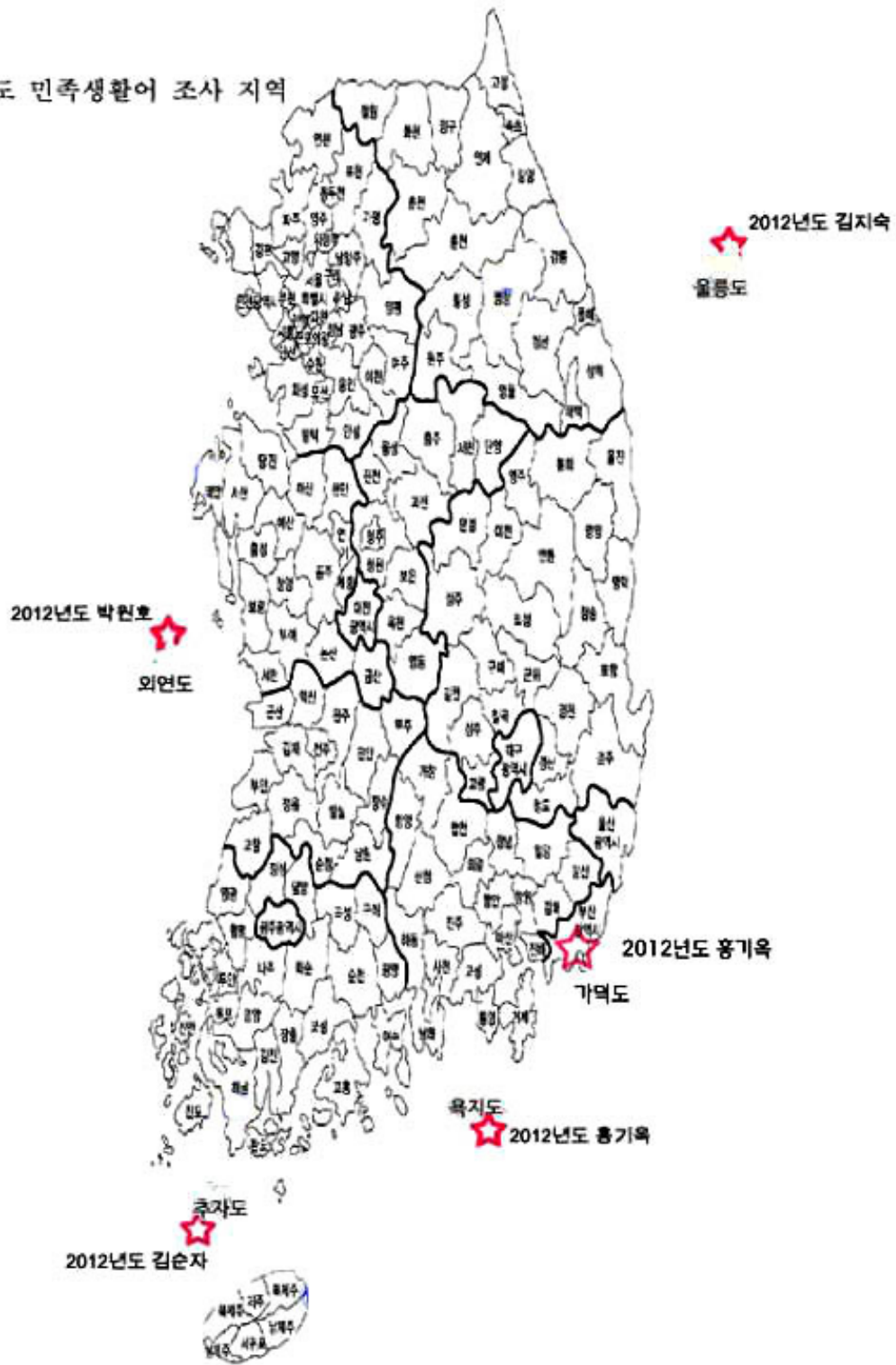
###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한반도 남쪽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어촌생활을 해온 어촌 섬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와 어떤 상관성 및 시차성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2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각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근해의 섬들이다.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



###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뫼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니’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나 ‘-’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이면 ‘-’, ‘-’  
 이면 ‘-’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나 ‘-’가 [ɛ]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이면 ‘-’, ‘-’  
 이면 ‘-’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샤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으로 실현된 경  
 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이)바(이)  
 저시 → 저(이)저(이)  
 꼬시 → 꼬(이)꼬(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 2.3. 올림말 선정 지침

###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 2.3.2. 세부기준

- ① ㄹ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ㄹ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닭(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붕에(붕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쓰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ㅞ>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ㄴ’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ㄷ>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밍다(밍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ㄷ>ㄴ’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ㄴ>ㄷ’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흠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멍(그물), 쇠망>쇠멍, 살강>설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홀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ㅕ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쎌(할머니), 개비>게베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ㅕ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피랑(도랑), 고>괴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ㄴ. ㅕ>ㅓ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뵈시다>메시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ㅕ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겉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ㅓ>ㅕ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껌>피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ㄹ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용구럭대기>용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흡, 뚝>뚛,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개>양개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ㄹ’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양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  
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술~소풀~소불(부추), 장팡~장꼬방(장  
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퐁(병퐁), 팍나  
(밤낫),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굶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 1. 조사 계획

언어에는 각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문화와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와 생활은 나날이 발전하고 변모한다. 언어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래 있던 말이 잊히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계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인해 고유한 언어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해양 생태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하는 탓에 어획량 감소와 어촌 생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이끌 것이며, 결국 변화로 인해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언어는 시나브로 소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소멸은 앞으로 우리말에 대한 근원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생활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여전히 방언에 대한 과소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을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생활어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많은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 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생활어를 조사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각 지역의 문화와 언어 생활을 조금 더 밀착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의 어로 생활에 집중할 것이다. 그 가운데 외연도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까나리잡이’를 조명하려 한다. 조사 시기와 맞물려 까나리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예상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까나리잡이에 사용되는 배와 어로 방법, 어획물 처리, 가공 등을 조사한다. 물론 까나리잡이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외연도에서 행해지는 어로 활동들 전반에 관심을 두고 조사에 임한다. 이에 더하여 외연도는 풍어제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므로 이 역시 외연도만의 어촌 생활에 해당한다. 이전보다 간소화된 풍어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욱 풍어제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어제 관련 어휘 역시 수집할 계획이다.

2012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조사를 통해 본 지역의 어로 생활 중 까나리잡이에 대한 어휘조사를 통해 관련 생활어를 수집하기로 한다.



## 2. 조사 보고

### 2.1. 제보자

충남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를 위해 오랜 기간 지내온 제보자로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외연도 내에서 까나리 공장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있었지만 외연도 사람이 아닌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초 어획의 주제보자였던 박차돈 씨의 어로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발췌하여 재언급하기로 한다. 또한 박차돈 씨의 도움으로 형제인 박차연 씨를 보령에서 만나 어로 생활에 관한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박차연 씨와 그의 아내 성태순 씨는 오랜 기간 액젓 사업을 해왔으며, 현재는 아들에게 어선을 넘기고,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배에서 잡아온 어획물을 육지에서 가공하고 있다. 외연도 안에서는 안상철 씨와 민속관련 풍어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어제에 다수 참여하여 제보자로 적합한 대상이었다.

| 제보자                                                                                                | 비고                                                            |
|----------------------------------------------------------------------------------------------------|---------------------------------------------------------------|
|  <p>박차연(71)</p> | <p>안강망 배 사업, 현재는 아들에게 전수<br/>- 어로 생활 주제보자</p>                 |
|  <p>성태순(66)</p> | <p>박차연의 아내, 오랫동안 젓갈을 담금.<br/>현재는 건어물만 함.<br/>- 어로 생활 주제보자</p> |
|  <p>안상철(61)</p> | <p>추억식당 운영 - 풍어제 주제보자</p>                                     |

##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민족생활어 서해안 지역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를 위해 2월에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사전조사, 제보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제보자 선정은 예정보다 지체되었는데,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겨울에는 육지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온이 오른 3월에서야 제보자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번번히 제보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면접이 취소되어 결국 기존 제보자의 도움을 얻어, 오랜 기간 외연도에 거주하다가 보령시로 이주한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임했다. 육지에서의 조사였기 때문에 통행의 어려움이 적어 기초 어휘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2012년 이전 서해안 지역에서 조사된 어휘를 참고로 어휘 조사에 임하였다. 현장 조사는 보충 조사를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세한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기간 : 2012년 7월 ~ 9월

|   | 조사 세부 일정                      | 비고              |
|---|-------------------------------|-----------------|
| 1 | 문헌조사 (2월 말 ~ 3월)              |                 |
| 2 | 사전조사, 제보자 선정 (2월 중순 ~ 3월)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 3 | 1차 조사: 6월 23일~25일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 4 | 2차 조사: 7월 16일                 | 충남 보령시 죽정동      |
| 5 | 조사결과 정리2 (8월 중순)              |                 |
| 6 | 최종보고 : 8월 22일                 |                 |
| 7 | 3차 조사 : 9월 2일(보충 조사)          | 충남 보령시 죽정동      |
| 8 | 보고서 작성 및 자료 정리(8. 23.~9. 10.) | 음성, 사진, 동영상 정리  |
| 9 | 보고서 제출 : 9월 28일               |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의 어촌 생활어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족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상대적으로 현장성이 강한 민족지적 방법으로 실제 어촌에서 사용하는 소멸위기의 어촌 생활어 확보를 우선한다. 질문자와 제보자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통해 조사에 임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어려운 부분에는 격식과 약식이 절충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자료로만 어휘 조사가 가능한 부분에는 사진을 최대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자 장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어촌 생활어를 조사하기 위해 어업 현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업 활동 동영상을 준비하여, 제보자와 같이 시청하며 관련 어휘를 발

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어휘들은 다른 제보자들에게 재질문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수집하였다. 어휘 조사를 위해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 랩탑(laptop), 스마트패드(smart pad)를 이용하였다.

### 2.3. 조사 지역

- 조사 지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어장과 서해 부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는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만의 어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멸되지 않았을 것을 기대하여 조사지로 선택하였다. 단, 주소지와는 다르게 전북지역과 접근해 있는 점을 감안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 조사 장소: 외연도리 소재 추억 식당, 봉화산, 보령시 소재 제보자의 집

외연도의 어로 생활을 위한 조사는 기초 어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풍어제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진 안상철 제보자의 식당에서, 박차연 씨와 성태순 씨의 자택에서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2.4. 조사 내용

#### 2.4.1. 어로 생활

##### 2.4.1.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 범주   | 대분류                | 어휘 항목    |
|------|--------------------|----------|
| 어로생활 | 까나리잡이<br>와<br>멸치잡이 | 환경       |
|      |                    | 어획물      |
|      |                    | 시기·상태·행위 |
|      |                    | 배        |
|      |                    | 어로도구     |
|      |                    | 단위       |
|      |                    | 음식       |
|      |                    | 기타       |

2.4.1.2. 외연도의 풍어제

| 범주   | 대분류 | 어휘 항목 |
|------|-----|-------|
| 어로생활 | 풍어제 | 제의    |
|      |     | 도구    |
|      |     | 행위자   |
|      |     | 행위    |
|      |     | 음식    |
|      |     | 금기    |

2.5. 조사 결과물

충남 보령시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 결과는 어휘를 정리한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나누어 모든 자료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사 내용 범주에 따라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 관련 설명을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저장하고,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저장하였다. 제보자와의 면접을 동영상에 담아 녹음기의 문제로 음성 자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하였다.

| 조사대상                | 조사내역<br>구분 | 조사어휘   |        | 음성자료  |       | 영상자료 |     |
|---------------------|------------|--------|--------|-------|-------|------|-----|
|                     |            | 총 어휘 수 | 미등재 어휘 | 구술/전사 | 분절 음성 | 사진   | 동영상 |
| 서해안 외연도<br>어로 생활 조사 |            | 207    | 135    | 3/3   | 207   | 27   |     |

## 제 2 부

### 연 구 내 용

제 3 장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 제 3 장 구술 발화

### 1. 어로 생활 구술 발화<sup>1)</sup>

#### 1.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 1.1.1 집에서 먹을 것만 담지.

@ 그러면 우선은 그럼 어르신은 예전부터, 배에 언제 때부터 타셨어요?

#2 아주 젊어서부터 했지 뭐. 애일 때, 총각 때부터.

@ 아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2 거기서 섬에서 타고 났으니까 인제 자동으로 쳐다보니까 다 알게 돼서 그냥 나이 먹으니까 뭐 20세 이렇게 먹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배타면 다 하게 되지 뭐.

@ 아 그럼 어른들이 하시는 걸 또 보시고, 또. 선생님도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지.

#2 대구에서 결혼 해가지고 와가지고 식구들 여기 10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거기서는 돈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참 여기도 강원도 속초로 가가지고 해변가 밭 안들인 데가 없다고 하잖아. 그렇게 배 타면서. 1년이면 집에 한 한 번 두 번 요렇게 왔지.

@ 아, 어릴 때부터 타서.

#1 그러니까 내가 선박 생활을 한 것은 18살 때부터 했어. 18살 때부터 해가지고서 내가 우리 형제가 8남매여. 아들 5형제,

1) #1은 제보자 박차연, #2는 제보자 성태순이다.

@ 나머지 분들은?

#1 잉 여자. 3형제, 그래서 8남매여. 그 때는 외연도 고기가 많이 낚여. 많이 낚어도 판로가 없어갖고, 발동선 같으면 육지에 가서 파는데, 돛단배라 거기서 내 팔러 나오덜 못혀. 그니까 거기 고기는 많이 있어도 잡아먹들 못혔어.

@ 왜요? 그냥 드시면 되는 거..

#1 그걸 먹는 거는 잡아다 먹지만

#2 냉장고도 그때 당시는 썩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 소금으로 절였어.

#1 그때 냉장고도 없지만 뭐가 있어. 그래서 소금, 소금에다 절여갖고 짠고기로 팔아 먹었지.

@ 그냥 드시던 거는 그냥 드시고요?

#1 잉, 그래갖고 인저 형제는 많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옛날에는 보리농사가 많이 졌었어.

@ 아 섬인데도요?

#1 그렇지. 그 보리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돈 벌러 객지로 안 나갔지만 보리 식량이나 이런 것이 농사를 즉게 짓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전부 객지가서 돈을 벌러 나간 거여. 돈 벌게 판 거 있어? 돈 저거 배타는 것 밖에 더 있어? 그래갖고 인저 도망할라고 나왔다 인저 부모한테 붙들려서 들어가고, 그래서 못 도망 했지. 그러고서 인저 군대도 늦게 갔어. 스물다섯 먹어서 군대 갔어. 그래갖고서 대구 2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이 거기서 인저 어떻게 처갓집도 잘 봐갖고 장가를 거기서 들어 줬어.

@ 두 분이 만나신 거는 언제.

#1 그러니까 내가 26살에 만났지. 내가 스물일곱에 제대했거든.

#2 지금 49년 됐어.

#1 그래갖고 우리 안식구 얘기가 있어갖고서 급허게 결혼을 했지. 대구서. 그래서 대구서 결혼해서 인제 집에 데려다 놓고, 가서 3개월 군대생활 더 했지. 그렇게 하고서, 8월달에, 음력 8월달에 제대해갖고 집에 오니께 딸 낳더라고, 우리 딸.



#2 그 딸이 마흔 여덟이여.

#1 그래서 그 딸 낳고도 외연도에서 돈 벌이 없으니까 순 객지 생활 했지. 뭐 강원도 거제미로 뭐 속초로 목포로 인천이루 뭐 다 돌아대냈지. 그렇게 해다가 나 참 바다에서 죽을 뻔도 많이 보고, 배도 가라앉혀 갖고 사람 일곱이 살리느라고 그때만 해도 라디오 방송에 나갔었지. 보령 앞바다에서 침몰돼가지구서 사람 일곱하고 선장이 구조했다고 해가지구, 방송에도 나왔었어.

@ 아 그랬었어요?

#1 잉. 라디오 방송에도 나왔었어. 그래갖고서 이 배를 부려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부려도 그게 내 배가 아니라 국가 재판이라고 하더라구, 그때 내가 알아봤어. 그때 군산 해경을 갔는데 침몰된 배를, 그 수란 튜브가 빠져갖고서 침몰됐었거든?

@ 뭐, 뭐가 빠져서요?

#1 수구로 돌아가는데 있잖아. 뿌라빠라(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거기가 빠져가지고서 배가 가라앉은 거야.

#2 기관장이 잘 못 말려갖고.

#1 기관장이 잘못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수산튜브가 빠진 것도 법으로 따지면 밖에서 절단 났으면 선장 책임이고, 안에서 절단 났으면 기관장 책임이라고 혀. 거기를 갔는데, 해경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갖고서 다 좋게 해결하고서 그때 돈 3만원 물었어. 물고.

@ 그 당시 돈으로요?

#1 잉 국가 재산을 소비시켰다고 해갖고, 3만원 물었어. 그랬는데 그렇게 허고서 인자 아직 살아나오다가 인자 해상사업, 이거 까나리 사업 이걸 시작했지. 그거 끝나고서 인저 꽃게잡이 인저 서해바다 꽃게잡이 하다가 배가 침몰되가지고서 사람 일곱이, 나까지 일곱인디 물에 떨어졌는데 어떡혀, 배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래갖고 대나무 하나에다가 부유 이렇게 생긴 거 하얗게 생긴 거 있지? 그것을 여섯 개를 묶었어. 그런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강하거든? 그런데 인저 죽는다 산다 하니까, 무릎에다 대구서 확 꺾어서 틀으면 잘라지더라구.

@ 대나무가요?

#1 잉 대나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치워보고서 사람이 악이 올르면 악이 올르면 뭐 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목숨을 거니까. 그러니까 배는 들어가지, 사람 일곱이를 살리려 하는디 어떡혀, 그럼 되는 걸 낮이도 아니고, 밤인디. 그래갖고 무릎에다 막 대서 끝끝 들으니께 잘라져, 대나무가. 그 왜 저 외연도 그 기다란 거 이렇게 중간에다 하얀 부유 달고 밑에다는 이런 쇧덩어리 달은 거여. 서게. 그러니께 그 돌을 그걸 잘라 내뽀는 사람. 밑이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칼 갖고 이 사람도 두 개를 뽀지르고, 무릎에다 대고 뽀지러서 두 개를 뽀지른 거여. 그래 그거 묶어가지고서 밤에 그냥 떠 땡겨 갖고 그 용진슈퍼 동생? 그 동생도 선장하고 나도 선장할 때, 그 동생이 와서 건져 실어갖고, 사람 일곱이 건져 실어갖고 살았잖아.

@ 그 때 그럼 다 사신 거예요?

#1 잉 일곱이 다 살았지. 그런데, 다 살은 사람 중에 욱장사람 하나만 죽었어.

@ 그렇게 해가지구 이제 까나리 이제 시작하셨으면 지금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1 까나리 사업이야 아직 했지.

@ 지금은 그냥 잡지는 았고, 배는 안 타시고?

#2 아들이 하나까 배는 안 땡기고 지금은 잡지. 잡기는.

#1 아들이 해상 사업을 하기 땡이. 지가 직장 잘 못 헌다고 해서, 와서 해상 사업 헌다해서 내가 인제 다 물려주고서 나는 이렇게.

@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까나리 넘어오면?

#1 까나리 가져오면 여기 저 냉동시키는 데가 있어. 어제 얘기했잖아.

@ 거기는 그럼 개인소유예요? 아니면?

#1 그렇지 개인이지. 개인

@ 거기다 그러면

#2 개똥 해가지고 고기 이깁으로 팔지.

@ 액젓은 이제 안 담으세요?

#2 우리 먹을 것만 담지.

#1 우리 먹을 것만 담지.

@ 그럼 까나리 젓이 좀 비싸고 그런가요.

#2 그렇지. 그래서 액젓이 좀 비싸.

@ 아 그래요?

#1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젓국을 집에서 먹는 것만 대중 담아놓지, 팔라고 하는 젓국은 안 담아. 생으로 팔아도 그 같이 나오는데 생으로 이거 저 우리 집 앞에 통 봤지? 그 젓국 담아논 거. 그게 지금 인저 올해 4년째가? 그런데 한 해 인저 먹을 만큼 두통이면 두통 한 통이면 한통 빼구서 덮어놓는겨. 안 빼고, 그리고 인저 또 빼고. 그러니까 인저 금년 빼도 다 못 빼지. 먹을 만큼만 빼니까.

@ 근데 그거는 몇, 얼마나 담가 놔야 돼요? 젓국 만들려면.

#2 음 젓국 만들려면 5월달에 담으면 가을에 인저 빼지.

@ 아 가을에 빼는 거예요?

#2 가을에 9월달에, 9월달에 빼지. 그러니까 올해 저것이 해년 갈수록 갈수록 국물이 많이 나와. 폭 삭으니까.

#1 맛있고

### 1.1.2. 사람으로 말하면 보약 먹이는 식이지.

@ 근데 그 까나리잡이 하는 배는 어떤 종류인가요?

#1 외연도 작업 하는 배가 다 그 까나리잡이 할 수 있는 배들이야.

@ 크기는 어떤?

#2 옛날에는 적었지. 다.

#1 옛날에는 작은 배지. 그런데 인저, 지금은 까나리 잡는 배가 허가가 있어.

@ 아. 따로..

#1 그렇지. 잔고기를 잡는 허가가 있는디. 근해 안강망 이라고, 중선 허가가 된 배가 무조건 까나리는 잡어. 까나리 곤쟁이는 그 배들이 잡지 이 즉은 배들은 잡지를 못하게 돼있어.

@ 안강망 배가 잡아가지고,

#1 응. 허가 상으로 못 잡게 돼있어. 그래갖고, 인자 큰 배들은 새우나 아구, 이런 거 심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까나리하고 곤쟁이를 심을 쓰는 거. 곤쟁이라고 새우젓 있지, 새우젓, 그 새끼. 요만치 하는 거 있어. 그런데 인저, 봄에는 그 새우새끼가 살이 들어갖고, 살이 썩갖고, 까나리 잡을 때 가면 또 그건 껍데기만 있어, 살이 다 빠지고, 그니까 그때는 물에다 이렇게 느면 뜬단 말이여, 그리고 그 초등에 잡는 것은 살이 콕 콕 차가지고서 물에다 느면 까라얏고. 그렇게 되있는겨. 그래갖고 늦으면은 곤쟁이를 안사고, 초등에만 곤쟁이를 사니까, 그 큰 배들이 곤쟁이를 잡는다고. 인자 이, 그것도 곤쟁이를 잡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 냉장고, 냉동실.

@ 여기 항에서요?

#1 아니 여기 인저 어항으로 가져오면

@ 아 거기로 들어가요?

#1 인저 가져오면 냉동해서 사가지고 한 곳 하나에 인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서 네모 뽀뽀하게 저 물 조금 넣고, 그 새우하고 요렇게 짜작짜작하게 해가지고서 얼려, 얼려가지고 네모 뽀뽀하게 해서 그게 몇 키론가 그건 내가 자세하게 몰르겠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고기밥으로 들어가.

@ 아, 그게요?

#1 양식장 고기 밥으로. 그걸 맥여야, 요만씩 한거 인저 새끼를 갖다 넣고서, 키울 적에는 그걸 맥여야 크니까.

@ 음, 그렇겠네요.

#1 그러고서 인저 늦으면은 까나리를 잡으면은 까나리도 또 그렇게 얼음으로, 저, 얼려가지고서 그것은 고기가 큰놈. 인저, 저, 양식장에서 파를려고 할 때, 한 달 전에 그걸 맥여. 까나리를.

@ 큰 고기한테?

#1 그렇지 큰 고기한테. 그러면 빛깔이 좋아져 아주. 반질반질반질 해서 그냥 색깔이 좋아져. 인저, 사람으로 말하면 보약 먹이는 식이지 인저.

@ 아, 그렇네요. 네.

#1 그렇게 해가지고서 허기 때문에 젓국, 시원찮은 사람은 젓국을 담들 못해 지금. 글로 다 들어가니까. 없어서 거시기 하나까.

### 1.1.3. 초등에는 삶고, 늦음에는 굵으면 젓 담 담고 그랬지.

@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 예전에 까나리 잡이 하셨던 배도 타셨다고, 배도 하셨다고 하나까.

#2 응, 했지.

@ 그것부터 쪽 하셔가지고, 그럼 그거 갖다가 어머니가 젓도 담그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2 삶았지. 삶고 인자 초등에는 삶고, 늦음에는 굵으면 젓 담고 그랬지.

@ 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초등, 초등이 무슨 말이에요?

#2 어 초등에는 인자 일, 일찍, 일찍.

#1 1월달에 잡는 게 있고, 참 저 2월달에 잡는 게 있고, 3월달에 잡는 게 있고. 인제, 일찍 잡, 무조건 빨리 잡는 걸 얘기를 하는 거.

@ 아 초등이라는게?

#2 응 늦게, 5월달에 잡는 거는 인저 늦음에 드는 거는 인자 까나리가 굵어져가지고, 젓을 담아 소금 넣고.

@ 아 그렇게 잡힌 건 달라요?

#1 그렇지, 이자, 3월부터, 4월부터 잡거든? 양력 4월부터. 그러면 4월부터 잡으면 4월 달에 잡는 것은 아주 잘아요. 이렇게.

#2 실같이 자잘해. 실치처럼

#1 그놈을 삶어. 삶어서 인저, 키로로 담아서, 봉다리로 이렇게 해서.

#2 늘어서 말려가지고.

#1 멸치처럼 그렇게 팔고, 한사리 두사리 가면 또 막 이렇게 막 굵어져. 인자 한 보름 한 20일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자꾸 굵어져

@ 한사리 두사리 그 물때 말씀하시는

#1 그렇지. 보름에 한번씩이니까. 보름이 한사리니까, 한 달에 두사리 아니여. 그러니께, 두사리 동안에 커도 그게 이만씩 커.

@ 아 그렇게 빨리 커요?

#1 빨리 커 까나리는. 그러니까 잔놈은 거시거고, 굵은 놈이 ??? 몰라도, 그러니께는 한 5월 6월에는 이만씩 해. 그러니께 이걸 삶지를 못하고 전부 젖을 담은 거지.

@ 아 왜 큰 것들은 왜 못 삶아요?

#1 굵어서.

#2 삶아도 사가지를 안해. 기름이 많이 나. 까나리라는 종류가 기름이 많이 나서 우리가 먹을 때는 굉장히, 기름이 많으니께 맛있어.

@ 아 먹을 때는.

#2 볶아먹고 뭐 하는거 맛있는디, 굵으니까 판로가 없어가지고, 소금 넣고 담아서 이렇게 국물, 젓국을 빼지.

@ 아 젓국이라고 그래요?

#2 이 젓국이지.

@ 그게 액젓말하는.

#2 그렇지 액젓이 젓국이여.

#### 1.1.4. 늦음에 삶는 거는 둔탱이라 살이 툭툭 갈라져서 젖을 담어.

@ 그러게요. 그 까나리를 제가,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긴?

#2 길쭉하게 생겼어.

@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2 멸치

#1 콩치, 콩치 봤지, 저, 콩치 잉?

@ 크기도 그만해요?

#2 아니여. 크기는 더 적어.

#1 아니여. 동해 콩치 말고 서해 콩치라고 콩치처럼 생겼는다.

#2 요만씩 혀. 요거 요거처럼 요롱계.

@ 아 이게 이만한 게 다 큰 거예요 근데?

#1 응. 까나리가.

#2 응. 늦으매 인저 좀 굵다고 한 것이 이렇게 쪼끔 더 이렇게 생기고 튼탱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인저 못 살아갖고, 젖을 담어.

@ 튼탱이? 튼탱이가 뭐예요?

#2 굵다 소리야.

@ 아.

#1 둘레.

@ 그런 말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면 뭐 그 생긴 거에 따라서 큰 거는 뭐 어떤 놈 이렇게 부르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새끼는 뭐라고.

#2 어, 큰 거 부르는 거 또 있지. 큰 거는 양맬 이만 혀. 지금 양맬 저 동해바다서 많이 나서 막 텔레비에 나오고, 구워먹고 하는 거 양맬.

@ 양말? 아, 양미리!

#1 양미리! 그거 비슷혀.

#2 양미리! 그것도 많이 나. 그거 새끼여 말하자면, 양미리 새끼여 까나리가.

#1 그것허고 똑같어. 입이 빼죽허니.

#2 초등에 삶는다는 게, 요렇게 가늘고 요렇게 생기고 혀야 이빠서 삶으면 볶으면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 다 잘 먹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으에 삶는 건 이렇게 막 굵어져가지고, 삶으면 막 툭툭 살이 이렇게 갈라져.

#1 기름이 많아갖고, 금방 삶아서 말려놓으면 누런 게.

#2 양미리 그런 거, 들어가서 삶아지면 막 이렇게 다 빼개져. 지절로 다 갈라져.

@ 아 그러면 양미리는 삶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 삶아먹으면 기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 동해바다에서 나는 거 쥘어서 이렇게 끼워 달아논 거, 구워서 이렇게 찢어서 이냥 먹고 그러면 그게 기름이 많아서 맛있는 거여.

@ 그 혹시 근데 까나리도 양식이 돼요?

#1 까나리 양식 못혀.

@ 까나리는 지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혹시?

#2 건쟁이 먹지, 건쟁이.

#1 건쟁이 먹을테지.

@ 건쟁이 먹고서 지네들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럴 테지.

@ 아.

#2 까나리 늦을 때, 늦으면 배 툭툭 터지면 다 까나리 다 먹었어. 그거 건쟁이 다 먹었어.



@ 아 배에서 그게 나와요?

#2 이 빨간해여. 배가.

@ 그럼 까나리 처음에 잡은 것들을 젓국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손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 1.1.5. 성질이 급해서 건지기만 하면 죽어.

#2 젓국 담는 거?

@ 네.

#2 까나리가 고기가 많이 들면 깨끗혀. 마이 안 들고 조금 들을 때는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막 섞어져서 이렇게 골르지만 많이씩 들면,

#1 깨끗혀.

#2 이렇게 테레비 봐도 고기가 이렇게 막 많이 모여서 놀다가 싹 들어가니께 깨끗해 가지고 퍼갓고 오면 그냥 바로 소금 넣어서 이렇게 담는겨.

@ 그러면 그 잡아오는 걸 바로 그냥 살아있는 걸 소금에 이렇게.

#1 아니, 다 죽지.

#2 다 배에서 건지기만 하면 죽어.

@ 어 그렇게 빨리 죽어요?

#1 성질이 급해갓고 얼른 다 죽어.

#2 5분, 10분 되면 다 죽어.

@ 아, 그러면 이제 배에서 갓고 와서 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2 내리면 갓고 와서 인자 관 오를 때는 솔에다, 이런 솔이 있어. 바나(버너) 불 때 갓고서는 삶지.

#1 아 처음에는 삶고.

#2 삶아서 인자 그 건조기 저기 돌막 깔아 놓 거기다 모기장 깔고, 널어서 말려서 봉지로 삼고, 이렇게 굵을 때는 안 삶으고 젓 담고, 소금 넣고.

@ 그 그러면 작은 거는 그러면 젓국을 안 담아요?

#2 생각을 해봐. 요렇게 작은 거는 담기는 하지만 아까우니까 될 수 있으면.

@ 조금 더 큰 놈으로?

#2 어, 큰 놈으로 담아야 국물도 많이 나오고, 여 작은 거는 국물도 적게 나오니까 아까워서 다 삶아서 파는 거지.

@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삶는 거는 얼마나 삶아야 돼요?

#2 많이 삶지. 많이 삶아.

@ 오래 삶아야 돼요?

#2 오래 삶는 게 아니라 삶는 시간은 금방인데 막 열 가구(상자), 스무 가구 서른 가구 이렇게 갖고 오면 지금 이런 노란 가구 봤지유? 그것 더러 콘테이너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져오면 나는 인저 앉아서 삶고, 이 어르신네는 인저 갖다 날라주고, 삶으면 이런 딱가리 이렇게 내놓으면 갖다 내놓으면 다 삶아서 건져 내놓으면 사람들 녹에서 얻어가지고, 햇볕에다 다 널어서 말려다.

@ 어디서 뭘 얻어서..? 어디서..?

#2 건조장 있잖아. 밖 크게 그기, 밖 크게 건조장.

#2 사람들 품을, 품을 사가지고,

#1 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그날은 인저 막 이렇게 막 고기 널고, 말린 거 봉지 담고, 나는 또 밥해서 인저 갖다 주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지.

**1.1.6. 머르치보다 싸니까 군납으로 많이 들어 갔지.**

@ 그 말린 거는 뭐 뭐 어떻게 그냥 먹는 거예요? 멸치처럼?

#2 멸치 볶듯이 볶고.

@ 아 볶아서도 먹고

#2 볶아서 먹고, 또 인자 간장 치고 찌서도 먹고.

@ 아 그래요?

#1 맛있지

#2 옛날에는 그 인저 군인들 군납으로 많이 들어갔어. 까나리가.

@ 아 정말요? 그 말린 게요?

#1 응 옛날에는.

#2 맛있어 그게, 기름기가 많아서 맛있어. 구수하니 맛있어.

#1 그런데 왜냐하면 머르치보다 그게 싸단 말여. 가격이. 그러니까 군납으로 많이 들어갔던 거여.

@ 아 그렇게 군인들 간식 먹고 아니면 밥에도 나오고, 반찬으로도 나오고.

#1 반찬. 반찬.

#2 맛있어. 그게.

#1 맛있어 맛있는디. 인저 굶으면 안 살고.

#2 지금 멸치에 자잘한 거 볶아서 반찬 먹잖어? 고거랑 똑같은 거. 고게 더 맛있어, 꼬슝고. 기름이 많으니까.

@ 그러면 그 까나리로 혹시 그 다른 음식 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까 뭐 말려서라든지.

#2 이, 말려서 볶아 먹는 거 하고, 젓 담는 거 하고, 또 인자 고기 이깎으로 지금은 고기 이깎으로, 냉동해서 나가고.

#1 떡이, 떡이로 양식장.

#2 그거여. 까나리는 그거여.

@ 그거 그러면 말려서랑 그 젓국 만드는 거 두 군데밖에 안 쓰이고? 그러면 그 여기 까나리 공장은 그러면 여기 항에서 갖다놓는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에서는 잡아가지고 하는 공장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밖에서, 육지에서? 까나리 만드는 공장이?

#2 까나리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냉동하는 공장이.

@ 냉동하는 공장만? 아. 그러면 아까 아드님이 고기 잡아오시면 배 이렇게 대천항에 오면은 어항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항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 가져가요. 공장으로

@ 아 공장으로요?

#1 공장에서 인제 큰 차 가지고 와서 빨아 올려. 배에서. 호스 바꿔서 배에서 빨아 우이로 올리거든. 그럼 차로 인제 싣고서 냉동 창고로 가지. 거기서 인제 얼려가지고 고기 양식장으로 다 보내.

### 1.1.7. 한 해 넘겨서 빼야 비린 맛이 없지.

@ 그러면은 그 뭐지 옛날에는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2 아 저기 뭐야. 좋은 것은 팔아야 되니까 좋은 건 하지만. 인자 초등에는 자라니까 그렇게 삶고, 또 인제 늦게 5월달 되면 파장된 거 날이 뜨겁고, 이게 끓어지고 그러니까 젓 담고 그러지.

@ 아 그럼 젓 담글 때 소금 같은 거는 얼마나 그런 게 다 어떻게 맞추세요?

#1 그 콘테너 있잖아. 바구니. 그 배 봤지? 노란 게. 큰 것이 있고, 작은 게 있다구. 그 바구니가, 이렇게 큰놈이 있구. 요만하니 큰 게 있어. 그런데 큰 거는 두 개 부어. 소금 30키로 짜리 하나 부어.

@ 아 두 바구니 이렇게 붓고?

#1 그리고 작은 것은. 작은 콘테이너는 네 개를 붓고, 소금 30키로 짜리 하나 붓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세멘 섞듯이 이렇게 일하는디. 세멘 섞잖아, 모래하고, 그 식으로 섞어가지고서 갖다 그냥 퍼 담는 거여.

@ 그 고무다라 같은?

#2 이이이.

#1 그렇지.

@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1 그렇게 해갓구서 인제 고무다라 하나 딱 차면 우에다 소금 짝 해갓고 하얗게 해갓고 똑똑 두드려서 덮어놓지.

#2 5월, 6월, 7월, 8월, 9월, 5개월 되면 그렇게 푹 삭아서 그냥 젓국이 되지.

@ 그럼 그 뭐 다른 거 들어가지 말라고 뭐 깔고 그런 건 없어요? 안에다가.

#1 없어. 인자 우에다가 하나 딱 거 못 들어가게 비니루 딱 덮고 우에 뚜껑 딱 덮어서 꼭 묶어놓지.

@ 아, 우선 그렇게.

#1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고냥 놔두면 지금 말하자면 그냥 햇빛에 익는 거여.

@ 아 그 안에 있는 게 그 열, 열 받아서?

#1 그렇지. 그렇지. 열 받아서. 익어가지고서 가령 올해 5월달이나 이렇게 담으면 8월달에 인제 9월달, 10월달에 인자 빼거든? 빼는디. 이렇게 빼는 것은 조금 비려.

@ 음. 맛이?

#1 한 해 넘겨서 빼야 맛이 그게 제대로 비린 맛이 없지. 그래도 이 섬이나 이런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디 육지 분들 갖다 좋다고 주면 비린내가 조금 난다고 그러.

@ 그럼 그렇게 몇 년까지, 한 번 담으면 몇 년까지 먹을 수 있어요?

#1 저것은 젓국은 몇년 놔도 상관없어.

@ 아 그래요?

#2 무한, 무한 놔둬도 괜찮여.

#1 아이, 아무 상관없어. 신거야 병이 나지, 짜니까. 짜니까

@ 신거는 병이 나지만 짠 거는 괜찮다.

#1 그렇지 놔둘수록 맛있어.

#2 놔둘수록 색깔이가 껌어지고, 다라에 담아서 5개월 만에 담는 거는 인자 색깔이가 아주 이쁘게 청주같이 생기고 그렇지.

@ 액젓을 다 담고서 필요한 만큼 뽑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 젓국. 그건 뭘로 뽑아냈어요? 호스 같은 걸로 빨아서 빼세요? 아니면 건져서 채에서 빼시는.

#1 그렇게 얹고.

#2 그건 아주 케케묵은 옛날 오십년 전이나 그러카고.

@ 오십년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뺐었어요?

#2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채에다 이렇게 받쳤지. 이렇게 한쪽으로 차치고서는 물 풍덩풍덩 퍼서 채에다 걸렸지.

@ 아, 그러면 이제 젓국 나오는 거죠? 밑에다 받아놓고.

#2 예.

@ 지금은 어떻게 큰 통에다 호스?

#2 큰 통에다 호스 이렇게 꼭 질러가지고서는 이렇게 뽑아내지. 밑에 쪽 건더기 내려서.

#1 그런데 저게 담아놓으면 이 건더기가 다 떠올러. 딱 떠올라갖고 우이다 이렇게 있고서, 그 밑이는 전부 물이여. 젓국이여. 이렇게 자치면 빨간 허지. 요렇게 요렇게 자치면 빨간혀. 그러니까 거기에 호스 딱 쥘겨서 아래다가나 요만큼 띄거든 손가락 한 두 마디정도 띄어갖고, 호스를 여기다 달어. 이렇게 뺐친다고. 뺐쳐갖고 요기서 입으로 쪽 빨으면 고놈이 통 너머로 살짝 넘으면 싹 빼오면 즐즐즐 따라 나와. 그냥.

@ 그 호스 뺐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1 그 아래로 콧는다는 말이지. 그 통이 이렇게 있으면 통 밑구녕에서 손가락 두어마디 요렇게 띄어가지고서. 요렇게 해갖고서 땅에다 꼭 대면 빨아들이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다 묶어가지고서 요렇게 꼽아서 호스를 통 밖으로 놓구서 빨아내지. 그

러면 우에 찻국이 빨아서 ?? 나오면 찻국 건더기가 차침차침 내려가지. 찌끄레기 특  
큰 거 나오면 스돕시킨다고.

@ 그러면 그 색깔이 빨개요?

#2 빨갱지.

#1 빨건허지.

@ 그 색은 기간이 지나면서 더 오래 담그면 뭐 변하고 이런 건 없어요?

#2 오래 놔둘수록 까마져.

@ 어느 정도 되야 까맣게 되고 그래요? 기간에 따라 색깔이 다르면 처음에는 예전에는 말간하다  
고 그랬잖아요.

#2 처음에는 포도주(백포도주)같은 그런 색에다가 청주같은 고런 색깔에다가 이게 한  
해먹을수록 자꾸자꾸 까머져. 까마져서 이렇게 간장색깔 나지.

@ 아 그게 이제 나중에 되는 색깔이에요?

#2 에에. 이 찻국이여. 간장 같어.

#1 우리들은 아무리 맛있어두, 다 담어논 간장 있잖어. 그 간장은 조금 사다 먹어두,  
딴 간장은 안 먹어.

@ 그냥 저걸로?

#1 저걸로 다해.

@ 맛도 인제 점점, 처음에는 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2 처음에는 비린 맛이 난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면  
갈수록 묵을수록, 아무 냄새가 깨끗하이 맛있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 지금은 이제 보면은 외연도 안에서 이렇게 고무대야(고무통) 안에 담아두시잖아요. 예전에는 고  
무대야 없을 때는 어따가, 향아리 같은 거에다?

#2 그렇지. 향아리에다.

@ 그 향아리는 종류가 어떤 향아리에요?

#2 그냥 가정에 옛날에 큰 독 이런 거 있었잖어. 그런데다.

#1 지금 장독 같은 거,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주로 섬 같은 데는 전체가 썼지.

@ 그런 거는 맞춰오는 거예요? 밖에서?

#1 옹기그릇이라고, 장사가 들어와.

@ 아, 안으로요?

#1 그렇지. 외연도로. 배로 막 심구. 지금은 인저 그런 거 팔로 댕기는 사람은 없구, 사기그릇, 양은그릇 이런 거를 사면 살까. 옹기그릇 팔러 대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 옛날에는 그걸로 전부 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무(드럼통), 그 새우젓 담는 도로무 있잖아. 도로무에다가 세멘종이라고 누런 종이 있잖아.

#2 지금 마트에 가면 쌀 담아난 푸대.

#1 푸대종이. 그 정도였었어. 그 종이를 독 안에다 싹 넣고, 그리고서는 비니루 봉다리 큰 거. 그것을 넣고선 거기다 담았었거든. 찻국울. 도로무에다 담으믄. 그 옹기그릇이 없으면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렇게 허다가 나중에 외파이프통 이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다 이 통에다 담지.

@ 도로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 기름 도로무라고 있잖아. 기름 도로무.

#2 도로무~

#1 그 여기여기 폐유, 공장에서 쓰는 도로무 있잖아. 도롬통. 그것에다 했그든.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다 통이 나와가지고선, 작은 거 가졌든 큰 거 가졌든 전부 그거 사용하지 않잖아. 그러니 옹기그릇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안 쓰지.

@ 옹기에 담았을 때 맛 차이는 없어요? 별로? 옛날에 옹기에서 이렇게 담았을 때랑, 지금 대량으로 담았을 때랑 맛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없어요?

#1 그런 건 없어.

#2 맛 차이는 없어. 소금 엷는(넣는) 것이 똑같으니까.



@ 그 소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천일염 있고 뭐 있고.

#2 옛날에는 다 천일염으로 담았지.

@ 지금은 뭐 소금 가려서 담고 그러시는 건 없어요?

#2 지금도 될 수 있으면 그 소금으로 담지.

#1 집에서 먹는 것은 여기 안면도 소금이라고. 천일 소금 나오잖아.

@ 저 태안?

#1 태안. 거기서 팔아오잖아.

#2 사온다 소리여.

#1 사온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한 푸대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네 사람들 그 주문을 해. 그럼 이제 외연도 무궁화호 봤지? 그 무궁화호를 시켜. 그럼 운임을 얼마 받아먹구선 거기가서 몇 푸대를 가져와라. 돈 걸어서 주면, 그 사람은 돈 버는 사람이니까. 운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실어다 주는겨. 그리고 대량으로 많이 담는 사람들은 그걸 그 소금을 약간 힘들지.

@ 대량으로 담는 사람들은 조금 싼 소금으로 하나요?

#1 그렇지. 싼소금.

#2 다 중국소금.

@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대량으로.

#2 이런 집채처럼 갖다 쌓아놓고 하니까.

#1 한번 가져오면 거 젓국 담는디 한번 실으면, 빠지라고 짐 신는 배 있어.

#2 넓적하니 있잖여. 말처럼 생긴 거.

#1 천 푸대 가져왔네. 이천 푸대 가져왔네 그러지.

#2 천 푸대 이천 푸대가 뭐여. 만 푸대도.

### 1.1.8. 자갈 깔아 놓고, 모기장 넣고.

#2 요새는 빨리 말리지. 기계에다 말리니까.

@ 얼마나.

#1 오늘 들어온 거. 모르겠어. 몇 시간 말리나.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지 그려.

@ 원래는 옛날에 하면 며칠이나 말렸어요? 항 안에서 한다 그러면 외연도 안에서.

#2 아니여. 옛날이고 지금이고 며칠 말리는 건 없구, 햇볕에 말리는 아침에 널었다 저녁 때 인자 네시. 요 때 되면 다 건구, 요 기계에다 말리는 건 쪽 잡고 다섯 시간이면 다 말리.

#1 다섯 시간까지 안 걸릴걸?

@ 말릴 때 그러면 온도랑 바람이랑 다 맞추신다고.

#2 그렇지.

@ 지금은 그렇게 기계 갖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알아서 될텐데, 옛날에는 햇볕에 이렇게 말려놓으면 이게 다 말랐는지 색을 보고 알 수 있으셨어요?

#2 응, 만져보지.

#1 손이루 가서 쥐어보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지.

@ 빠삭빠삭한지?

#1 예.

#2 예.

@ 그러면 이렇게 깔아놓고 계속 넣두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씩 뒤집어 준다든가 그런 건 안하세요?

#2 이렇게 널어노른 거가 며르치만 있는 게 아니고, 새우도 들고, 꿀뚜기 새끼도 들고, 그래서 그거 줍기 위해서 사람 이렇게 가면서 그거 주서면서 만지면 그게 뒤적거려지는 거여.

@ 아. 따로 일부러 앞뒤로 놓지는 않지요?

#2 이. 그렇지. 사람이 인제 주스러 가면서 손으로 만지면 그게 뒤적거리져서 말라서 네 시경 되면 다 걷어. 걷어갖고 다 봉다리 담고 그렇게 하지.

@ 그러면은 예전에 말리던 장소는 따로 있었어요?

#2 예예.

#1 그렇지.

@ 대부분 어떤 데서 말렸어요?

#2 건조장이라고 다 해가지고 자갈 깔아 갖고, 모기장 넣고.

@ 아무 데나 말리는 게 아니지요?

#2 이. 창고가 있어.

#1 낮에만 말리지. 이렇게 돌 갖다 깔구 전부 그러잖아.

#2 아무 데나 말리면 모래가 있어 갖고 안 되지.

#1 흙 같은 거 그런 데 안 묻게 하느라구 자갈 갖다 다 깔아 놓구선 거기다 모기장 갖다가 우에다 딱 깔고선 거기다 널지.

@ 모기장이 진짜 모기장 말하는 거예요?

#2 예.

@ 그걸로 깔아야 이제 바람 통하고 하라고?

#2 그래서 사람이 아주 골병들었어.

#1 검은 거, 그 옛날 모기장처럼 얇은, 두꺼운, 저 얇은 거 있어. 그런 거 갈다가 딱딱 깔아놓고, 거기다 딱 퍼치고, 걷을 적에도 그 놈 한쪽에서 요렇게 출씩출씩하면 그냥 동그래가니께. 모여져서 거시기 하지.

@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작업이.

#2 힘들어 가지구 골병들었어. 골병 들어서 허리가 아퍼 죽을 지경이야.

@ 계속 이렇게 숙여서 하셔야 하나까.

#1 하루종일 기어당기잖아. 하루종일.

@ 그거 꼴뚜기도 잡고.

#1 그렇지. 그런 거 인제 개리느라고. 맨날 앉아서 이렇게 기어당기고 거 개리느라구. 그러구 흠어놓구서 다 개리면 벌써 다 말리.

@ 아, 이미?

#1 어. 그게 이제 햇벌이서 바삭 말린 것은, 너무 말리믄 안돼.

@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아 해요?

#1 조금 찢르는 기분.

@ 아 찢리는 기분?

#1 찢리는 기분. 이렇게 인제 만져보면 알아.

#2 배를 만지면 배가 물렁물렁하면 못 써. 배가 안 물렁거려야 돼.

#1 햇빛(햇벌)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여. 말르는 거 보믄. 이내 삶아가지구서 딱가리 있으면 축축허잖어? 그걸 갖다가 탁탁 털어서 이렇게 널어노믄 오후 한 두 시경 되면 벌써 거진 다 말리. 그렇게 빨리. 햇빛이.

@ 배 만져서 물렁거리면 안 되고, 잡았을 때 약간 찢리는 느낌이 있으면 다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널어놔을 때 혹시 뭐 벌레 같은 거 꼬이지 않게 하려고 막아놓으시는 거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그런 건 없어.

#2 손에 찢른다고 해서 빠삭말랐다고 해도 다 이렇게 걷어서 모기장을 덮어놓으면 이게 간끼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 이십 분, 이삼십 분 있으면 만지기 좋게 그렇게 생겨.

그게. 찢르는 기가 없어져.

@ 간짜가 무슨 말이에요? 소금?

#1 소금끼.

#2 바다에 것은 다 소금끼가 있지.

#1 바다에서 가져온다 해서 소금을 안 넣는 게 아냐. 삶은 적에는 꼭 소금을 넣어야 해. 소금 안 느른 싱거서 못 먹어.

#2 싱거서 못 먹기도 하고, 상품가치도 안 나오고. 삶은 직에 솥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그 메르치를 넣으면 그 물에서 동동 뜨지, 소금을 안 넣으면 가라앉아 가지구 이렇게 자꾸 건지는 걸로 건지면 배가 나와서 상품가치가 안 나와.

#1 배가 다 부서져.

## 1.2. 외연도의 기타 어로 생활 구술 발화

### 1.2.1. 외연도는 안 잡히는 고기가 없어요.

# 외연도는 안 잡히는 게 없어요. 모든 고기는 고기라는 종류는 나오니까. 천혜적으로 외연도가 살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몇 십년 전만 해도 조기가 많이 낚였고.

@ 뭐가요?

# 조기. 조기. 그런데 그건 우리덜 어렸을 때 얘기고 그 뒤로 조기가 다 안강망 배가 다 끌어내고 그래서 그런지 조기가 말라 갖구 없구, 낚시질해서 잡았었는데. 그 뒤에도 주로 생산되는 건 우럭, 농어, 도미 같은 끌바늘배들이 작업하는 것이 통발배는 아나구를 잡고, 다른 배들은 우리 큰 배는 안강망이라 해서 새우잡고 꽃게 잡고 아구 같은 거 잡고 거기 다른 고기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모든 고기가 해산물이 다 들어와요.

@ 배마다 그러면 다 달라요?

# 자기 어종이 다 틀려요. 예예. 끌바늘배는 농어도 잡고 광어도 잡고, 우리 집에 아나고는 아나고 통발에서 잡아오는 거고, 우럭 농어 같은 건 주낙배에서 잡아오고, 끌바늘배들은 농어도 잡고 광어도 잡고.

@ 무슨 배요?

# 끝바늘배라고 해라 해가지고 낚시줄을 끌고 다니면서 잡는 배. 그것은 이제 끝바늘배.

@ 끝바늘?

# 에에. 끝발. 그리고 이 삼치 대나무 친 건 삼치잡이배들.

@ 저거,저거요?

# 예. 대나무를 이렇게 눕혀갖고, 눕혀갖고 삼치 잡느라고 낚시줄을 달아갖고선 낚시줄이 바로 이런 거예요.

@ 아 이거요?

# 줄에 낚시를 달아갖고 대나무를 눕혀갖고 쫓고 땡기는 거예요.

### 1.2.2. 안개 속에 눈 뜬 봉사

@ 이, 이 배가 이제 안강망 배예요? 이 배가?

#1 응. 이 배들이여 전부.

@ 요걸로 이제 까나리 잡고.

#1 그렇지. 곤쟁이 까나리 잡는 배들이여 이게. 그러고서 이제 요기 또 하나 있구만. 이 배 이배 말고 또 요거 하나씩 한 배가 있어. 이 앞에 돛대가 없고.

@ 아 이거 하나만 있는 배가 있어요?

#1 이. 그렇지. 기아방 앞에 요거 하나만 있어. 이게 이 앞에 선 배들이 이게 큰 배들이고.

@ 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좀 작은 배고?

#2 어.

#1 그렇지.

@ 이게 그러면, 아 옛날에는 근데 풍선, 풍선이 있었잖아요?

#1 그렇지. 옛날에는 풍선 갖고.

#2 풍선은 돛달고 댕기는 게 풍선이여.

@ 근데 이게, 돛 역할은 아니잖아요. 이게.

#1 그건 아니지.

@ 그럼 이걸 그냥 그물..

#1 인저 이 줄로, 용두로 해갖고 줄로 뭐 이 바다에다 전부 끌어올리는 용두 달아서 감아올리느라고 이게 전부 용두 달았잖아. 요 용두가 다 달렸잖아. 용두가 다 달렸지.

@ 아 이걸 용두라고 그래요?

#1 그래, 여기 용두, 도르래, 지금 말하자면 도르래. 잉? 그걸 용두라고 그러지.

@ 그러면 그 그물을 넣는데, 그물을 넣으면 나중에 갔을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찾지.

@ 뭐, 뭐 보고 찾으세요?

#2 이거 저기 뭐야

#1 우깨, 다 이름 써있잖아.

#2 지금 차타고 댕기면 내비게이션인가 뭔가 있잖여. 그거 식으로 배에도 레다 ,어탐 다 있잖어. 그거 레다 어탐 없어서는 안개 속에 눈 뜬 봉사지. 그래도 다 그거보고 다 찾아가지.

#1 이 배, 이 배들 여기 안에가 장치가 다 돼있어.

@ 여기요? 여기가 뭔데요?

#1 여기가 선장 치잡고 있는데, 운전대 있는디.

@ 아.

#1 그 안에가 이 안에가 다 있어, 이 안에가.

@ 아 여기가 기관방이라는 데예요?

#1 이 여기가 기관방이고 요게 조타실이거든.

@ 아 여기가 조타실? 기관방은 뭐하는 데예요?

#2 기계!

#1 기계 모다 기계 돌아가는

@ 아 거기 돌아가는.

#1 엔진. 엔진 그게 돌아가야 배가 갈 것 아니여.

@ 요 노란 거 뭐예요? 여기 큰 거.

#2 노란 거 그것이 저긴 계다. 가군기다. 어. 이거 저기다. 그물 끼워 놓으면 우께.

@ 우께. 아 그걸 우께라고 그러고, 스티로폼

#2 어 스티로폼. 스티로폼도 되고,

#1 부유, 부유.

#2 스티로폼도 되고 부유도 되고.

#1 우께도 되고.

#2 한국말은 그런 게 백가지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기여.

### 1.2.3. 삼치잡이

@ 요배, 요배는 뭐하는 배예요?

#1 이것은 주낫가지고 고기잡는 배.



@ 아 주납? 그 요거 요게 그러면 아까 그거랑

#2 망대, 망대.

#1 그게 인제 이것 보고서는 망대라고 하지. 부유처럼 띄는 거여.

#2 그물 인자 놓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하나씩 빠져놓아. 이렇게 빠져놓고서는 다음 뒷날 가면 저게 우리꺼다 하고 찾아가는 거이.

@ 아, 요거는 그러면은 주낫을 어떻게 낚요? 요거는? 요기다 매다는 거예요? 주낫을?

#1 주낫을 옆에다가 요렇게 바구니가 있어, 요만씩 허는. 거기다가 인제 낚시해서 전부 이렇게 걸어놓지. 그래갖고서 이 한 쪽에다가 저 이 망대 저것을 달고서 거기다가 돌을 달아 돌을. 그래야 까라 앓을 것 아녀.

@ 그렇죠.

#1 그래갖고 저 어깨에다 하나 줄 때서 어깨 딱 떼놓고서 가면서 이깎 꿰서 그냥 던지는 거여. 쪽 허니 이서서 났다가나 또 그 뒷날 가서 그 잡아들여서 그 어깨 갖고서 뽑아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고기 물은 놈 따지.

@ 따고, 그 다음에 또 이깎 꺼서, 또.

#1 그렇지. 그렇게 허는 거여.

@ 그럼 요게 아 요게 망대.

#1 잉 망대라고 허는 거여.

@ 그리고. 요 배는 뭐예요? 대나무 같은 게 길게 막.

#2 아 삼치 잡느라고.

#1 그것은 삼치.

@ 아, 삼치배. 이걸로 삼치를 어떻게 잡아요?

#1 대나무를 이렇게 하잖여. 대나무를 이렇게 양쪽으로 뺏치구서 이 대나무에다 낚시줄을 세 개씩 매. 한 쪽에 세 개씩. 여섯 개. 그러고서 제일 꼬트머리에다가는 낚시하나

달아갖고 그냥 끊고 대니는거여.

@ 아 옆에다가 배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1 이.

@ 아 그러면 걸려요? 고기가? 삼치가?

#1 그렇지. 걸리지. 삼치는 낚시 히뜩 하는 것만 보면 쫓아와서 물어버리거든.

@ 아 그래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인제 담귀서.

#2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낚시줄이 있잖어. 대나무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매노면 고무줄이 달렸어.

@ 고무줄이요?

#2 어. 고무줄이 달려갖고 고무줄이 요렇게 있다가 삼치가 물으면 이 탁! 이렇게 텅기자.

@ 아.

#2 그러면 아이고 이제 고기 물었다하고 그러고 뺑기는 거여.

#### 1.2.4. 하느님이 돈 벌어라 해야 하지.

@ 흥합은 되게 잘 잡히나봐요.

#1 흥합은 많어.

#2 흥합 많은 게 겨울에 따서 돈 많이씩 벌지.

@ 그 막 그것 때문에 유명해가지고 막 와서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 있겠어요.

#1 그래서 동네서 단체적으로 허는 날이, 따는 날이 있어.

@ 아 잡는 날이?

#1 그렇지.

@ 그 외에는 안 되고?

#1 이. 먼저는 기냥 아무나 가서 따다가 먹고, 쓰고 그랬는데 객지사람들이 원체 와서 따가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딱 인제 못 허게 허지. 못 허게 했다가 인제 겨울에 홍합 시세가 좋을 때 인제 며칠 따자. 그러고 그렇게 따가지고.

#2 따서 이제 팔고.

#1 그러니까 아주 뭐 이 대천 일가 친척 있는 사람은 다 불러들여 그날은. 많이 따라고. 아 여자들이 하루 나가면 뵈질 얹어. 돈 이 삼십만 원, 한 오십만원 하는디.

@ 하루 따서요?

#1 그럼.

@ 와 그거 그렇게 되나? 돈이?

#1 이삼십만 원이 뒹여. 백만 원씩 버니 이게 눈을 뒤집어 까고 난리 아니겠어?

@ 하긴.

#2 사람 뒤지는지 산지도 몰르고 난리여.

@ 그렇겠네요. 그렇게 많이 잡아서 돈이 되면.

#2 그러게 그거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돈벌어라 허야 하지. 바람불어갓고는 에지간해서는 못 허.

@ 물도 차고 그러잖아요.

#2 응 물, 파도 써어가지고.

### 1.2.5. 봄고기는 말려도 맛이 없어.

@ 그럼 이거 또 다른 거 찍어왔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흔들리고 해서 .

#2 이거? 이거는 육지에서 찍은 거.

#1 아니 뭐 새, 새조개 같다.

#2 새조개는 아닌 것 같은데. 새조개는 아니고 이거 피망에 이거는 저기 당근이고.

@ 요게 조개 뭐 비슷한 맛이 나더라구요.

#2 이게? 이게 조개 비슷하면.

@ 잘라, 잘라놔서 그런가?

#2 짹짹하요? 짹짹하면 그게 조개가 아닌가본데.

@ 요거, 혹시 뭔지.

#2 오이지 담은 거 같은네.

@ 아니 요거 요거. 고추랑 약간 매콤하게 해서 이 뭐 뭐지?

#1 장아찌구면.

#2 그니까 오이.

@ 고동 비슷한 거 같다고.

#2 어, 이게 고동이라고?

@ 고동 비슷한 거 같애, 조그만 해가지고.

#2 응, 배말이다.

@ 아, 이거 배말이에요?

#2 응, 배말. 배말 고동 맞네. 고동이네. 고동도 들고 배말도 들고 그랬네. 고동이네. 고동

@ 배말이 뭐, 조개 고등 종류 그런 거예요?

#2 이. 납작하이 바윗돌에 붙어서

#1 바윗돌에 붙는 거

#2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 거.

@ 이런 거는 그러면 해녀 분들이 따세요?

#2 아니, 우리들이 보통 다 가서 따지. 갯벌 다 가서.

@ 가까운데 갯바닥에 그냥 가서 칼로.

#2 이이. 젊은 사람들이라 티비를 안보니까 그렇지, 6시 내 고향 보면 요런 거 잘 나오  
는디 그러네.

@ 봐도 저희 보면 뭔가 싫어요 그냥. 요거는 뭐 구운 거예요? 우럭, 우럭 구운 건가.

#2 우럭 구웠네.

@ 이렇게 생선 그냥 통째로 구워서 드시고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도?

#2 옛날이고 지금이고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인자 생선이 많으니까 구워도 먹고 튀  
게도 먹고 지져도 먹고 자기들먹고 싶은 대로 해먹지.

@ 아, 이거 약간 흔들려서 그런데.

#2 이건 툷 같네.

#1 이건 툷 무쳤네.

@ 아 툷이예요, 이게? 툷이랑 뭐지 다시?

#2 툷 무쳤다고 허는 게 이건 외연도에서 찍은 게다.

@ 예 이거는 외연도에서 찍은 거예요. 오늘 밥 먹다가 찍은 거라. 이걸 그럼 우뭇가시린가? 그거  
량은 좀 다른 거예요?

#1 그렇지.

#2 우뭇가사리하고는 좀 틀리지.

#1 우뭇가사리는 생이로는 못 먹어. 고와서만 먹지.

@ 구워서?

#1 고와서.

#2 저기 솔에다 이렇게 고우면, 물을 이렇게 식히면, 묵처럼 그렇게 되가지고 이렇게 채 썰어갓고서는 무쳐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지금은 그렇게 그런 걸 잘 먹고. 이런 것도 잘 먹고. 툷도.

@ 이거 예전에 해서 이렇게 해 드셨어요?

#2 많이 먹지. 지금도.

#1 어휴, 많이 먹지.

#2 지금도 많이 해서 보내서 먹지.

@ 예, 식당 갔는데 먹는데 매 상마다 나오더라구요. 이게 뭔가 싶었는데.

#2 먹어보니까 어때요?

@ 약간 식감이 뭐였지? 고득고득하고 맛이 좋더라구요.

#2 어, 툷이여.

@ 툷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해먹어요?

#1 옛날에는 이것을 툷을 과가지고 된장하고 이렇게 무치면 아주 꼬들꼬들혀.

@ 된장하고요?

#1 잉. 된장하고.

#2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가 고픈 시절이고 먹을 것이 구했고 했으니까 이것이 막 이렇게 컸으니까 막 비여다가 솔에서 부글부글 삶아갓고서는 물렁물렁하니까 인저 다 구웠잖어. 양념이고 뭐고. 그러니까 된장 넣고 부글부글 과서 먹었다고 허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다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먹지도 않고, 이렇게 인제 해

서 주고, 요것밖에 안 해먹느냐고 그러지만 툇은 이렇게 해먹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먹고 저 텔레비 나오는데 저 아랫네 ??는 부치기도 해먹더라. 근데 여짜 충청도는 그런 거는 안 해먹어. 이렇게 무쳐서만 먹어.

@ 아 무쳐서만 드시는 거예요.

#1 밥반찬이 무쳐논 거.

@ 요거 요거는 뭐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

#2 이거 저기 고동이네.

@ 아 이거 고동이에요? 고동 잘라놓은 거예요?

#2 이 고동.

@ 어촌계 식당가니까 요걸 잘라서 초장이랑 같이 내주더라구요.

#2 아 이거 통발에도 걸리고 우리 여기 저 뽕뽕이에도 더러 덜고 허는다. 이런 거.

@ 뽕뽕이가 뭐예요? 뽕뽕이?

#2 아 우리가 하는, 하고 있는 어장. 저기 멸치 까나리 잡는 어장. 그런데도 들고 허니까 인저 어촌계 식당이니께 삶아서 썰어줬구만 그려. 초장 찍어서, 먹어보니 어떠요?

@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주 생각나고 그랬었어요. 맛있더라구요.

#2 그렇게 맛있는 데다.

#1 그러게 이 어장을 넣으면 24시간 돈단 말이여. 물대로.

@ 아 물이요?

#1 이 물 가는 데로 인제 들어 가. 그래서 인제 뽕뽕이라고 하는 거여.

#2 지금 하는 거.

@ 아니 물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아요?

#1 그렇지 돌지. 물이 언제든지 방향을 틀어갓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 이렇게도 돌거든.

@ 그럼 거기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1 그런게 여기 오는 고기는 이때 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들어가고,

#2 이 그러니까 뽕뽕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뽕뽕이라고 그랬다니께.

@ 뽕뽕이를 어장 그걸 뽕뽕이라고 한다구요?

#2 이 어장 이름이 뽕뽕이여.

#1 뽕뽕 돌으니까.

@ 그런 군데가 몇 군데 몇 군데 있어요? 바다에? 그렇게?

#1 아니, 그런 데가 아니라.

#2 몇 군데가 아니라 많지.

#1 배 한 척에 지금 아마 한 20개씩은 다닐꺼. 틀수로. 하나 둘 해서 20개씩은

@ 틀, 틀, 틀이 어떤 틀이에요?

#1 한 틀, 요거 하나보고 한 틀이라 그래. 어장 하나보고. 그럼 요게 20개를 갖다 넣으면 이 육지 같으면 늘 구녕도 없지.

@ 그렇죠.

#1 그렇잖어. 요거 하나 뽕치는디 길이가 한 170메다 뽕칠거라고. 170메다가 더 되지. 그렇게 뽕치는디 이것이 이렇게 돌을 적어 이 부두를 전부 안고 돌잖어.

@ 히 엄청 넓겠네요.

#1 그러니까 바다가 넓은거여.

#2 그러, 이거 이거. 이거 툷 말리는 건게다.

@ 아 그럼 이거 말려가지고 아까 그것처럼 무쳐서 먹는 거예요?

#2 이이. 말려서도 먹고 아까 그거는 생 거 디쳐서 파랗게 디쳐서 먹고.



@ 말려서는 뭐 김처럼 먹는 거예요?

#2 아녀. 말려서도 물에 담궈갖고서는 주물주물 깨끗이 빨아서는 아까 고것처럼 무쳐서 먹어. 말리면 새카만해지고, 아까 그거는 금방 뜯어갖고 와서 바다에서 뜨거운 물에 데치면 그렇게 새파란해지고 그렇지. 이거는 간재미고.

@ 이거 이렇게 말려서 뭐해요?

#2 어 찌서도 먹고 찢어서도 먹고, 요 어르신네 저 내가 어제 하나 갖다놔더니 칼로 한 점 쓸어서 술 한 잔 하고, 칼로 한 점 쓸어서 술 한 잔 먹고, 저기 저기 초장찍어서 먹고.

@ 회처럼?

#2 이이, 맛있게 꼬득꼬득하게.

@ 그럼 말리면 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그렇지.

@ 보니까 이게 외연도에서 또 이게 많이 먹나봐요.

#2 아니 외연도에서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인자 먹고 잡히고 사용하기가 좋으니까 인자 먹지 뭐. 외연도에서 많이, 육지 사람도 많이 먹데요.

@ 맞아요. 많이 보긴 봤어요. 근데 거기선 뭐 무침도 있고, 보니까 외연도 안에서는 찜.

#1 찜도 허고, 무쳐도 먹고.

#2 말린 거 쪽쪽 찢어서 이렇게 먹고, 오징어처럼.

@ 아 그렇게도 먹어요. 이거를? 이건 옆에 이 배 갈라놓은 건 뭐예요?

#2 이거 고기, 저기 뭐 농어 같다? 대가리 보니까.

#1 이 봄고기는 그걸 알아야 혀. 봄에는 고기를 저렇게 말려서 조금 놔뒀다가는 먹으면 맛이 없어.

#2 이 누구네 집엔가, 저 기리네 집 그 옆에.

#1 가을에, 가을에, 이 9, 10월 이때 말리면 내년 이 때까지 놔둬도 맛이 좋아. 가을에 말리면.

@ 가을에 말리면요?

#1 잉 그런디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어.

@ 왜 그래요?

#2 씹쓰름혀.

#1 씹쓰름혀.

@ 봄에는 뭐가 안 좋아서 그래요?

#1 글썸 그건 몰르지.

#2 아니여. 가을에는 무조건 무슨 고기든 말리면 다 맛있고, 김치거리도 가을 배추 무김치를 담아놔도 그렇고 뭐든 다 맛있는데 봄에 여름에는 깍두기를 담고, 배추짬지를 담아도 씹쓰름해, 맛이 그러. 봄에 꺼는 다 그러.

### 1.2.6. 셋바람 불면 고기 머리 아프다.

@ 바람에 대한 말 같은 게 많이 없나 그게 궁금해서. 뱃일 하실 때 바람 얘기하시는 거.

#1 그러니까 인저 우리들 학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들 문자로는 뱃사람들 문자로는 동남풍 있잖아. 동남풍. 그 바람을 셋바람이라 하거든? 셋바람. 그 바람이 불으면 이 어장에 고기도 안 들을 뿐 아니라, 이 주낫, 낚시허는 디도 고기가 안 몰어. 셋바람에선. 그런께 그 바람 불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어장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지. 셋바람은.

@ 셋바람 불면 조업을 나가긴 나가세요?

#1 나가기는 나가지만 고기가 잘 안 쥼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프다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머리 아파서 미끼도 안 먹구, 안 무는 게라고 그러지. 그러구 인자 칠월달 같은 동풍이라는 게 있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 동풍 나면 한참 이렇게 아직도 바람 오래 가. 동풍 그놈이 그치야(끄치야) 진짜 하늬바람이 제대로 나는 거여. 그런께 동풍 나면 찬바람 났다고 하잖아.

@ 찬바람 난다고?

#1 어이. 찬바람 난다고. 동풍 나쁜.

@ 동풍 가면?

#2 어. 그러니까 옛날 하는 얘가지.

@ 비 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데 갑자기 맑은 날에 갑자기 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1 거 소내기(소내기비) 온다고 하지.

@ 아니, 날씨가 흐린 것도 아니고 그냥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2 흰해갓고서는 소내기 인저 갑자기 오는 거.

#1 그거 인저 소내기비 온다고 하지.

@ 그 어디 말로 하면 호랭이 장가간다고 이런.

#1 거 햇빛 났을 때 하는 소리고.

@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그런데 이 바다에서는 갑작스리 바람나고, 비가 오잖어. 이것은 두지바람이라고 그려. 두지바람.

@ 갑자기 몰려오는 걸?

#1 그렇지. 이렇게 날이 좋다가도 이 가을 날씨는 하늬바람이 서쪽이 거뭇거뭇하게 구름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그러믄 비 오고 맨날 패는 거야. 바람이. 세계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두지바람이라고, 지금이니까 이렇게 일기예보 같은 거 거시기 하지. 옛날에는 나침반(판) 그거 하나 갖고 땡겼다고. 배에도. 그런게 바람이 워서 오는지, 무슨 일기예보가 어쩐지 듣기를 혀, 보기를 혀. 그러니까 최고 가을날에 작업을 할라믄 서쪽 쳐다 보는 거여. 서쪽. 서쪽 구름 밀이, 달 밀이는 뭐가 어떻게 생겼다. 뭐가 이상하다. 그것 보구서 바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아는 거야. 그렇게 땡겼지. 지금이야 다 일기예보 듣고 허니까 바람이 워디 온다. 뭐 며친날은 날 굳힌다. 다 알지만 옛날에야

다 그렇지. 그러니까 해상 사고가 많았었어.

옛날에 이 섬들, 제주도 같은 디 이런 섬들 과부들이 많은 것이 그래서 그런거야. 지금 처럼 뱃 배들두 좋두 앓고, 그러니까 그걸 몰르구서 나가서 작업하다 느닷없이 바람 들어오른 거기서 천상 거 나침반 고저 하나 보구서 섬을 찾아 들어오는거여. 그러니까 오다가 바람이 너무 세믄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과부가 많았던거야. 옛날엔.

@ 그러면 그 때는 돌아오는 데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러겠어요.

#1 지금처럼 배들이나 빠르고 배들이나 큰가. 참 옛날에 죽을 짓 많이 했어. 우리들 광안도서 배 타고서 인천까지 고기 잡아가지고서 오다 추자도, 흑산도 거기서 조기 잡아가지고 인천 올라갈라고 할라믄 날짜가 얼마야. 광안도서 부산 앞으로 해서 목포 앞으로 해서 흑산 와서 작업해가지고 인천에 팔러 가지. 광안도 사람들은 조기를 몰러.

@ 조기는 안 나오?

#1 광안도는 조기가 없잖아. 그런께 조기 잡으러 간다하믄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 사람들이 봄철, 한 철을 논단말이야. 이까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허고,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까지는 서해와서 조기잡이를 했어. 그런께 여기 서해사람들이 데려가는 거여. 이쪽으로 헐라고. 거기서 노는 공간에 고기 제일 안나는, 못잡는 공간에 서해와서 돈을 버는 거여. 그러니까 서해사람들이 가서 배를 타구 와서 서해에서 작업해서 인천이루 전부 팔구, 그러구서 오월달쯤 되믄 계산보구, 배는 거기사람들이 타구 가지. 그렇게 했어. 그리두 지금처럼 장비가 없으니까, 배 적은 것들은 무전이나 있었간? 조금 큰 배들은 무전이라도 있었지.

@ 배 타시다가 풍랑이라고 풍랑이 뭐예요?

#1 풍랑이 바람 만나는 거루, 풍랑이라 하고.

@ 풍랑이 바람 만나는 거고, 파도.

#1 그렇지. 갑자기 막 바다가 하얗게 물결침서 바람 터지니까. 그것보구 얘기하는 거지.

@ 그거랑 농올이랑 뭐가 달라요?

#1 풍랑 그거 막 농올 치는 거 보구선 농올이 굵다. 어찌다 그러지. 알기 쉽게 책이랑 뿔바도 풍랑이라고 허지. 파도라고 하나, 농올이라고 해? 뱃사람들은 아이구 농올 너무 세다. 파도가 너무 세다 이러지. 그렇지만 인제 책에 이런 디서는 농올이다 뭐다 나오

나? 풍량이 세다 나오지.

### 1.2.7. 배 이야기

@ 이거 그림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풍선인데. 작년에 다른 지역 조사한 거예요? 옛날 풍선모양을 다른 지역에서 그려주신 건데. 경상도 지방에서 했던 건데. 이게 풍선 바닥이고, 옆면이고, 이렇게 배 뒤에서 봤을 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분 명칭을 다 아시겠어요? 부분적으로?

#1 여기는 알기 쉽게 말해 선미 아녀. 그런데 우리들은 이물이라고 그러거든? 이물이라 허구, 여기더러 고물이라 한다고, 그런디 지금은 선미, 후미 이런다고. 그런디 여가 돛대라고 이거 꽃는 디고만, 돛 다는 디. 여가 꽃고, 여가 꽃고. 그런디 이거 두 개 꼽은 배가 있고, 세 개 꼽은 배가 있거든? 돛대를. 대부분이 중선이라고 큰 배들은 두 개 꼽았어. 두 개 꼽았는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호질적에는 이 배들 못 따라가. 발동기 암만 빨라도. 막 중선들 돛 달구서 달 적에 보면 뒤가 하얀해.(배가 나아가고 뒤에 거 품이 이는) 얼마나 빠른지.

@ 그 배의 종류 중에 풍선 중에 두 대배기, 세대배기 이런 게 있던데.

#1 그런 게 돛대 시개 실은 건 세대배기고, 두 개 실은 건, 주로 중선들이 두 개 실었어. 큰 배들. 거 돛이 인제 크지. 그래서 두대배기고. 이게 돛이고만. 여가 치(키) 꼽은 디고.

@ 지금은 이렇게 돛으로 안 가고 하니까, 그 모터가 있잖아요. 그 모터 갖다 야끼다마, 다부리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2 야끼다마, 다부리는 기계이름잖아.

#1 이 야끼다마도 일본말 아닌감? 일본말이잖아. 야끼다마라는 것은 예통, 기계가 예통이야 예통. 기름을 품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든 뿌라꾸(?) 그게 하나여. 예통은. 그래갖고 야끼다마라고 그것은 예통이기 땀에 아주 곤란혀. 아시탕 걸적에 기계를 슬쩍 죽여서 거시기 할 적에 반대로 올려야 반대로 돌아가는 거여. 지금 엔진들처럼 얄마(?)들처럼 거시기 허믄 아시탕하고, 밀으믄 고해허구 헨 게 아니라. 기계를 내려서 기계 죽을만 허믄 탁 올리믄 거꾸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가시 저런 디다. 바닥에서 와가지구 가시 델 적에 가에다가 쳐박거든? 빠꾸를 안 들어가니까. 그 기계가 느닷없이 내렸다가 슬쩍 올렸을 때 아시탕이 돌아야 하는디, 빠꾸를 돌아야 하는디. 안 도니까 갖다 쳐박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많이 허구. 다부리라는 것은 이 야끼다마가 두 대여.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갖고 하나 올라가믄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

라가든 하나 내려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부리고.

@ 그럼 산끼도는 뭐예요?

#1 산끼도는 없었어.

@ 그럼 기켓배가 생기면서, 기켓배가 그 똑딱선이라고 하는 게 기켓배예요?

#1 그렇지.

@ 통통배?

#1 통통배. 것보고 통통배라 했지.

@ 떼마 있잖아요? 떼마가 인제 전마선 얘기하는거죠? 그게 거룻배랑은 달라요?  
거룻배랑 전마선이랑?

#1 뜬마선이라는 것은 이 큰 배에 지금 말하자면 나룻배였던거여. 그래서 노를 저서 달고 대냈어. 뒤에다 꺾차고 땡기다거나, 큰 배가 가들 발동선도 아니고 땡다 꺾다하기 어렵잖어. 그러니까 뜬마 달고 땡기다가, 먼디 갈려면 배에다 돛을 실어. 그래서 그것 보고 뜬마라 했어.

@ 그러면 노를 저어서 다닐 때는, 노 말고 막대기 긴 거 갖다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얇은 데서  
는. 그거는?

#1 사앗대. 그것보고 사앗대라하지.

@ 그거는 뭐뭐 할 때 써요? 어떤 거 어떤 거 할 때?

#1 사앗대는 작은 배, 인제 뜬마 타고 가서 가시 땡 적에 막기 위해서 질르고, 노가 인제 얇으면 노를 못 젓잖어. 그런게 사앗대로 저어서 깊은 디로 들어가야 노를 저었지. 그래서 사앗대가 필요하지.

@ 그럼 노가 안 되는 걸 사앗대가 하는 거군요.

#1 그렇지. 노를 땅에 닿으면 저서 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밀고 나가서 사앗대로 밀고 나가서 노를 젓지.

@ 아까 말씀하실 때 예뉘배기 말할 때, 다시 돌려가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신듯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아시탕? 고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일본말이지 다.

#1 아시탕은 뒤로 빠꾸하는 거. 고해는 앞으로 가는 거.

#2 그거 다 일본말이고마? 아시탕, 고해가?

#1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깐.

@ 근데 바닷길 하시는 분들이 일본말을 많이 쓰시는 거 같은데.

#2 그러. 그러네.

#1 몽키스빠나, 이게 다 일본말이여. 그래서 다.

@ 새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지. 배에서 새지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2 배에 새지라고 하는 거 있지 왜.

#1 새지? 아 새지라는 것은 이런 목선에 둘레를, 둘레에다가 덮집을 대는 거야. 더 넓게. 넓게 대갓고 나무로 돌린 것을 새지라 하는 거야.

@ 그거는 왜 대요? 그렇게?

#1 파도를 치면 새지가 물에 닿으면 배가 들 넘어가잖아.

@ 그 새지가 가이상고라고 하는?

#1 그렇지. 발동기로 말하면 가이상고보고 새지라고 하는거야.

@ 목선은 새지라 그러고? 그런 말 또 없어요? 그 부분적으로 새지라고 하는 거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말 같은 거.

#1 새지라고 하는 것은, 풍선 치고서 새지밖에 더 있간디? 그러니까 원 삼이라는 것은 원 덩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 원 삼이 이 정도면, 이 새지를 다섯자 정도를 벌린다고 위로. 그러니까 파도를 쳐도 그게 있으니깐 물에 닿아도 안 넘어갈 것 아니야. 그게 없으면 힘이 없으니깐. 외국에서 배 옆으로 이렇게 나무 대고서 안 넘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식이나 똑같은 거야. 새지가. 물이 쳐도. 말하자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방지하는 울타리여. 즉 말하자면.

#2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여. 외국서, 저 필리핀이나 뭐 고무신 같은 배 타고, 막대기를 이렇게 넓게 뻗쳐갖고.

#1 그리고 이 새지가 없으면 파도가 탁 치믄 이 위로 다 올라온단 말이여. 이것이 딱 있는께 여기서 탁 치믄 이것 때문이 우로 안 올라오는다. 이게 없으니께 툭 치믄 안으로 다 들어오지. 그래서 그거 의지하기 위해서 이 새지라는 걸 붙인거여. 그러니 지금 배들 가이상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이여.

@ 노를 풍선에서 노를 지어 가잖아요. 노 뒤편에 노 돌리게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어디서 보면, 생긴 모양 때문에 노쫓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약간 노 걸어놓고 이렇게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1 노쫓이라고 하는 게, 요가 하나 배기고, 또 요가 하나 배긴겨.

@ 아 앞에도 있어요?

#1 아 옆으로. 이게 옆이니께. 그래야지 여기서는 뱃머리도 틀고, 뱃머리도 반듯이 가게 허고, 치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노는. 이 노허구, 이 노허구는 물을 치기 땀에 빠르게 가는거여.

@ 여기랑 여기있는 거는 배 속도를 조절하는 거?

#1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여. 그러니께 노를, 옛날에는 기계가 없고 노로 저어 땀길 적에는 이렇게 큰 배들은 노가 다섯 개있었어. 다섯 개. 이쪽 세 개, 이쪽 두 개. 다섯 개를 땀어. 거북선식이루 이렇게 지으니께. 그러니께 이 큰 놈의 배가 밀려가지. 그렇지 않으면 밀려갈 수가 있나?

@ 풍선에서는 지금마냥 기껏배는 사람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는 데도 있고, 그럼 요런 배는 자는 데 같은 데는 없었어요?

#1 이 배들도 다 자. 그 안에 들어가서.

@ 이 배도 자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1 그렇지.



@ 그거는 방 이름 같은 건 없었어요?

#1 이 풍선은 투색간이라고 하고, 이 뒤에서 자는 사람은 투색간이여. 밥 해먹고 허는 데서 자. 그리고 이물 방짱이 또 있어. 이물 방짱. 방짱이라고 요 부근에가 사람 자는 데였어.

@ 방짱이 그 부분이름이에요?

#1 방짱이라고 하는 것은 이물 사람 자는 곳이 얘기하는 거지.

@ 그럼 이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2 선원들이지 자지 뭐.

#1 이제 선원들이 그 뱃사람들이 선장하고는 여기서 자는디, 치잡는 사람이 켈 가까운 데서 자야 하거든? 그렇게 허구선, 일 심부름하고 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잤지.

@ 그리고 돛을 좀 보면, 요것을 살을 뭐라고 해요? 가로로 대고 있는 살.

#2 대 막대기 그것 보고 그러네.

#1 돛살이라고 하지. 돛살.

@ 그냥 돛살이라고 해요?

#1 응. 돛살.

@ 그럼 가운데 이렇게 높이 기준으로 세우는 건, 그건 뭐라고 그래요?

#1 그건 돛대.

@ 그걸 돛대. 그 용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용천대라고 해요?

#1 그런게 지금 돛대보고서 용천대라고 하는 거 아녀. 용천대라고 여다 용두를 달잖아. 꼭대기다. 그래갖고 태극기 달아올리는 식으로 잡아 들어서 돛을 올렸다 하는겨.

@ 그 만약에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물을 그냥 퍼내는 거예요? 빠지는 데는 없고?

#1 퍼내지. 퍼내는데, 이 야끼다마라고 그 기계하고, 다부리라는 발동선은 물을 품어

내는 기계가 달렸어.

@ 아, 지금 배는.

#1 아니, 옛날에두. 기계만 걸으면 기관방 안에 들어오는 물은 그걸로 짹짹 품어냈어. 그거 장치가 돼있어.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없고선, 동끼 아녀. 동끼라고. 모다 닳아놓잖여.

#2 자동으로 빠지지.

#1 자동으로 빠지게. 지금 양마들 우리나라 배들은 나가는 게 있을걸? 야끼다마도 머리를 (짤 써서) 잘 맨들은 거여. 툭툭툭 하나가 되서 그렇지. 물 품어 내는 거, 갱물 빨아올려서 기계 식히는 거 다 당좌가 됐으니까. 기계가.

@ 그 배 갑판 있잖아요, 갑판도 갑판마다 무슨 명칭 같은 게 따로 없나요? 다른데 조사 하면서 마지막으로 체크 좀 해볼텐데. 갑판 보니까 무슨 돛도 이물돛, 허리돛 이렇게 있던데 여기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1 그렇지, 이물돛, 허리돛 그렇지.

@ 허리돛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

#1 가운데에 있는 거고. 이제 우리들이 배에서 부르는 것은 양엇돛이라고 하지.

@ 양엇돛이요?

#1 응, 제일 앞에 것 보고.

@ 그럼 가운데에는 허릿돛 하시구요?

#1 허리돛.

@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게 그냥 이물돛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1 그것은 그냥 큰돛대라고 그랬지, 큰돛대.

@ 아참, 구량이 뭐예요? 구량?

#1 구량, 구량은 배 밑을. 이제 배로 말하면 이렇게 밑을 놓고서 올리는 배 제일 밑이 처음 올리는 그것보고 구량이라 그러는거야.

@ 아, 그 밑에?

#1 구량하고 이제 이렇게 서는 것을 삼이라고 하고.

@ 아, 삼 밑에가 구량이에요?

#1 응, 제일 먼저 놓는 것을 밑이고.

@ 밑?

#1 그렇지. 그다음에 구량하고, 그다음에 삼이고 그렇게 올라가지.

@ 그 끝바늘배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끝바늘배가 정확하게 어떤 거가 끝바늘배예요?

#1 끝바늘?

@ 예, 끝바늘 배라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2 끝바늘이 아니라, 민재 할아배, 저사람 말은 큰 저게 끼고 다니는 그거

@ 바늘 끌고 다니면서 낚시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낙처럼?

#2 그건 끝바래고. 바늘 끼고 다니는 것은.

@ 아, 그게 아닌가 그러면. 그 갑판을 혹시 내끼 이런말 안 쓰셨어요?

#1 응?

@ 내끼라고 갑판을 이렇게...

#1 냉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뱃밑, 구량, 삼 위에 까는 걸 보고 냉끼라고 하는거야.

@ 아..

#2 냉끼 그런 것도 일본 말이다?

@ 예, 그런 것 같네요.

#1 하여튼 배짓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말이야. 몽키 스페너, 파이프렌치, 뭐 전부다.

@ 그 닻 같은 것을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배 떠날 때는 그냥 뭐라 그러세요? 닻 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닻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닻 캐라 하면 뱃사람들은 인자 다 알지.

@ 아, 나가는지?

#1 응, 그러니까 닻 캐라하면 닻을 올리란 걸로 아는데, 지금 학술적으로는 닻 캐라 그러는 게 아닐겨. 그렇지?

@ 예, 그냥 닻 올려라라고 많이 되어있는데.

#1 닻 올리라고 그렇지.

#2 그러겠지, 지금 사람들은 닻 올리라고 그러겠지.

### 1.2.8. 그물과 물고기

@ 그물 던질 때 그물 후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던지면 후려라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1 후리라고 옛날에는 했어. 옛날에는 외연도 앞에 백사장, 축항을, 백사장을 막어갖고 축항이 되겨. 외연도가. 그랬는디 그 찻국 담은 디로 이쪽 어촌계 여관 있는 데가 다 백사장이야. 짝 다 백사장인데. 바람 불으면 배를 놀 데가 없었잖아. 그래서 그 정 부에서 축항을 이쪽 저쪽서 허니까 그 앞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거여. 거기를 다 매립 해갖고 집들 앉은 거여.

@ 전에는 그쪽은.

#1 전부 백사장이지. 거기에 축항 안했을 적에는 후리라고 그 그물을 했어. 그러믄 콩치, 메르치, 옛날에는 갈치도 그렇게 술허게 잡고 했어. 앞에서 요렇게 돌려갖고서는 양쪽서 땅그잖아. 텔레비 봤잖아. 그렇게 후리해 갖고두 갈치를 한 배씩 잡고 그랬어. 조그만한 배로. 그랬는디 인제 축항 막고, 그 모래장을 돈아서 집 짓고 허니까 후리 할 장소가 없잖여.

@ 축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지형을 축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2 외연도 들어가면 그 양쪽에 부두가 축항이여.

#1 양쪽에 그 등대 선 거 보고선 축항이라 그러지.

@ 망둥이라는 고기 아시죠?

#2 망둥이. 저 빨땅에 있지.

@ 망둥이가 어떻게 생긴 게 망둥이예요?

#2 아주 못생긴 게 망둥이여. 외연도는 있지도 않아서 잘 몰라.

@ 민물고기예요? 그게?

#2 아녀. 바다에서 나는 거.

#1 요기 육지 근처에 빨땅. 빨땅 이런 데서 낚지. 외연도 같은 디는 망둥이는 없어.

@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른 물고기랑 비슷한 게 있다면?

#2 다른 게 비슷한 게 있다면.

@ 민어랑은 다르죠?

#2 민어는 천지차이지. 민어는 거따 대면 아주 미인이지. 잘생겼지.

@ 민어가요?

#1 망댕이는 대갈빼기만 크고, 쪽 빠져갖고, 배꼽이 하나 있어. 배꼽.

@ 아 배꼽이 있어요?

#1 아 배꼽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게 이렇게 놓으믄 딱 붙어.

@ 아 바닥예요?

#1 어. 그러니까 말하자믄 바람 불고 하면 그게 방지하는 모양이야. 무슨 고기구 바람 불믄 방지하는 게 다 있거든?

#2 뭐가?

#1 거 배꼽. 망뎡이처럼 밑이 배꼽이 달렸다니께.

@ 여기서 조개는 많이 안 잡으셨어요? 홍합류 빼고는?

#2 조개는 먹을 거 조금씩 하고, 여기 육지가 가까운 데가 많이 허지.

@ 여기 근처에서 잡히는 조개는 어떤 조개가 있어요?

#2 다 똑같어. 조가는. 납작한 거.

@ 백합 요런 거 있잖아요.

#2 백합 그런 건 저 전라도서 나고.

@ 여기는 그럼 어떤 거?

#2 그냥 납작한 조개.

#1 여기서는 반지락이라고 그럴걸?

@ 반지락?

#1 어.

#2 어. 그 조개여.

@ 대배조개, 부전조개, 해방조개 요런 건 안 들어보셨어요?

#2 다른 데가 다 잡어. 그런 거는.

#1 여기도 뭐 울조개 같은 거 잡을걸?

#2 아 그런 거 꺾끔씩 잡는 거 뭐 이야기허요. 대량으로 잡는 거 말허지.

#1 장사들 하느라고 구워먹고 허는 조개.

@ 조개도 발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개 안에 열어 보면 내장이랑 이런 거 다 보여요?

#1 그렇지. 까여지.

@ 조개도 아가미가 있나요?

#1 조개는 아가미보단 빨아들이는 거시기가 있더라고. 즉 말하면 빠는 거여.

@ 태안 쪽에 가면 꽃게 유명하잖아요.

#2 꽃게는 여기도 마이 잡지.

#1 꽃게? 그렇지. 여는 9월. 음력 9월달부터 이제 여기 어항 판장에 꽃게 슬허게 나.

@ 게 암놈이랑 수놈은 어떻게 구별해요?

#1 배꼽.

@ 배꼽이요? 배꼽이 어떻게 달라요?

#1 숫놈은 배꼽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 아 역삼각형?

#1 요렇게 빼죽혀. 그러구 암놈은 배꼽이 뚱그런해. 배꼽.

@ 이게 수놈이고 암놈은 약간 둥글둥글.

#1 어. 둥글어.

@ 그러면 게의 발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발을 뭐라고 하세요? 그냥 집게라고 하세요?

#1 그렇지. 집게발.

@ 그럼 나머지 발들은 뭐 그냥.

#1 부챗발이라고. 젤 끄트머리라 그러고. 집게발이라는 건 제일 앞의 그. 그것보고 집게발이라고 허고. 문다는 얘기지. 알기 쉽게.

@ 게는 게 등을 보고, 등딱지라고 해요? 등껍질이라고 하세요? 사람들 게장에 밥 비벼 먹는 거.

#1 거의 껍다기라고 허지.

@ 안에 보면 내장이 뭐뭐 있어요?

#1 내장이라고 해봐야. 뱃 먹는 주둥이 안에 가무스름하게 요만한 거 달렸어.

@ 내장.

#1 어. 내장. 고깃만 띠어내든.

#2 주머니처럼 달렸어. 입 밑에가 요만하게 달린 거 거 뭐. 암것도 없어. 찌끄레기 찌끔 들었어.

@ 나중에 손질할 때도 그것만 떼면 돼요?

#2 아니지. 그것 떼고 이렇게 따공을 뜬으면 양쪽에 날개처럼 구섬탱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달렸잖아? 그거 다 띠어내버려야돼.

#1 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2 아 부들부들한 거 양쪽에 달렸잖아.

#1 그것을 띠야 해.

#2 스펀지처럼.

@ 그거 이름이 뭐라고요? 구섬탱이?

#1 구섬이라 그럼 되지.

#2 거의 뭐 구섬이지.

#1 그것은 띠 줘야지.

@ 꽃게는 여기서 찌 드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2 찌 먹는 사람은 육지사람이 할줄 모른께 다 찌먹구. 거기 사람들은 무젓을 많이 담아먹지.

@ 어떤 거요?

#2 생이루 잘라서 양념간장 해갖고 꽃게 무젓. 꽃게젓 빨간하게 식당에 가면 나오잖아요. 무친 거. 그거 무젓을 마이 담아 먹어. 그러구 인저 간장게장 담은 다는 거.



통. 향아리다 넣구 간장 끓여서 붓는 거. 그거는 간장 계장이구.

@ 간장계장처럼 빨정게 하는 걸 그걸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2 어. 빨간하게 하는 것을 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지.

@ 계뚜껑, 그러니까 등껍질 보면은 옆에 약간 뽀족뽀족하게 난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2 뽀족하게 난 건 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 그냥 가시예요?

#2 그렇지 가시(까시)지 뭐.

#1 까시지.

@ 그건 왜 있는 건지는 모르시죠?

#2 서해바다 게 특이하게 표내느라고 있지 그거야.

@ 게는 심장이 어딴어요? 꽃게.

#1 심장이 아래가 있을테지. 어디가 있겠어.

#2 거기 이야기하잖아. 거 입 있는 데가 주머니 요런 거 달린 데가 거기 심장이고, 내장이고 창자가 뭐가 있는지, 찌끄레기 요만치 달렸으니.

#1 저 꽃게는 제일 쉽게 죽는 것이 배꼽 떠면 그냥 죽어버려.

@ 배꼽이라는 게 아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1 어이. 그거 뚜껑 딱 따서, 똑 따면 그냥 죽어.

@ 아 그래요?

#1 응.

@ 그 배에 보면은 네모나게 조그맣게 뜯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배꼽이란 게.

#1 그렇지, 요 땅 닿는 배께가 배꼽이라고 암놈은 이렇게 동그랗고 숫놈은 이렇게 기

다랗지. 고깃 푹 잡아띠면 구녕이 딱 떨어지고 잘라서 떼면 이렇게 내장처럼 뭔가가 달려 나온다고. 그러면 데번 죽어.

@ 그 고기 같은 거 이제 많이 잡히니까 구별들 하실 거 아니에요. 구별할 때 대충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랑 이견 뭐가 다르다라는 걸 뭘 보고 구별하세요?

#1 고기가 다 틀린데?

@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고 하신텐데, 뭘 색깔이라든지...

#1 아니, 이렇게 보면 생김새가 벌써 다 달버. 똑같은 고기는 백조기하고 조기, 부서요 세가지가 비슷하지. 그래도 이제 색깔이 다르지.

#2 세 마리가,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촌 이러니께 똑같지. 그것만 그런감, 가오리도 그러치. 가오리, 간개미.

#1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썩지않아 살이 돋잖아, 침이, 독침이.

@ 아, 그걸 살이라고 하세요?

#1 그렇지.

@ 아, 화살같이 생겨서 살이라고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1 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돋았는데 전부 옆에가 살이 달렸어. 살이. 그건 찢르면 그냥 못빼. 찢어야지 빼지. 이렇게 작살처럼 옆에가 이렇게 달려서.

@ 아, 달려있어서 그대로 못 뺀다는 거예요?

#1 그래서 가오리가 무서운거여, 살이 달려서.

#2 하나만 달린 것이 아니여 그럼?

#1 하나만 달린게 아니라, 이렇게 빼죽한 디가 이렇게 접살이 달린 가오리가 있고, 세 개 달린 놈도 있어. 세 개 달린 놈도 있는데 옆에가 몽뚝한게 아니라 톱날처럼 생겼다니까 살이. 그러니까 꼽으면 빼기가 거시기 허지. 찢어야 뺀다 그말이야.

@ 마지막으로 그물 좀 여쭙 볼게요. 잡을 때 다른데서 보니까 수지자망, 자망 그래서 얘기하던데, 종류도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물도. 수지자망이 뭘 가지고 수지자망이라고?

#1 수지자망이라는 것은 지금 광어 같은 거 잡느라고 배를 갖고 다니는 것이 수지자망인데, 그건 주로 중국서 많이 가져오더라고, 중국서. 그러니까 수지자망이라는 것은 낚시 하는 수지, 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생겼어 그물이, 그물줄이. 그래서 그것 땀에 수지자망이라고 하는 거여.

@ 경심이라고 하는게?

#1 경심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겨.

@ 그럼 그 수지자망은 요즘이고, 예전에는 목그물이라고 하셨다던데, 목그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1 목그물은 이 옛날에 이, 지금도 목실 있잖아, 실. 바느질하고 하는 실, 그런 목실로 꼬은 줄이 있어. 옛날에는 지금은 나일론이라고 나일론, 그 실이 전부 나이롱 실이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목실이라고 목실로 하면 잘 썩어. 물에 들어가서 있고 꺼내봐도 바삭 마르지 않으니까 실이 썩어, 썩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목실이 이제 옛날에는 목실로 그물을 했었는데 나일론 실이 나오면서 목실이 없어진 거야.

@ 그러면 경심이 그 나일론 말하는 게 경심이에요?

#1 아니 나일론 말고, 이 실이 또 나일론 실이라고 보드라운 게 있어.

@ 아, 따로 있어요?

#1 응, 따로. 그래가지고 그 그물이 인저 지금은 또 나일론 그물 쓰는 사람이 있어. 저기, 저 지금 tv에 나오는 건 민어 잡잖아, 민어. 민어그물배 이렇게 한건, 그것은 전부 나일론 그물이야.

@ 아, 민어그물이야?

#1 응, 나일론 그물이야. 나일론 실이야. 질기기도 허고 보드랍기도 허고 그게 민어잡는 그물 조기바리 그런 것들 전부 그런 그물을 썼었는데.

#2 최근에 이거, 저 수짓그물이 나와가지고.

#1 예, 지금은 수짓그물이 나와서 그렇지 전부다 나일론 그물이었지.

@ 그 바리라는 말을 많이 쓰시네요? 조기잡이 이런 말을 바리라는 말 쓰시는 거세요? 방금 조기바리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게 조기잡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2 음, 조기바리라고 하는 것은...

#1 조기바리라는 것은 이제 조기잡이 한다는 그 소리지.

@ 그, 쪽지그물이라고 아세요? 쪽지 그물이라는 게 있던데, 뭐 실치 같은 거 잡는 그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1 실치 같은 거 잡는 것은, 쪽지 그물이 아니고 낚설망(?)보고 하는거 아니여?

@ 아 낚설망이요?

#1 낚설망이라고, 설망이라고 그 벤게 있거든. 그게 최고..

#2 실치잡는게 쪽지그물이라구요? 실치 잡는 거?

@ 예, 그렇게 얘길 하더라구요.

#2 아, 실치잡는 건 낚설망이여.

#1 그것보고 낚설망이라 하는디, 그 똑같은 낚설망이라도 절수로 따지지. 인제 지금은 미리로 따지지만 옛날에는 절수로 이렇게 우리들이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삼절이다, 사절이다 이렇게 따졌거든? 그러면 그게 45절짜리가 실치 잡는 그 벤 그물이여.

@ 아, 45절짜리가?

#1 응, 그러니까 이 그물 한 틀을 벌려고 하면 우에서부터 쪽 내려가서 제일 끝트머리 부턴 것이 그렇게 벤 그물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치도 잡고 까나리도 잡고 잔 고기를 다 잡는거야.

@ 아, 잔고기를 거기서 잡는 거예요?

#1 그렇지, 우에서 한번 코가 전부 이렇게 굽다고. 그러면 이제 가령 1m면 1m, 몇절 짜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절수를 쪽 따져 내려가지. 그러면 위에서는 큰놈이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자꾸 인제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물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위로 들어갈 적에는 굽은 데로 들어가도 여기 받아내는 것은 그 쪽쪽한 그물 낚설망 그것이 꼬트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그리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잡는거야.

@ 그, 절수라는 게 코 말하는 거예요?

#1 그렇지, 코. 코 넓이를 얘기하는거야, 절수가.

@ 절수가?

#1 그렇지. 그렇게 절수를 따졌는데 지금은 저 전부 미리로 하더라고, 미리로.

@ 그럼 절수가 작을수록 그 코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코 개수예요? 코의 크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코, 절수라는 것은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 아, 그 그물구멍 하나에?

#1 그렇지. 넓이를 이야기 하니까 절수를 따져서 엉근놈에서부터 자꾸 뵤놈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뽕뽕이 그물 제일 앞에 그 큰 것이 이절이거든? 이절이니까 이절에서부터 사십이절까지 내려가는 거여.

@ 아, 이절에서 사십이절까지?

#1 그렇지, 그렇게 내려가서 꼬트머리가서 이제 멀 같은 걸 다 잡지.

@ 아 그럼 아까 실치 같은걸 잡는 게 45절까지 간다는 거예요?

#1 그렇지, 제일 뵤거.

@ 아, 그게 제일 뵤 거구나. 아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게 있는데 낚시할 때 그 낚시줄 감잡아요, 연 날릴 때 그것처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2 수리지.

#1 뭐가?

#2 아니, 낚시줄 한 거.

#1 줄모태라고 해, 줄 모태.

@ 아, 줄모태? 그 자상? 자상인가 자사라고도 하시나요?

#1 자사라고도 하는데 주로 줄모태라고 많이 쓰지.

@ 자사라는 말도 쓰긴 쓰셨어요?

#1 자사라고는 아직까지 우리들은 안 썼는데.

#2 섬에는 줄모태라고 하는거지.

#1 육지 이렇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줄자사 달라 해쫘고 그러데. 그 감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 예예, 맞아요. 그 연에서 열레 같은 거.

#2 육지사람들은 자사라고 하고, 여기 섬에서는 줄모태라고 하고 그러는가보지.

## 2. 외연도의 풍어제 관련 구술 발화

### 2.1. 햇곡식, 햇과일, 돌김 팔어다 제사 지냈어요.<sup>2)</sup>

@ 당제 지내잖아요? 당제 지내는 거 얘기 좀 듣고자 왔어요.

# 당제 지내는 거.

@ 면사무소 들어가니까 사진도 있대요?

# 예.

@ 당제 지내는 것들 그런 거 보고 순서나 어떤 거 음식 어떤 거 올리고 그런 것 좀 저희가 듣고 싶어서.

# 그런 거 거기 다 저기가 뭐가 있었을 건데. 산제 지내는 건, 산제 지내는 건 그래요. 동네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 갖고 어르신들하고 모여 갖고 언제 날이 좋다 해가지고 인제 산제를 모시자 일 년에 한 번씩 산제를 모시는 거니까.

---

2) 제보자 안상철

@ 날 좋은 건 뭘로?

# 아. 그러니까 보름 때라든가 인자 그럴 때? 음력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아니믄 인제 2월 보름이라든가. 인제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그리고 초상 같은 게 나면은 안 되고 이 동네서 애기 같은 거 낳고 허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안 지내니까 그래서 인제 그 날짜를 부르는 거예요. 봐서 인제 초상나는 것도 이제 그런 때를 피해서 정월대보름을 대략 많이 지내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 우리들 어려서만 해도 일 년에 세 번 지냈어요. 세 번 지낸 것은 봄에 4월달에, 또 8월달에는 햇곡식 나오잖아요. 햇과일. 8월달에 벼 비면은 햅쌀을 팔어다가 노구제라 해서.

@ 무슨 제요?

# 8월달에.

@ 무슨 제요?

# 노구제라 해서, 노구제라 해가지고 밥 해놓는 걸 노구제라 하는 거여. 그렇게 해서 ???에 있는 과일을 사다가 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선 요기서 전에는 쌀밥을 먹었어. 햅쌀을 먹었어. 그리고 인자 11월달에 소를 잡어서 11월달 또 소를 잡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1년에 세 번을 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세 번 했는데 세월이 흘러고 흘러고 하다보니까 우리들 어려서만 해도 내가 62이니까, 불과 40한 5년 전만해도 1년에 세 번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것이 끊기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 번을 지내거든가? 예. 한 번을 지내요. 한번을 지내는데 그것도 4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4월달에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돈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4월달에 이제 그 김 뜯어가지고,

@ 뭘 뜯어요?

# 해태 해태 김.

@ 아. 김.

# 돌김을 뜯어가지고 돌김을 뜯어갖구 그 놈을 집집마다 돈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김을 사러왔어요. 사러 와가주구선, 사러 완 김을 상인들한테 인제 ??을 한 거여. 한 집에서 예를 들자면은 다섯 사람이 뜯으러 가면은 조금 더 내고 혼자 하는 사람은 좀 들내고 사람 숫자대로해서 인제 김을 걷어갖고 인제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여. 그래가지고선 이제 장배를 띄워서 언제 그 때는 날이 언제가 좋다

해가지고.

## 2.2. 황소도 땅에 단 데는 제사에 안 써요.

@ 아, 장배를요?

# 예, 배를 배도 요기서 인제 장배라고 인제 장보러 가는 배를 장배라 하거든요? 그 배를 띄워가지고서 가가지고 소를 사고, 쌀 같은 거 팔아갖고 3~4일씩 쌓아갖구 가서 이제 여기서 산제 지낼 때 꽃감, 대추, 밤 밖에 안 올라가요.

@ 아 그것만 올라가요?

#예, 다른 건 안 올라갑니다.

@ 최근에 하는 것도?

# 예예. 옛날서부터 꽃감하고 밤하고 대추. 이걸 저 우리 한국의 토종. 고 세 가지만 배 사과도 안 올라갔었고, 딱 세 가지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리고선 소를 황소를 꼭 잡아서 산에서 잡아서 그거로 제사를 지내요.

@ 산에서 잡아요?

# 산에서 잡아요?

@ 바로?

# 예, 산에서. 산에 그 잡는 나무가 있고, 고 앞에 소 해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서부터 산에서부터 산소를 황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암소는 안돼요. 황소여야지. 황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산에서 잡는데, 그리고 이제 흰떡이라고 하얀 떡 있잖아요. 곡밀 가루처럼 늘린 거 있잖아. 그 떡을 만들고, 또 팔을 해쳐갖고 시루떡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찹쌀로다 케케하는 시루떡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떡은 두 가지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산사 시루에다 넣고, 가가지고 올라가서 노구제라고 산에 산신당에 노구제를 세 군데를 노구제를 지내요. 노구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인제 떡 해놓고 고두메라고 쌀을 이렇게 수쳐갖고 시루에다 찌서 가지고서 고것을 인제 차려놓고. 그리고 인제 떡, 과일을 산신당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갖고 그 때부터 이제 사당이라는 산에 위에 그 차리는 데가 있어요. 소를 한 마리를 다잡아서 땅에 단 데는 산에 안 쓰고, 밑에는 안 쓰고 땅에 안 단 쪽만 위에 산에서 다 쓰는 거



예요. 제사를. 그리고 인제 산에 그 산에 머리 반쪽 사분의 일. 앞쪽 뒤쪽, 물건 앞 쪽 뒤쪽. 그리고 머리도 사절의 한 부분(1/4) 산에다 또 다 묻뜨려놔요. 묻는다는 건 돌바우 밑에다 다 넣어서 고양이한테 다 못 먹게 딱 돌로 덮어서, 해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지내고 띠배 띄우고 그리고선 이제 안당이라고 안당 들어가서 안당 고사라고 안당 고사 지내고.

@ 무슨 제사요?

# 안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내요. 산에서 갖고 내려온 고기를 가지고, 산에서는 소를 이렇게 잡잖아요. 소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땅에 안 단 거는 산에서 다 쓰고, 땅에 단 쪽에 갖고 내려와서 밑에서 제사를 지내죠.

@ 제사를 세 번 지내는 거예요?

# 산에서는 한 번, 여기 내려와서 용왕제 지내고, 또 안에 들어가서 안당고사라고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 안에는 어디?

# 저 안에 동네 안에 평나무 있는 데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데가.

@ 아, 거기서 지내요.

# 예, 그리고선 인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제 동네 주민들 오라고 해서 술 한잔씩 먹고 고기 먹고 그래야.

### 2.3. 부정 없는 사람

@ 얼마나 지내요? 하루? 이틀?

#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시간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오전에 한 열두시나 올라가면 내일 열한시나 내려와요. 산에서.

@ 아 그래요?

# 예 하룻저녁 꼬박 날 새는 거예요.

@ 그 제사지내는 분들은 어떻게?

# 인제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부정 없는 사람. 산모가 없는 사람.

@ 산부가 아닌 사람.

# 예, 산부가 아닌 사람. 상주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을 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줄여갖고 한 십여 명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주를 거기서 뽑고.

@ 제주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 제주도 인제 거기서 뭐 알고 뭘 좀 할 수 있는 양반을 해가지구 제주로 선정을 해. 첫 번에 제주를 선정해가지고 제주를 선정한 다음에 또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화장인데 화장이라 해서 화장을 뽑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한 번 지낼면은 날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십일 정돈데. 대천에 인제 장보러 가야되고, 대천 물건 구입하러 가야되고, 가는 사람은 가고, 산에 나무도 해야 되고, 사당 이런 데 다 청소도 해야 되니까 소요되는 시간은 한 십여 일 걸린다고 보면 되요.

@ 하루 이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 하룻저녁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십여 일을 사람들이.

@ 제사 지내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죠?

# 남자. 여자는 안 올라가. 남자들만 올라가.

@ 남자들 중에서도 상주가 아닌 뭐 그런 분들.

# 산부가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부정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때도 부인들이 집에서 달거리 하는 사람들도 안 되고. 달거리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허면 남편이 거길 올라갈 수가 없어.

@ 아. 올라가는 사람 마누라가 달거리를 하면.

# 어. 올라갈 수 가 없어. 그 정도로 엄한 거예요.

@ 그러면 소 같은 거는 거기서 바로 잡고.

# 떡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 떡도 거기서 찌요? 떡을.

# 떡을 거기서 찌요. 거기서 찌가지고 거기서 다 떡도 만들고.

@ 아, 근데 남자분들인데.

# 아 그런 거 다 해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 떡 종류는 아까 시루떡하고 또 다른 건 없어요?

# 고두메라고. 쌀 찌서 쑥밥 찌듯 고두메라는 게 쑥밥 찌듯이 찌는 거여. 시루에다. 그렇게 해서 떠놓고.

@ 쑥밥처럼 찌는 게 고두메라고.

# 어. 그게 고두메여. 노구제라는 건 산신당에 밥을 해서 냄비다 밥을 차리는 게 노구제고.

@ 혹시 제사 지낼 때 제문 같은 거는 어떻게 쓰세요?

# 제문 같은 건 여기는 축 같은 건 안 읽었어. 축 같은 건 어려서부터도 축 같은 건 읽질 않고, 차려놓고 인제 동네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뿐이지 제주가. 제주가 소주 올리고 동네 잘되게 해달라고.

@ 글 쓰고 그래서 읽는 건 없고.

# 이이. 그런 건 없고. 동네 이제. 그 옛날에는 했나 모르는데, 내가 알기루두 어려서부터 내가 다니면서부터 축문 같은 건 없었어.

@ 용왕제 같은 거 내려와서 하면은 배 같은 거 띄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부르는 노래나 이런 건 없어요?

# 노래 같은 거 없어. 풍장만 치지.

@ 면사무소 가서 보니까 사진이 몇 개 좀 있길래 갖고 왔어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사진 보는 게 제가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면 좋잖아요.

@ 이거 보이시죠?

# 아 이건 띠배 띄우는 거.

@ 무슨 배요? 띠배?

# 띠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만들어갖고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지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만들었었는데.

@ 지푸라기로요?

# 예. 띠배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제 나무를 사다가 만들어서 띄우는 거. 여기다 떡 같은 거 다 실어서.

@ 아. 여기다가요?

# 어어. 실어서 띄우는 거지.

@ 그럼 계속 떠가게 냅둬요?

# 예에.

@ 다시 안 잡아오고?

# 예에. 어딘가 가서는 뭇 하겠지.

@ 이걸 매년 새로 만들겠네요?

# 예에. 새로 만들어 띄우니까.

@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 이걸 풍장 치는 사람들. 용왕제 지내러 갈 때, 풍물을 치잖아. 용왕제 하려고 배에 다 싣는 장면이여.

@ 요거는 뭐예요? 이 장면은? 이게 소인가요?

# 예에. 먼저 그전에 이장했을 때, 시장님이 사당 안에 술 따르는 거.

@ 요건 무슨 고기예요? 다?

# 소, 소.

@ 이게 다 소예요? 이게 다 어느 부위예요?

# 이게 머리도 있고, 등뼈도 있고, 꼬리 있는데 반골, 꼬리, 유통, 이런 거 다 올라와요 여기. 머리로 사분의 일. 등 이제 반골이라고 해서, 뒤 꼬리에 달린 유통, 족발.

@ 유통이요?

# 소불알. 꼬추하고 꼬리하고 같이 붙은 데 그걸 유통이라 하고, 같이 붙여서 꼬리하고 인제 올라가고 뒤에 인제 소 말하자면 뒤, 꼬리에 있는 위 그걸 반골이라고 하거든요? 반골 올라가고, 소 머리 사분의 일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다 뼈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다 올라가는 거여. 소 앞발 뒷발 물걸? 다 올라가는 거여.

@ 이걸 뭐예요? 밥인가?

# 예? 아 이걸 꽃감. 대추, 밤. 거기다 고두메.

@ 아. 고두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찐 거?

# 예에.

@ 여기가 인제 사당 안에요?

# 예에.

@ 요거 하얀 거 이런 거 뭐예요?

# 하얀 거? 질지라 해가지고.

@ 질지?

# 질지라 해가지고 사당 안에 제사 지낼 때만도 줄을 이렇게 띄어놨어요.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만도 백지를 소지쪽(?) 이제 사갓고 와서 묶어주는 거예요.

@ 그럼 이거는 묶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 제주. 제주하고, 안어장라고, 그 사람하고 여기 의상도 있어요. 여자옷. 여자옷 세벌 있어. 여기 차려 놓는 뒤에 위패 모시는 디 위에다 옷을 차려놔요. 가운데는 백옷, 여자옷. 하얀 옷. 이쪽 청치마, 홍저고리 해가지고, 두분. 따님들이라 해서 두분을. 가운데는 전횡장군 부인이고, 이쪽, 저쪽으로는 따님들 옷을 두벌을. 총 세벌 들어가는.

@ 아. 가족이네요.

# 가족.

@ 이거(질지)는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씩 묶는 거예요?

# 아니. 여러 개씩 묶어줘요.

@ 술은 뭐 따로 정해서 하는 술이 있어요?

# 옛날에는 술을 여기서 빚었어요. 장보러 갈 적에 누룩을 샀다가 도랫술이라 해가지고.

@ 도랫술이요?

# 어어. 그걸 도랫술이라 했거든?

@ 빛은 술.

# 으으. 도랫술을 제사 지내는 술을 도랫술이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빚어놓고는 장 보러 가고 그랬거든? 지금은 인제 우리가 그런 거 제대로 못하니까 약주를 사다가.

@ 요거는 무슨 장면이에요?

# 산신당 앞에서 차려 놓고서 지구선 내려오는 거야.

@ 뭘로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 지게. 지게.

@ 아, 지게.

# 응응. 지게다 지구 하산하는 거여.

@ 뭐한다고요?

# 하산.

@ 하산. 이걸 뭐예요? 지고 가는 거?

# 시루. 이거 다라에다 시루 앉혔잖아.

@ 요기는 어디예요?

# 이게 산신당이에요.

@ 산신?

# 예. 산신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운데 저쪽, 이쪽 이쪽에 한군데가 또 있거든요? 제일 제사는 제일 큰 제사는 산제를 지내는 데가 여기에요. 사당은 소 잡아서 지내는 데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최고 먼 데예요.

@ 어디에 있어요?

# 사당 위에 있어요.

@ 사당 위에.

# 예. 거 위에 산신제가 산신제가 제일 우선이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기 그래가지고 떡이 있잖아. 떡하고 흰떡하고, 노구제를 지내고, 밥을 먼저 해서 김 하고, 더덕구이 하고, 이렇게 산제를 노구제를 지낸 다음에 흰떡하고 시루떡하고 과일을 다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요기는 고기를 안 차려놔요. 세 군데는. 세 군데는 고기를 안 차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다 차려 놓 다음에 거기서 징을 쳐주믄 제배를 하고 소주 올리고, 그때 지태라고 소를 잡는 거예요.

@ 이 분은 뭐하시는 분이예요?

# 이게 제주야.

@ 옆에서 이렇게 술 해주시는 분은 그럼 따로 부르는 말은 없어요?

# 안어장이지.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총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지.

@ 무슨 장이요?

# 안어장. 감독관이라고 하면 돼.

@ 이건 뭐예요?

# 여기가 바로 이것이 내가 얘기 했잖아요. 돌 밑에 밑이가 구녕이 있다고요. 고기를 파고서 다 묻는 거야. 이게.

@ 아. 못 먹게. 다른 동물들이.

# 내가 얘기 했잖아요. 족발 두 개. 앞족 뒷족. 물걸. 물걸 뼈. 소뼈. 앞뒷뼈. 소. 발은 다 들어가는 거여 궁께. 소머리 사분의 일. 거기다 인제 등뼈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고기를 잔뜩해서 묻어 놓는 거. 그리고선 이 돌 딱 다 덮어놓고선 술 한 잔 따라놓고 내려오는 거지.

이게 하산할 때 짝은 거지.

# 이것이 이제 칠당이라 해서 용왕제. 회관 앞에서 용왕제라 해서. 칠당 쳤다. 해가지고.

@ 칠당이요? 그게 뭘말이에요?

# 일곱사람. 일곱분. 일곱분, 열네분. 칠당해서 열네당이지. 안에도 똑같애. 안당도.

@ 요거 소 잡은 거예요?

# 예? 소. 소. 그리고 소 저기 뭐냐든. 소 간하고 저기 천엽. 회라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조금씩 차려 놓는 거예요.

@ 해? 해라고 그래요? 해가 무슨 뜻이에요?

# 그러니까. 우리들 회 먹는 거 있잖아. 산에서는 산에 용어가 횡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을 횡감이라는 것이지.

@ 회 말고 해요?

# 예. 회. 회. 우리들이 말하자면 회. 회 먹는 식으로.



@ 회 했다 하시는 거예요?

# 횡감이라 그러지.

@ 요거는 뭐하는 거예요?

# 요거 퇴송이라고 해서.

@ 퇴순?

# 피하고, 인제 고기 떡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제 다해서 고시레 하는 거야. 그걸 퇴송이라 그러지.

@ 용왕님들은 그럼 신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 그러니까, 그냥 동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남해바다 용왕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술 한 잔 따라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는 거지.

@ 제사 지낼 때는 올리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 여기는 생선 같은 걸 안 쓰더라구.

@ 왜 바단데?

# 생선 같은 건 안 쓰고, 다만 용왕제 지낼 때도, 김하고 더덕 같은 건 반드시. 더덕하고 김하고 나물.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숙지 나물, 나물하고. 이런 거 해.

## 제 4 장 조사된 어휘

### 1. 어로 생활

#### 1.1. 까나리잡이 및 멸치잡이

까나리잡이 및 멸치잡이에 해당하는 어휘 조사에서는 크게 까나리잡이와 까나리액젓 만들기, 멸치 말리기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 1.1.1. 환경

환경에서는 바람에 관한 어휘를 많이 쓰고 있었다. 가을에 부는 돌풍을 ‘두지바람’, ‘두지’, ‘두지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이 바다에서 거세게 부는 것을 ‘바람 터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가을에는 날씨 탓에 조업하기 위해 서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가을날에 작업하려면 서쪽을 본다’라고 하였다. 또한 ‘셋바람’이 부는 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다’라면서 동풍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다.

- ⇒ 그런데 이 바다에서는 갑작스리 바람나고, 비가 오잖어. 이것은 {두지바람} 이라고 그려. 두지바람.
- ⇒ 두지바람 여기서 부르는 용어만 내가 얘기하는 거여. {두지한다}고 가을에 구시월에 불면은 두지한다고 하는거여 두지바람
- ⇒ 그렇지. 갑자기 막 바다가 하얗게 물결침서 {바람 터지니까}
- ⇒ 가을날에 작업을 할라문 서쪽 쳐다 보는 거여.
- ⇒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머리 아퍼서} 미끼도 안 먹구, 안 무는 게라고 그러지.
- ⇒ 잉. 그런데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어}

이상에서 환경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환경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환경 | 바람·비  | 두지바람, 두지 한다, 바람 터지다, 소내기                                           |
|    | 관용표현  | 가을날에 작업하려면 서쪽 쳐다본다,<br>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다.<br>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 한다. |

### 1.1.2. 어획물

#### 1) 물고기

까나리에 대해 표준어 그대로 나타났다. 대신 멸치에 대한 어형이 ‘멸치’, ‘머르치’, ‘메르치’, ‘맬’로, 멸치보다 큰 고기에 대해서 ‘양미리’라고 일컬으며 ‘양맬’이라고 사용하고 있었다. 고기의 크기에 따라, ‘잔눔’, ‘굵은눔’이라고 사용하기도 했다. 옛날에 어획물을 잡아서 육지로 가져갈 때까지 신선하게 저장할 수 없어 소금에 절여 ‘짠고기’로 내놓았다고 한다. 가오리를 ‘간재미’의 형태로도 사용한다.

- ⇒ 그런데 왜냐하면 {머르치}보다 그게 싸단 말여. 가격이
- ⇒ 삶을 직에 솥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그 {메르치}를 넣으면 그 물에서 동동 뜨지.
- ⇒ 큰 거 부르는 거 또 있지. 큰 거는 {양맬} 이만 혀
- ⇒ 그때 냉장고도 없지만 뭐가 있어. 그래서 소금, 소금에다 절여갖고 {짠고기}로 팔아먹었지.
- ⇒ 그러니까 거기서 실치도 잡고 까나리도 잡고 {잔고기}를 다 잡는거야.
- ⇒ 이거는 {간재미}고.

#### 2) 조개류 · 해조류

조개류와 해조류의 어휘도 수집할 수 있었다. 홍합이 많이 채취되는 지역이기는 하나 그 명칭은 표준어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말조개를 ‘울조개’라는 어휘로 대신하고 있었다. 해조류에서는 ‘우뭇가시리’와 ‘툇’이 수집되었다.

- ⇒ 응, {배말}. 배말 {고동} 맞네. 고동이네. 고동도 들고 배말도 들고 그랬네. 고동이네. 고동
- ⇒ {툇} 무쳤다고 허는 게 이건 외연도에서 찍은 게다.
- ⇒ {우뭇가시리}는 생이로는 못 먹어. 고와서만 먹지.
- ⇒ 여기도 뭐 {울조개} 같은 거 잡을걸?

이상 어획물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어획물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어획물 | 물고기   | 멸치, 머르치, 양맬, 맬, 양미리, 건쟁이, 짠고기, 잔눔, 잔고기, 굵은눔, 큰눔, 농어, 봄고기, 새우, 아구, 쫍치, 서해쫍치, 동해쫍치, 간재미, 대가리, 대갈빼리 |
|     | 패류    | 홍합, 새조개, 울조개, 고동, 배말                                                                             |
|     | 해조류   | 툇, 우뭇가시리                                                                                         |

### 1.1.3. 시기 · 상태 · 행위

#### 1) 시기

외연도 지역의 까나리잡이는 음력 3월부터 이루어진다. 5월에서 6월이 되는 시기가 되면 까나리는 굶어진다. 까나리잡이를 시작한 3~4월을 비교적 빠른 ‘초등’이라고 하고, 까나리가 굶어지는 때를 ‘늦음’이라고 하였다. 어장이 끝난 것을 ‘파장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 ⇒ 3월부터, 4월부터 잡거든? 양력 4월부터. 그러면 4월부터 잡으면 4월달에 잡는 것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 ⇒ 5월달에 잡는 거는 인저 늦음에 드는 거는 인자 까나리가 굶어져가지고, 젓을 담아 소금 넣고.
- ⇒ 인자 {초등}에는 삶고, {늦음}에는 굶으면 젓 담고 그랬지
- ⇒ 또 인제 늦게 5월달 되면 {파장된} 거 날이 뜨겁고,

#### 2) 상태

상태는 어획물의 외형과 신선도 그리고 가공할 때의 어휘가 나타났다. 물고기의 살이 많다는 것을 ‘살이 들다’, 둘레가 굵은 물고기를 ‘둔탱이’, 물고기가 싱싱하지 않아 배가 터지는 것을 보고 ‘배가 나다’라고 사용한다. 자잘하다와 관련된 어휘가 ‘베다’, ‘잘다’와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자잘한 것과 비슷한 어감으로 ‘촘촘하다’ 정도의 의미로 ‘쪽쪽하다’가 있다.

- ⇒ 봄에는 그 새우새끼가 {살이 들어}갓고, 살이 썩갓고, 까나리 잡을 때 가면 또 그건 껌데기만 있어.
- ⇒ 소금을 안 넣으면 가리얏아 가지구 이렇게 자주 건지는 걸로 건지면 {배가 나와서} 상품가치가 안 나와.
- ⇒ 자잘한거 보고 {벤} 거라 그래.
- ⇒ 양력 4월부터. 그러면 4월부터 잡으면 4월달에 잡는 것은 아주 {잘아요}. 이렇게.
- ⇒ 굵은 데로 들어가도 여기 받아내는 것은 그 {쪽쪽한} 그물 낚설망 그것이 끄트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그리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잡는거야.

#### 3) 행위

행위에는 많은 어휘가 수집되었다. 고기를 잡는 행위를 ‘고기이름+잡이/잡이/바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물의 끝을 묶는 것을 ‘똥꾸녕을 묶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육지에서 어획물을 내놓을 때 포장하는 것을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미수꾸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 ⇒ 그러니까 전라도로 가기 땀이 우리 배들은 지금도 {맬잡이}를 허지만 죽은 배들은 타지방에 가서 못한단 말이야. 내 지방에서만 하지. 지금 법이 그렇게 생겼어.
- ⇒ {조기바리}라는 것은 이제 {조기잡이} 한다는 그 소리지.

- ⇒ {이까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허고.
- ⇒ 이제 {똥꾸녕이 묶어졌다. 안 묶어졌다.
- ⇒ 옛날에는 3키로를 담았거든? 그렇게 해서 여기 수협에서 와. 박스 딱딱 묶어 가지고 {미수꾸리} 해갖고.

이상으로 시기·상태·행위에 관련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기·상태·행위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시기·상태·행위 | 시기    | 초등, 늦음, 파장되다                                                                        |
|          | 상태    | 잘다, 살이 들다, 짜작짜작하다, 둔탱이, 배가 나다, 살 갈라지다, 베다, 쪽쪽하다, 뽕뽕이, 반질반질, 삭다, 바삭, 물렁하다, 간끼, 찌르는 끼 |
|          | 행위    | 개리다 빨아올리다, 받치다, 거르다, 미수꾸리, 똥꾸녕 묶다, 땀잡이, 까나리잡이, 조기잡이, 명태바리, 이까바리, 따다, 썰다             |

#### 1.1.4. 배

##### 1) 배

배는 예전 풍선에 관련된 어휘와 현대의 배 어휘로 나눌 수 있다. 풍선 관련 어휘는 ‘중선’, ‘똥마선’이 전자에 해당하고, ‘야끼다마’, ‘다부리’, ‘산끼도’, ‘얌마’와 같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후자이다. 물론 전자에도 일본어 영향을 받은 어휘가 있지만, 근래에 와서 일본 기계를 장착한 배들을 우수하게 보고 사용하면서 전반적인 어휘 사용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들이 진행되는 방향 역시 일본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전진의 ‘고해’, 후진의 ‘아시탕’이 그것이다.

- ⇒ 옛날 {중선}이라고 하면 자네들은 모르지만, 중선, 그물쳐가지고...
- ⇒ {똥마선}이라는 것은 이 큰 배에 지금 말하자면 나룻배였던 거여.
- ⇒ {야끼다마}라는 것은 예통, 기계가 예통이야 예통. 기름을 품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뿌라꾸(?) 그게 하나여.
- ⇒ {다부리}라는 것은 이 야끼다마가 두 대여
- ⇒ {산끼도}는 없었어.
- ⇒ {아시탕}은 뒤로 빠꾸하는 거. 고해는 앞으로 가는 거.

##### 2) 배의 구조 및 도구

배의 구조에 관련된 어휘도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현대의 배는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의 네비게이션과 같이

배에도 ‘레다’, ‘어탐’, ‘푸로타’를 이용하여, 바다 밑 지형 및 바닷길을 확인하여 사고가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를 타는 요즘 사람들은 기계가 없으면 ‘안개 속의 눈 뜬 봉사’라고 한다. 예전의 배 위에서는 오직 사람이 ‘치’로 배의 방향을 잡고, ‘노쫘’에 ‘노’를 끼워 배를 운전했다. 그 배는 제일 밑에 ‘뱃밧’을 대고, 그 위에 ‘구량’을 대고, 그 위로 해서 옆면을 ‘삼’으로 채우고, 그 위에 ‘냉끼’를 깔았다.. 그렇게 만든 배를 보호하기 위해 ‘새지’ 혹은 ‘가이상고’라고 하는 테를 둘러 파도와 정박할 때의 벽으로부터 보호하였다.

- ⇒ 지금 차타고 댕기면 내비게이션인가 뭔가 있잖여. 그거 식으로 배에도 {레다} {어탐} 다 있잖어.
- ⇒ 그거 레다 어탐 없어서는 {안개 속에 눈 뜬 봉사지}.
- ⇒ {노쫘}이라고 하는 게, 요가 하나 배기고, 또 요가 하나 배긴겨.
- ⇒ {뱃밧}, {구량}, {삼} 위에 까는 걸 보고 {냉끼}라고 하는거야.
- ⇒ 넓게 대갓고 나무로 돌린 것을 {새지}라 하는 거야.
- ⇒ 발동기로 말하면 {가이상고}보고 새지라고 하는거야.

이상으로 배와 배의 구조와 도구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배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배  | 배       | 중선배, 중선, 삼치잡이배, 장배, 상고선, 끝바늘배, 뜯마선, 발동선                                                                                            |
|    | 구조 및 도구 | 뱃간, 기아방, 기관방, 조타실, 투색간, 이물방짱, 얄마, 야끼다마, 다부리, 산끼도, 아시탕, 고해, 용두, 도르래, 레다, 어탐, 푸로타, 안개 속의 눈 뜬 봉사, 치, 운전대, 뱃밧, 구량, 삼, 냉끼, 새지, 가이상고, 노쫘 |

### 1.1.5. 어로도구

어로도구는 크게 배, 까나리액젓, 멸치말리기와 같이 세부분으로 나누어 밝힌다.

#### 1) 배

배에는 여러 어장에 자신의 그물 둔 곳을 표시하기 위해, ‘부유’, ‘우깨’, ‘스테레포’를 띄워둔다. 이러한 곳에는 여러 종류의 그물을 친다. 그물코를 절수라고도 하는 절수가 높을수록 그 그물코의 너비는 좁다. 그리고 이 그물코에 따라 ‘엥근’ 그물에서부터 ‘벤’그물까지 다양한 것이다. 그중 그 크기가 제일 좁은 ‘낫설망’은 실치와 같이 자잘한 것을 잡는다고 한다. 그러한 그물은 재질에 따라, ‘경심’, ‘수지’, ‘나일론 그물’등으로 분류된다.

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낚시줄을 감아두는 얼레를 ‘줄모태’, ‘줄자사’라고 하는데, 외연도에는 어장이 좋아 외지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덕에 줄자사라는 말을 알게 되었

지만 본디 외연도에서는 ‘줄모태’를 사용했다고 한다.

- ⇒ {스테로포}도 되고 {부유}도 되고
- ⇒ {우깨}, 다 이름 써있잖아..
- ⇒ 그것보고 {낫설망}이라 하는데, 그 똑같은 낫설망이라도 절수로 따지지. 인제 지금은 미리로 따지지만 옛날에는 절수로 이렇게 우리들이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삼절이다, 사절이다 이렇게 따졌거든? 그러면 그게 45절짜리가 실치잡는 그 벤 그물이어.
- ⇒ 넓이를 이야기 하니까 절수를 따져서 {영근}놈에서부터 자꾸 뵤놈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뵤뵤이 그물 제일 앞에 그 큰 것이 이절이거든? 이절이니까 이절에서부터 사십이절까지 내려가는 거여.
- ⇒ {경심}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겨.
- ⇒ 지금은 또 {나일론 그물} 쓰는 사람이 있어. 저기, 저 지금 tv에 나오는 건 민어 잡잖아, 민어. 민어그물배 이렇게 한건, 그것은 전부 나일론 그물이야.
- ⇒ 육지 이렇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줄자사} 달라 해썬고 그러데. 그 감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섬에는 {줄모태}라고 허는 거지.

## 2) 까나리액젓

까나리액젓을 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다. 예전에는 ‘항아리’에다가 액젓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도로무’에다가 담는다. 그 ‘독’ 안에다가 까나리와 소금을 비율을 맞추어 넣고, 그 위에 ‘푸대종이’를 덮어 이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근래에는 ‘비니루’나 ‘세멘종이’를 덮어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액젓이 나오면 ‘채’로 받쳐 액젓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호스’를 통 안에 넣어 빨아 올린다.

- ⇒ 그냥 가정에 옛날에 큰 {독}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다.
- ⇒ 그렇지 않으면 ‘도로무’ (드럼통), 그 새우젓 담는 도로무 있잖아. 도로무에다가 ‘세멘종이’라고 누런 종이 있잖아.
- ⇒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채}에다 이렇게 받쳤지. 이렇게 한쪽으로 차치고서는 물 풍덩풍덩 퍼서 채에다 걸렸지.
- ⇒ 공장에서 인제 큰 차 가지고 와서 빨아 올려. 배에서. {호스} 바뀌서 배에서 빨아 우리로 올리거든.

## 3) 멸치말리기

멸치 말리기는 배에서 멸치를 잡아 ‘바나’ 위에다 ‘솔’을 올려 바로 삶는다. 그렇게 삶은 멸치를 육지로 가져와 ‘자갈’과 같은 돌로 ‘돌막’을 만들어 ‘모기장’을 깔고, 그 위에 올린다. 그리고 햇볕에다 말리는 과정이다.

- ⇒ 이런 {솔}이 있어. 바나(버너) 불 때갓고서는 삶지.
- ⇒ 그 건조기 저기 {돌막} 깔아 놓 거기다 {모기장} 깔고, 널어서 말려서 봉지로 삼고, 이렇게 굵을 때는 안 삶고 젓 담고, 소금 넣고.
- ⇒ 건조장이라고 다 해가지고 {자갈} 깔아 갖고, 모기장 넣고.

이상으로 어로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어로 도구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어로 도구 | 배      | 부유, 우깨, 스테로포, 대나무, 망대, 스프링통발, 낫설망, 경심, 수지, 나일론 그물, 영그다, 베다, 줄자사, 줄모태, 낚시, 삼치는 히뜩하는 것만 봐도 문다 |
|       | 까나리액젓  | 항아리, 독, 장독, 옹기그릇, 도로무, 세멘종이, 푸대종이, 비니루, 채, 호스, 고무다라                                         |
|       | 멸치 말리기 | 술, 바나, 돌막, 자갈, 모기장                                                                          |

### 1.1.6. 단위

단위는 어획물을 세는 ‘콧’, ‘가구’, ‘콘테이너’와 어장을 세는 ‘틀’ 정도가 있다.

- ⇒ 스무 가구 서른 {가구} 이렇게 갖고 오면 지금 이런 노란 가구 봤지유? 그것더러 ‘콘테이너’라고 하는데
- ⇒ 한 {틀}, 요거 하나보고 한 틀이라 그래. 어장 하나보고.

이상으로 단위에 관련되는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단위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단위 | 어획물   | 콧, 가구, 콘테이너 |
|    | 어장    | 틀           |
|    | 가공    | 푸대,         |

### 1.1.7. 음식

음식에 관련한 어휘는 젓갈류와 그 외의 반찬류,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 및 방법, 맛으로 구분한다. ‘젓국’은 [젓꼭]으로 발음하고 액젓을 말한다.

- ⇒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젓국}을 집에서 먹는 것만 대중 담아놓지
- ⇒ 젓갈로 먹는 거는 {밴덩이}, {반지}, {조기새끼}, {꼴뚝}.
- ⇒ 우뚝가사리는 생이로는 못 먹어. {고와}서만 먹지
- ⇒ 봄에 여름에는 깍두기를 담고, {배추짠지}를 담아도 {쌈쓰름해},



〈표 7〉 음식 관련 어휘

| 항목 | 어휘 항목   |                                                       |
|----|---------|-------------------------------------------------------|
| 음식 | 종류      | 젓국, 칼치젓, 반지젓, 황세기젓, 꼴뚜기젓, 아가미젓, 뱀뎡이젓, 오이지, 장아찌, 배추짬지, |
|    | 재료 및 방법 | 소금, 천일염, 간장, 볶다, 찌다, 말리다, 굽다, 튀기다, 지지다, 무치다, 고다, 썰다   |
|    | 맛       | 구수하다, 짹짹하다, 씹쓰름하다.                                    |

### 1.1.8. 기타

기타에는 분류하기에 그 기준이 애매한 관용 표현을 배치하였다.

- ⇒ 인자 초등에는 삶고, 늦음에는 굽으면 젓 담고 그랬지
- ⇒ 까나리가 {고기가 많이 들면 깨끗혀}. 마이 안 들고 조금 들을 때는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막 섞어져서 이렇게 골르지만 많이씩 들면.
- ⇒ 그러게 그거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하느님이 돈벌어라 허야 하지.} 바람 불어갖고는 예지간해서는 못 허.
- ⇒ 우리가 볼 적에는 이 {굽은 놈이 먼저 오고 그 작은 놈이 늦게 오는 모양이여.} 그러니까 양멸이, 그냥 양멸은 많이는 못 잡거든? 약간 인자 몇 가구씩 잡으면 그 고기 다 지나가고 나야 까나리가 들어와. 뒤따라 들어와. 잉 뒤따라 들어와.

이상의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관련 어휘

| 범주                 | 조사 어휘 및 표현 |       |                                                                                                  |
|--------------------|------------|-------|--------------------------------------------------------------------------------------------------|
| 까나리잡이<br>와<br>멸치잡이 | 환경         | 바람·비  | 두지바람, 두지 한다, 바람 티지다, 소내기                                                                         |
|                    |            | 관용 표현 | 가을날에 작업하려면 서쪽 쳐다본다,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 한다.                                     |
|                    | 어획물        | 물고기   | 멸치, 머르치, 양멜, 멜, 양미리, 건쟁이, 짬고기, 잔놈, 잔고기, 굽은놈, 큰놈, 농어, 봄고기, 새우, 아구, 콩치, 서해콩치, 동해콩치, 간재미, 대가리, 대갈빼리 |
|                    |            | 패류    | 홍합, 새조개, 울조개, 고동, 배말                                                                             |
|                    |            | 해조류   | 툇, 우뭇가시리                                                                                         |

| 범주                       |                                                                           | 조사 어휘 및 표현                                                                                                                         |  |
|--------------------------|---------------------------------------------------------------------------|------------------------------------------------------------------------------------------------------------------------------------|--|
| 시기<br>·<br>상태<br>·<br>행위 | 시기                                                                        | 초동, 늦음, 파장되다                                                                                                                       |  |
|                          | 상태                                                                        | 잘다, 살이 들다, 짜작짜작하다, 둔탱이, 배가 나다, 살 갈라지다, 베다, 쪽쪽하다, 뽕뽕이, 반질반질, 삭다, 바삭, 물렁하다, 간끼, 찌르는 끼                                                |  |
|                          | 행위                                                                        | 개리다, 빨아올리다, 받치다, 거르다, 미수꾸리, 퐁꾸녕 묶다, 맬잡이, 까나리잡이, 조기잡이, 명태바리, 이까바리, 따다, 썰다                                                           |  |
| 배                        | 배                                                                         | 중선배, 중선, 삼치잡이배, 장배, 상고선, 끝바늘배, 폰마선, 발동선                                                                                            |  |
|                          | 구조 및 도구                                                                   | 벧간, 기아방, 기관방, 조타실, 투색간, 이물방짱, 암마, 야끼다마, 다부리, 산끼도, 아시탕, 고해, 용두, 도르래, 레다, 어탐, 푸로타, 안개 속의 눈 뜬 봉사, 치, 운전대, 벧밧, 구량, 삼, 냉끼, 새지, 가이상고, 노쫓 |  |
| 어로<br>도구                 | 배                                                                         | 부유, 우깨, 스테로포, 대나무, 망대, 스프링통발, 낫설망, 경심, 수지, 나일론 그물, 엉그다, 베다, 줄자사, 줄모테, 낚시, 삼치는 히뜩하는 것만 봐도 문다                                        |  |
|                          | 까나리액젓                                                                     | 향아리, 독, 장독, 웅기그릇, 도로무, 세멘종이, 푸대종이, 비니루, 채, 호스, 고무다라                                                                                |  |
|                          | 멸치 말리기                                                                    | 술, 바나, 돌막, 자갈, 모기장                                                                                                                 |  |
| 단위                       | 어획물                                                                       | 콧, 가구, 콘테이너                                                                                                                        |  |
|                          | 어장                                                                        | 틀                                                                                                                                  |  |
|                          | 가공                                                                        | 푸대                                                                                                                                 |  |
| 음식                       | 종류                                                                        | 젓국, 칼치젓, 반지젓, 황세기젓, 꼴뚜기젓, 아가미젓, 뽕 탕이젓, 오이지, 장아찌, 배추짬지,                                                                             |  |
|                          | 재료 및 방법                                                                   | 소금, 천일염, 간장, 볶다, 찌다, 말리다, 굽다, 튀기다, 지지다, 무치다, 고다, 썰다                                                                                |  |
|                          | 맛                                                                         | 구수하다, 짹짹하다, 씹씹하다.                                                                                                                  |  |
| 기타                       | 초동에는 삶고, 고기가 많이 들면 깨끗하다.<br>하나님이 돈 벌어라 해야 한다.<br>굵은 놈이 먼저 오고 작은 놈이 늦게 온다. |                                                                                                                                    |  |

## 1.2. 풍어제

### 1.2.1. 제의

외연도의 풍어제는 산에서 ‘산제’와 ‘당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용왕제’를 지내고, 마을 평나무 앞에서 ‘안당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년에 고사를 3번 지낼 적에는 음력 8월에 햅쌀로 ‘노구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는 노래나 축은 읽지 않고, 풍장만 친다고 한다.

- ⇒ 어르신들하고 모여 갖고 언제 날이 좋다 해가지고 인제 산제를 모시자 일년에 한 번씩 {산제}를 모시는 거니까.
- ⇒ 그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지내고 띠배 띄우고 그리고선 이제 안당이라고 안당 들어가서 안당고사라고 {안당고사} 지내고
- ⇒ 노구제라 해가지고 밥 해놓는 걸 {노구제}라 하는거여.
- ⇒ 노래 같은 거 없어. {풍장}만 치지.

### 1.2.2. 도구

제를 지낼 때의 도구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특징적인 것만 수집하였다. ‘띠배’는 용왕제를 지내고 난 뒤 고수례를 하기 위해 제를 지낸 음식을 배에 실어 바다로 내보낸다. ‘질지’는 길지의 음운변이에 따른 방언형으로 보인다. 당제를 지낼 때 전횡장군의 아내와 딸들에게 바치기 위해 ‘백옷’을 걸어둔다.

- ⇒ 그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지내고 {띠배} 띄우고 그리고선 이제 안당이라고 안당 들어가서 안당 고사라고 안당 고사 지내고
- ⇒ {질지}라 해가지고 사당 안에 제사 지낼 때만도 줄을 이렇게 띄어놨어요.
- ⇒ 가운데는 {백옷}, 여자옷. 하얀 옷.

### 1.2.3. 행위자

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대개 열 명 내외로 부정 없는 사람, 즉 집에 초상이 없고, 임신한 사람이 없으며, 여자가 달거리를 하는 집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 가운데, ‘제주’와 ‘안어장’이 고사를 관리하고 ‘화장’들은 음식을 만든다.

- ⇒ 첫 번에 {제주}를 선정해가지고 제주를 선정한 다음에 또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화장}인데 화장이라 해서 화장을 뽑고.
- ⇒ {안어장}이지.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총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지.

#### 1.2.4. 행위

고사를 지내면서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 ⇒ 그때 {지태}라고 소를 잡는 거예요.
- ⇒ 이것이 이제 칠당이라 해서 용왕제. 회관 앞에서 용왕제라 해서. {칠당 쳤다}
- ⇒ 고기 떡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제 다해서 고시레 하는 거야. 그걸 {퇴송}이라 그러지.
- ⇒ 이걸 {풍장 치는} 사람들.

#### 1.2.5. 음식

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숙한 진행이기도 하지만 음식 역시 그 중요성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음식에 관한 어휘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노구제를 지낼 때는 ‘헹쌀’로 ‘고두메’를 지어 올린다. 떡은 ‘흰떡’과 ‘시루떡’만을 올린다. 그리고 과일류에서는 ‘곶감’, ‘대추’, ‘밤’만이 올라간다. 이에 ‘더덕구이’,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숙지나물’을 올린다.

고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소’인데, 이를 산에서 지태하여, ‘반골’, ‘유통’, ‘족발’을 올린다. ‘반골’은 등에서 이어지는 꼬리 부분의 뼈이고, ‘유통’은 소의 고환을 이야기한다. ‘족발’은 흔히 돼지의 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에게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지태를 하고 난 뒤 소의 내장을 ‘횃감’이라고 말한다.

- ⇒ 그 다음에 인제 떡 해놓고 {고두메}라고 쌀을 이렇게 수쳐갓고 시루에다 찌서 가지고서...
- ⇒ 산에서부터 {산소}를 {황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암소는 안돼요.
- ⇒ 꼬리 있는데 {반골}, {꼬리}, {유통}, 이런 거 다 올라와요 여기. 머리도 사분의 일. 등 이제 반골이라고 해서, 뒤꼬리에 달린 유통, {족발}
- ⇒ 산에서는 산에 용어가 횃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을 {횃감}이라는 것이지

#### 1.2.6. 금기

다음은 외연도에서 고사를 지낼 때 금기시 되는 내용이다.

- ⇒ 달거리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허면 남편이 거길 올라갈 수가 없어.
- ⇒ 소를 한 마리를 다잡아서 {땅에 단 데는 산에 안 쓰고}, 밑에는 안 쓰고 땅에 안 단 쪽만 위에 산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사를.
- ⇒ 초상 같은 게 나면은 안되고 이 동네서 애기 같은 거 낳고 허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안 지내니까, ...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부정 없는 사람}.
- ⇒ 그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부정있으면 안된다 이말이지. 그리고 그 때도 부인들이 집에서 달거리 하는 사람들도 안되고.

이상으로 풍어제에 관련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민속 관련 어휘

| 범주 | 조사 어휘 |                                                                                               |
|----|-------|-----------------------------------------------------------------------------------------------|
| 민속 | 제의    | 당제, 산제, 안당고사, 용왕제, 노구제, 풍장                                                                    |
|    | 도구    | 띠배, 질지, 백옷                                                                                    |
|    | 행위자   | 제주, 안어장, 화장                                                                                   |
|    | 행위    | 지태, 칠당치다, 퇴송, 풍장 치다                                                                           |
|    | 음식    | 헹쌀, 고두메, 흰떡, 시루떡, 꽃감, 대추, 밤, 팔, 황소, 산소, 반골, 유통, 족발, 앞족, 뒷족, 횃감, 더덕구이, 고사리나물, 숙지나물, 시금치나물, 도랫술 |
|    | 금기    | 부인이 달거리하면 남편은 제사 못 지낸다.<br>소가 땅에 단 데는 안 쓴다.<br>부정 없는 사람<br>정한 사람                              |



[사진 1] 당제



[사진 2] 산제



[사진 3] 산제



[사진 4] 안당고사



[사진 5] 횃감(소 내장)



[사진 6] 고시레



[사진 7] 퇴송



[사진 8] 띠배

## 제 3 부

#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 무 리





## 제 5 장 마무리

이상으로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의 어로 생활에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어로 생활이라는 큰 틀 안에서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풍어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 가운데 특징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

1) 환경에서는 바람에 관한 어휘를 많이 쓰고 있었다. 가을에 부는 돌풍을 ‘두지바람’, ‘두지’, ‘두지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바람이 바다에서 거세게 부는 것을 ‘바람 터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가을에는 날씨 탓에 조업하기 위해 서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가을날에 작업하려면 서쪽을 본다’라고 하였다. 또한 ‘셋바람’이 부는 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다’라면서 동풍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다.

2) 까나리에 대해 표준어 그대로 나타났다. 대신 멸치에 대한 어형이 ‘멸치’, ‘머르치’, ‘메르치’, ‘맬’로, 멸치보다 큰 고기에 대해서 ‘양미리’라고 일컬으며 ‘양맬’이라고 사용하고 있었다. 고기의 크기에 따라, ‘잔놈’, ‘굵은놈’이라고 사용하기도 했다. 옛날에 어획물을 잡아서 육지로 가져갈 때까지 신선하게 저장할 수 없어 소금에 절여 ‘짠고기’로 내놓았다고 한다.

3) 외연도 지역의 까나리잡이는 음력 3월부터 이루어진다. 5월에서 6월이 되는 시기가 되면 까나리는 굶어진다. 까나리잡이를 시작한 3~4월을 비교적 빠른 ‘초둥’이라고 하고, 까나리가 굶어지는 때를 ‘늦음’이라고 하였다. 어장이 끝난 것을 ‘파장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4) 상태는 어획물의 외형과 신선도 그리고 가공할 때의 어휘가 나타났다. 물고기의 살이 많다는 것을 ‘살이 들다’, 돌레가 굵은 물고기를 ‘둔탱이’, 물고기가 싱싱하지 않아 배가 터지는 것을 보고 ‘배가 나다’라고 사용한다. 자잘하다와 관련된 어휘가 ‘베다’, ‘잘다’와 같

이 사용되고 있었다.

5) 행위에는 많은 어휘가 수집되었다. 고기를 잡는 행위를 ‘고기이름+잡이/잡이/바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물의 끝을 묶는 것을 ‘똥꾸녕을 묶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육지에서 어획물을 내놓을 때 포장하는 것을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미수꾸리’로 사용하고 있었다.

6) 배는 예전 풍선에 관련된 어휘와 현대의 배 어휘로 나눌 수 있다. 풍선 관련 어휘는 ‘중선’, ‘똥마선’이 전자에 해당하고, ‘야끼다마’, ‘다부리’, ‘산끼도’, ‘얌마’와 같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후자이다. 물론 전자에도 일본어 영향을 받은 어휘가 있지만, 근래에 와서 일본 기계를 장착한 배들을 우수하게 보고 사용하면서 전반적인 어휘 사용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들이 진행되는 방향 역시 일본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전진의 ‘고해’, 후진의 ‘아시탕’이 그것이다.

7) 배의 구조에 관련된 어휘도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현대의 배는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의 네비게이션과 같이 배에도 ‘레다’, ‘어탐’, ‘푸로타’를 이용하여, 바다 밑 지형 및 바닷길을 확인하여 사고가 없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를 타는 요즘 사람들은 기계가 없으면 ‘안개 속의 눈 뜬 봉사’라고 한다. 예전의 배 위에서는 오직 사람이 ‘치’로 배의 방향을 잡고, ‘노쫘’에 ‘노’를 끼워 배를 운전했다. 그 배는 제일 밑에 ‘뱃밑’을 대고, 그 위에 ‘구랑’을 대고, 그 위로 해서 옆면을 ‘삼’으로 채웠다. 그렇게 만든 배를 보호하기 위해 ‘새지’ 혹은 ‘가이상고’라고 하는 테를 둘러 파도와 정박할 때의 벽으로부터 보호하였다.

8) 까나리액젓을 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다. 예전에는 ‘항아리’에다가 액젓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도로무’에다가 담는다. 그 ‘독’ 안에다가 까나리와 소금을 비율을 맞추어 넣고, 그 위에 ‘푸대종이’를 덮어 이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근래에는 ‘비니루’나 ‘세멘 종이’를 덮어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액젓이 나오면 ‘채’로 받쳐 액젓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호스’를 통 안에 넣어 빨아 올린다.

9) 멸치 말리기는 배에서 멸치를 잡아 ‘바나’ 위에다 ‘솔’을 올려 바로 삶는다. 그렇게 삶은 멸치를 육지로 가져와 ‘자갈’과 같은 돌로 ‘돌막’을 만들어 ‘모기장’을 깔고, 그 위에 올린다. 그리고 햇볕에다 말리는 과정이다.

10) ‘젓국’은 [젓꾸]으로 발음하고 액젓을 말한다.

## 2. 풍어제

1) 외연도의 풍어제는 산에서 ‘산제’와 ‘당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용왕제’를 지내고, 마을 편백나무 앞에서 ‘안당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년에 고사를 3번 지낼 적에는 음력 8월에 햅쌀로 ‘노구제’를 지냈다고 한다. 고사를 지낼 때는 노래나 축은 읽지 않고, 풍장만 친다고 한다.

2) 제를 지낼 때의 도구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특징적인 것만 수집하였다. ‘띠배’는 용왕제를 지내고 난 뒤 고수례를 하기 위해 제를 지낸 음식을 배에 실어 바다로 내보낸다. ‘질지’는 길지의 음운변이에 따른 방언형으로 보인다. 당제를 지낼 때 전횡장군의 아내와 딸들에게 바치기 위해 ‘백옷’을 걸어둔다.

3) 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대개 열 명 내외로 부정 없는 사람, 즉 집에 초상이 없고, 임신한 사람이 없으며, 여자가 달거리를 하는 집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 가운데, ‘제주’와 ‘안어장’이 고사를 관리하고 ‘화장’들은 음식을 만든다.

4) 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숙한 진행이기도 하지만 음식 역시 그 중요성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음식에 관한 어휘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노구제를 지낼 때는 ‘햅쌀’로 ‘고두메’를 지어 올린다. 떡은 ‘흰떡’과 ‘시루떡’만을 올린다. 그리고 과일류에서는 ‘곶감’, ‘대추’, ‘밤’만이 올라간다. 이에 ‘더덕구이’,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숙지나물’을 올린다.

고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소’인데, 이를 산에서 지태하여, ‘반골’, ‘유통’, ‘족발’을 올린다. ‘반골’은 등에서 이어지는 꼬리 부분의 뼈이고, ‘유통’은 소의 고환을 이야기한다. ‘족발’은 흔히 돼지의 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에게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지태를 하고 난 뒤 소의 내장을 ‘횃감’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서해안 어촌생활 기초 어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문헌 조사를 통한 방언형을 민속지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어형을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의 조사 장비 외에도 최신 전자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조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3) 충남 보령의 외연도는 크지 않은 섬 지역이지만, 제보자들마다 보이는 미세한 어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생소한 어촌 생활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

5)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무의식으로 발화하는 어휘들의 표준어형을 체득할 수 있었고,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서해안 외연도의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를 조사하면서 얻은 한계점이다.

1) 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의 조사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색 있는 조사가 되질 못하였다.

2) 올해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렵게 잡은 조사 방향에 차질이 있었다. 까나리가 어획이 되지 않으면서 현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기존 영상 자료로 대체해야 했다.

3) 섬 지역 조사의 경우, 섬을 드나들기 위한 교통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일정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4) 외연도의 주민들이 육지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섬 내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 국립민속박물관(1996), 『어촌민속지: 경기도, 충청남도 편』
- 김순자(2010), 『비양도의 고기잡이』, 국립국어원
- 김의숙(2009), 『한국민속제의 전승과 현장』, 새미
- 김지숙(2011),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국립국어원.
- 왕한석(2009), 『한국의 언어민속지』, 교문사
- 이남덕(1985), 『한국어 어원 연구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원식(1990), 『한국의 배』, 대원사
- 정기태(2004), 『고기잡이 여행』, 바보새
- 주강현(2006), 『관해기2』, 웅진지식하우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4:충청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기옥(2011), 『돌살, 김양식』, 국립국어원
- 황인권(1998), 『한국 방언 연구:충남편』, 국학자료원
- Alwin Fill(1999), 『생태언어학』, 한국문화사
- David Crystal(2005),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 Muriel Saville(2009),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



부 록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기본류            | 종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상분류                        | 원표제어                       | 표준국어        | 음역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 셋바람 불면 고<br>기가 머리 아파<br>한다 | 원표제어<br>표준어 | 셋바람이 부는 때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데<br>관 {서 바닷사람들이 하는 말 | 셋바람이 부는 때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데<br>관 {서 바닷사람들이 하는 말                                                            |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머리 아파서} 미끼도<br>안 먹구, 안 무는 게라고 그러지.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별칭<br>정분 | 별칭<br>사진 | 0    | 표준국어<br>사진<br>특별어부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두지바람                       | 두지바람                       |             | 명 가을에 부는 돌풍                                   | 그런디 아 바다에서는 갑작스리 바람나고, 바<br>다가 오잖어... 이것은 {두지바람}이라고 그러.<br>두지바람.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두지 한다                      | 두지 한다                      |             | 구 두지가 부는 상태.                                  | 두지바람 여기서 부르는 용어만 내가 얘기하<br>는 거여 {두지한다}고 가을에 구서월에 풀만<br>은 두지한다고 하는거여 두지바람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바람 타지다                     | 바람 타지다                     |             | 구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태                               | 그렇지. 갑자기 막 바람이 하얏게 몰결정서<br>바람 타지디니까.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가을날에 작던<br>하리면 서쪽 쳐<br>다본다 | 가을날에 작던<br>하리면 서쪽 쳐<br>다본다 |             | 관 가을에 조업하기 위해 날씨를 살피는 일.                      | 가을날에 작업을 할라든 서쪽 쳐다 보는 거여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볼고기는 말려서<br>먹으면 맛이 없<br>다  | 볼고기는 말려서<br>먹으면 맛이 없<br>다  |             | 관                                             | 볼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br>어!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환경  |     |      | 소내기비                       | 소내기비                       |             | 명 = 소내기                                       | 그거 인저 {소내기비} 온다고 하지.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까나리                        | 까나리                        |             | 명                                             | 까나리과의 바닷물고기. 몸은 원통형으로 길<br>데, 등은 녹색을 띠 갈색이고 배는 은빛 흰색<br>이다. 4~6월에 산란한다. 모래 속에 숨어 사<br>는데 알곡, 알본 등지에 분포한다 | 앙미리! 그것도 많이 나, 그거 새끼여 말하<br>지! 앙미리 새끼여 {까나리}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멸치                         | 멸치                         |             | 명                                             |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인저 고기가 {멸치} 같은게 많이 있나 없나<br>그거 보는 거여.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머리지                        | 머리지                        |             | 명                                             |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그런디 왜나하면 {머리지}보다 그게 새단 말<br>어. 가락이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메리지                        | 메리지                        |             | 명                                             |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셋을 적에 솜에다가 소금을 넣어여 그 {메르<br>지}를 넣으면 그 물에서 동동 뜨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양멜                         | 양멜                         |             | 명 = 양미리.                                      | 런 거 부르는 거 또 있지. 런 거는 {양멜} 이<br>만 혀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멜                          | 멜                          |             | 명                                             |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 그런디 왜나하면 {멜}이 많이 유리 배를 유<br>리도 {멜}편이를 하지만 죽은 배들은 더지방<br>에 가서 썩단 말미여... 내 지방에서만 하지.<br>지금 넘어 그렇게 생겼어.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앙미리                        | 앙미리                        |             | 명                                             | 앙미리과의 바닷물고기. 까나리와 비슷한데 몸<br>이 작으면, 앙미리 새끼여 까나리가.                                                         | {앙미리!} 그것도 많이 나, 그거 새끼여 말하<br>지! 앙미리 새끼여 까나리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단어             | 종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상세분류 | 원표제어 | 올린말  | 받은정보 | 조사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    |
|-------|----------------|-----|-----|------|------|------|------|------|-------------------------------|-----|--------------------------------------------------------------------------------------|------|------------|-------|----|----|------|----|
|       |                |     |     | 1    | 2    | 표준어  |      |      |                               |     |                                                                                      |      |            |       | 조사 | 조사 | 사전   | 사전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문쟁이  | 문쟁이  | 명    |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    |
|       |                |     |     |      |      |      |      |      |                               |     | 까나리 낚을 때, 낚으면 배 특특 터지면 다 깨 나리 다 먹었어. 그거 {간쟁이} 다 먹었어.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흰고기  | 명    | 해다 물고기                        |     | 그때 낚강고도 없지만 뭐가 있어, 그래서 소금, 소금에다 젖어갖고 {흰고기}로 불아먹었지.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진농   | 명    | 자잘한 크기의 물고기                   |     | 그러니까 {진농}은 거시거고, 굵은 농이 ???? 몰라도, 그러니까는 한 5월 6월에는 이만씩 해, 그러니까 이긴 생지를 못하고 전부 것을 먹는 거지.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잔고기  | 명    | 자잘한 크기의 물고기                   |     | 그러니까 거가서 싹지도 잡고 까나리도 잡고, {잔고기}를 다 잡는거야.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굵은농  | 명    | 굵기가 굵은 물고기                    |     | 그러니까 진농은 거시거고, {굵은농}이 ???? 몰라도, 그러니까는 한 5월 6월에는 이만씩 해, 그러니까 이긴 생지를 못하고 전부 것을 먹는 거지.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큰농   | 명    | 크기가 큰 물고기                     |     | {큰농}으로 말아야 국물도 많이 나오고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농어   | 명    | 농어과의 바닷물고기.                   |     | 이거 고기, 저기 뭐 {농어}같다? 대가리 보니까.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붉고기  | 명    | 붉은 색의 물고기                     |     | {붉고기}는 그걸 알아야 허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새우   | 명    | 생지동물문 십각목 정미아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안강양이라 해서 {새우}잡고 꽃게 잡고 아무 같은 거 잡고 거기 다른 고기들이 들어오는 데.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아구   | 명    | = 아귀                          |     | 안강양이라 해서 새우잡고 꽃게 잡고 {아구} 같은 거 잡고 거기 다른 고기들이 들어오는 데.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공치   | 명    | = 공치. 서해안에서 주로 음력 5, 6월에 잡힌다. |     | {공치}, 공치 낚지, 저, 공치 잉?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서해공치 | 명    | = 공치.                         |     | 동해공치 말고 {서해공치}라고 공치처럼 생겼는디.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동해공치 | 명    | = 공치.                         |     | {동해공치} 말고 서해공치라고 공치처럼 생겼는디.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가오리  | 간재미  | 명    | 가오리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몰에 데지면 그렇게 새파란해지고 그놈지, 이거는 {간재미}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 0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기본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정보 사진 | 별칭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등록여부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총합    | 명     | 명     | 총합과에 속하는 패류                              | {총합} 많은 게 거울에 따서 든 많이씩 벌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새조개   | 명     | 명     | 바위에 군생하는 작은 조개. 바위 끝을 깨서, 살아 살만 깨대서 먹는다. | {새조개}는 아닌 것 같음데, 새조개는 아니고, 이게 피멍에 이거는 자기 멍근이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고동    | 명     | 명     | 고동의 방인                                   | 은, 배알, 배알 고동 만네, {고동}이네, 고동도 들고 배알도 들고 그랬네, 고동이네, 고동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배알    | 명     | 명     | =부말 혹은 새것조개                              | 은, {배알}, 배알 고동 만네, 고동이네, 고동도 들고 배알도 들고 그랬네, 고동이네, 고동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뿏     | 명     | 명     |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                            | {뿏} 무쳤다고 하는 게 어간 외면도에서 짜, 는 게다.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우물가시리 | 명     | 명     | 홍조류 우물가시리과의 해조                           | {우물가시리}는 생이로는 못 먹어, 고외서만 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대가리   | 명     | 명     | 물고기의 아가미를 포함한 뒷부분.                       | 이거 고기, 저기 뭐 놓여갈까? {다가리} 보니까.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대갈배기  | 명     | 명     | = 머린.                                    | 앞뒤에는 대갈배기만 크고, 쪽 빼져라고, 배, 끝이 하나 있어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획물 |     |        |        |          | 올조개   | 명     | 명     | = 말조개.                                   | 여기도 뭐 {올조개} 같은 거 같음걸?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시기  |     |        |        |          | 초동    | 명     | 명     | 이른 때                                     | {초동}에는 살고, 늦음에는 굶으면 짓 멍고, 그랬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시기  |     |        |        |          | 늦음    | 명     | 명     | 늦은 때                                     | 초음에는 살고, {늦음}에는 굶으면 짓 멍고, 그랬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시기  |     |        |        |          | 파장되다  | 동     | 동     | 어장이 끝나다.                                 | 또 인제 늦게 5월말 되면 {파장되} 거 날이 뜨겁고,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겉다    | 명     | 명     | 겉이기가 있는 물건의 윗면이 가늘고 작다.                  | 양력 4월부터, 그러면 4월부터 겉으면 4월 말에 겹는 것은 아주 {잘아요}, 이렇게.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살이 들다 | 구     | 구     | 물고기의 살이 많아지다.                            | 몸에는 그 새우새끼가 {살이 들어} 갖고, 살이 빼 갖고, 까나리 잡을 때 기면 또 그런 건데기가, 만 있어.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 0        | 0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정보 사진 | 별칭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등록여부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짜짜짜작한다  | 형     | 자작하다보다 더한 표현                | 뜻풀이 | 그 새우하고 요렇게 {짜작짜작하게} 해가지고서 열려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돈뎡이     | 명     | 굵기가 굵은 물고기                  | 뜻풀이 | @ 툰뎡이? 툰뎡이가 뭐예요?<br>#2 툰다 소리아,<br>@ 아,<br>#1 툰래.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배가 나다   | 구     | 물고기가 상하지 않아 배가 터지다          | 뜻풀이 | 소금을 안 넣으면 가리양이 가지구 이렇게 자주 낚지는 걸로 간지면 {배가 나오지} 상품 가지가 안 나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살 갈라지다. | 구     | = 배가 나다                     | 뜻풀이 | 이렇게 놓음에 상한 건 이렇게 막 끊어져가지고, 상으면 막 툰툰 {살이 이렇게 갈라져}.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배다      | 형     | = 짜잘하다.                     | 뜻풀이 | 짜잘한거 보고 {벤} 거라 그래.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쪽쪽하다    | 형     | = 짜잘하다.                     | 뜻풀이 | 중은 데로 들어가도 여기 받아내는 것은 그 {쪽쪽한} 그물 낚살만 그것이 꼬트머리에 가있기 때문에 고기가 그리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잡는거야.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뽕뽕이     | 명     | 바다에서 회오리 치는 어장.             | 뜻풀이 | 아, 이게 뽕뽕에도 걸리고 우리 여기 저 {뽕뽕이}에도 더러 들고 하는다. 이란 거.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반질반질    | 부     | 거죽이 윤기가 흐르고 매우 매끄러운 모양      | 뜻풀이 | {반질반질반질} 해서 그냥 색깔이 좋아져.                                                                                      |      | 박치연(충남외연도)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씩다      | 동     | 감지나 낚살 따위의 음식물이 발효되어 맛이 든다. | 뜻풀이 | 5개월 되면 그렇게 툰 {씩아서} 그냥 죽국이 되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바삭      | 부     | 물기가 다 말라 버리거나 타들어 가는 모양.    | 뜻풀이 | 아, 그게 이제 쉼벌이서 {바삭} 말린 것은, 너무 말린 안돼.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물렁하다    | 형     | 이들이물하게 부드럽고 무르다.            | 뜻풀이 | 배를 만지면 배가 물렁물렁하면 못 써, 배가 안 {물렁}거려야 돼.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상태  |     |        |        |          | 간개      | 명     | = 소금기                       | 뜻풀이 | 손에 쫄든다고 해서 빼색말랐다고 해도 다 이렇게 갈아서 모기장을 덮아놓으면 이게 {간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 이신 분, 이상신 분 있으면 만지기 좋게 그렇게 생겨, 그게, 쫄든는 거가 없어져.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의미           | 종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음역     | 발음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정보 사진 | 별칭 음성 정보 사진 | 표준국어 사자 등록여부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상태 |     |        |        |          | 짜르는 까  | 구     | 동     | 말치가 딸르는 과정에서 손에 쥐어 확실할 때 의 느낌.              | 손에 쥘한다고 해서 빼빼말라고 해도 다 이렇게 건에서 무가장을 잡아놓으면 이게 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한 이십 분, 이십삼 분 있으면 먼지가 좋게 고향게 생겨. 그게, {쥘드는 까}가 없어져.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가리다    |        | 가리다      | 개리다    | 동     | 동     | 여섯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 그렇지, 그런 거 인제 {개리느라고}, 맨날 앉아서 이렇게 기여랭기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빨아올리다  | 동     | 동     | 밑에 있는 액체를 빨아서 올리거나 하다.                      | 문장에서 인제 큰 차 가지고 와서 {빨아 올림}, 배에서.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받치다    | 동     | 동     | 어떤 물건에 밑에 다른 물체를 올리거나 대다.                   |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재메다 이렇게 {받치}, 이렇게 한쪽으로 차지고서는 물 풍영풍영 퍼서 재메다 걸렸지.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0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거르다    |        | 거르다      | 걸르다    | 동     | 동     | 제끼거나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지나 거름종이 따위에 받쳐서 액체만 받아 내다. |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재메다 이렇게 받치지, 이렇게 한쪽으로 차지고서는 물 풍영풍영 퍼서 재메다 {걸렸지}.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미수꾸리   | 명     | 명     | 포장하다.                                       | 옛날에는 3키로를 담양가득? 그렇게 해서 여기 수협에서 와, 박스 딱 묶어가지고 {미수꾸리} 해왔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동꾸녕 묶다 | 구     | 구     | 그릇의 밑을 묶다                                   | 이제 {동꾸녕이 묶어}졌나 안 묶어졌나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멜짚이    | 명     | 명     | = 멜짚잡이                                      | 그러니까 전라도로 가기 전에 우리 배들은 지금도 {멜짚이}를 하지만 죽은 배들은 단지 땅에 가서 쫓판만 팔아, 내 지방에서만 하지, 지금 밭이 그렇게 생겼어.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까나리잡이  | 명     | 명     | 까나리잡이                                       | 외연도 작업 하는 배가 다 그 {까나리잡이} 할 수 있는 배들이야.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조기잡이   | 명     | 명     | 조기잡이                                        | 오월까지는 서해여서 {조기잡이}를 했어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명태바리   | 명     | 명     | 명태잡이                                        | 이까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하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이까바리   | 명     | 명     | 오징어잡이                                       | {이까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하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열치잡이 | 행위 |     |        |        |          | 따다     | 동     | 동     | 붙어 있는 것을 잡아떼다.                              | 그렇게 하면 고기 묶은 놈 {따지}.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 0           | 0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의미             | 종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만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행위 |     |      |        |          | 벌다  | 술다    | 명     | 어떤 물체에 칼이나 힘을 넣고 아래로 누르면<br>서 날을 띄워도 움직여서 잘라 나가거나 토막이<br>나게 하다. |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 거.                                                      | 성마순(충남보령시)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중선배      |     |       | 구     | = 중선                                                            | 을 {중선배}, 그런 하기도 가지고 그런 파악<br>을 하고 있으니까, 까나리를 많이 잡거든, 근<br>데 금년에는 까나리가 나뉘지 않았어.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중선       |     |       | 명     | 중선은 돌이지만 앞의 이돛대가 조금 적은 중<br>선 크기야 배.                            | 엔배 {중선}이라고 하면 저배들은 몰르지만<br>중선, 그물져가지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상치잡이배    |     |       | 명     | 상치를 잡는 배                                                        | 에에, 곧밥, 그리고 이 삼치 대나무 건 {상<br>치잡이배}들.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중배       |     |       | 명     | 마을의 평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용래하는 배                                         | 배도 요거서 인제 중배라고 인제 중보러 가는<br>배를 {중배}라 하거든요?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상고선      |     |       | 명     | 상사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리 크지 아니한<br>배.                                 | 그렇게 연널에 안개경을 때 며 지금 객석처럼<br>상배가 외연도 명것어, {상고선}에 사람 대위<br>가지고.                  | 성마순(충남보령시)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곧바늘배     |     |       | 명     | 부식줄을 곧고 다니면서 어획하는 배                                             | {곧바늘배}라고 해라 해가지고 부식줄을 곧<br>고 다니면서 잡는 배, 그것은 이제 곧바늘배,<br>은 나뭇배였던거야.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돈마신      |     |       | 명     | 돈이 없는 적은 배.                                                     | {돈마신}이라는 것은 이 큰 배에 지금 말하잔,<br>日語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벌중선      |     |       | 명     | = 벌막선                                                           | 큰 배가 가를 {발동선}도 아니고 겹다한<br>기 어렵잖아.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벧간       |     |       | 명     | 배 안에 사람이나 짐을 싣기 위하여 만든 칸,<br>위쪽다                                | {벧간}이 좁은디 그걸 이리 저위보다 저리 저<br>위쪽다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기아방      |     |       | 명     | = 기관실                                                           | {기아방} 위에 요거 하나만 있어, 이게 이 위<br>에 선 배들이 이게 큰 배들이고.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기관방      |     |       | 명     | = 기관실                                                           | 이 여기가 {기관방}이고 요게 조타실이거든,<br>기관실의 복합어로 등재.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조타실      |     |       | 명     | 배의 키를 조종하는 장치기 있는 방.                                            | 이 여기가 기관방이고 요게 {조타실}이거든,<br>이 풀석은 {투석간}이라고 하고, 이 뒤에서<br>저는 사람은 투석간이야.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투석간      |     |       | 명     | 배에서 키 조종하는 곳의 자는 방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타 정보 사진 | 별타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 이름 방편          | 명 = 배의 이름에 자는 방                              | 명 = 일본산 엔진, 돛 하나 단 풍선과 같다. | 명 = 일본산 엔진, 돛 둘을 단 풍선과 같다. | 명 = 일본산 엔진, 돛 셋을 단 풍선과 같다. | {망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사람 자는 것이<br>애기하는 거지.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양마             | 양마             | 명 = 일본산 엔진.                                  |                            |                            |                            | 지금 엔진을처럼 {양마}를처럼 거시기 하면<br>아시랑하고, 밑은 고해하구 현 게 아니라<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야캐다마           | 야캐다마           | 명 = 일본산 엔진, 돛 하나 단 풍선과 같다.                   |                            |                            |                            | {야캐다마}라는 것은 예뻐, 기계가 예뻐이야<br>예뻐, 기쁨을 풍어주는 처음으로 말하는 뿌리<br>뿌리(?) 그개 하나여.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다부리            | 다부리            | 명 = 일본산 엔진, 돛 둘을 단 풍선과 같다.                   |                            |                            |                            | {다부리}라는 것은 이 야캐다마가 두 대여<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산개도            | 산개도            | 명 = 일본산 엔진, 돛 셋을 단 풍선과 같다.                   |                            |                            |                            | {산개도}는 없었어.<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아시랑            | 아시랑            | 명 = 후진.                                      |                            |                            |                            | {아시랑}은 뒤로 빠꾸하는 거. 그해는 앞으로<br>가는 거.<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고해             | 고해             | 명 = 전진.                                      |                            |                            |                            | 아시랑은 뒤로 빠꾸하는 거. {고해}는 앞으로<br>가는 거.<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옹두             | 옹두             | 명 = 돛의 꼬대기 부분, 옹두에 돛을 달고, 돛을 올<br>렸다 내렸다 한다. |                            |                            |                            | 모 {옹두}가 다 말렸잖아. 옹두가 다 말렸지.<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도르래            | 도르래            | 명 = 배위에 줄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돌건을 돌<br>려.          |                            |                            |                            | 그러, 야기 옹두, 도르래, 지금 말하자면 {도<br>르래}. 영? 그럴 옹두라고 그러지<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레다             | 레다             | 명 = 레이다                                      |                            |                            |                            | 지금 차 타고 영기면 내비게이션인가 뭔가 있<br>잖아. 그거 식으로 배에도 {레다} 어람 다 있<br>잖아.<br>日語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안개 속에 노는<br>복사 | 안개 속에 노는<br>복사 | 명 = 배에서 기계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                            |                            |                            | 그거 레다 어람 없어서는 {안개 속에 노는 불<br>복사}.<br>日語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어탐             | 어탐             | 명 = '어군 탐지기'를 줄여 이르는 말.                      |                            |                            |                            | 지금 차 타고 영기면 내비게이션인가 뭔가 있<br>잖아. 그거 식으로 배에도 레다, {어탐} 다 있<br>잖아.<br>日語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푸로타            | 푸로타            | 명 = 푸로터. 자동착고기.                              |                            |                            |                            | 어탐은 뭉속을 다보는거고, {푸로타}는 산을<br>다 보는 거고. 그개 다 있어.<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배   |     |        | 지              | 지              | 명 =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                            |                            |                            | 어기가 선장 {지}잡고 있는데, 운전대 있는<br>디.<br>日語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타 정보 사진 | 별타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등록여부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 운전대 |       | 명     | 기게, 자동차 따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한 손잡이다.                                         | {여기가 선장 치참고 있는데, {운전대} 있는디.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벃벌       |     |       | 명     | {배를 짓기 위해 세우는 가장 밑부분.                                                | {벃벌}, 구랑, 상 위에 까는 걸 보고 벃벌이라고 하는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구랑       |     |       | 명     | {구랑}은 배 밑을, 이제 배로 말하면 이렇게 밑을 놓고서 올라는 배 제일 밑이 처음 올라는 그것보고 구랑이라 그러는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상        |     |       | 명     | 배의 밑 위로 대고 옆으로 채워 올라오는 판이고.                                          | 구랑하고 이제 이렇게 서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냉개       |     |       | 명     | 배의 바닥에 까는 판자, 삼보다 약간 낮게 판 위에 까는 걸 보고 {냉개}라고 하는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새지       |     |       | 명     | 배의 파수를 막기 위해 밑에 막대를 하는 배의 {새지}라 하는 걸 보고.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가이상고     |     |       | 명     | = 새지                                                                 | 발동기로 말하면 {가이상고}라고 새지라고 하는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배    |     |        |        | 노줄       |     |       | 명     | 노를 끌어 조종하는 부분                                                        | {노줄}이라고 하는 게, 요가 하나 빼기고, 또 요가 하나 빼긴지.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부유       |     |       | 명     | = 부표.                                                                | 스테로포도 되고 {부유}도 되고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스테로포     |     |       | 명     | = 부표.                                                                | {스테로포}도 되고 부유도 되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우개       |     |       | 명     | = 부표.                                                                | {우개}, 다 이름 싸있잖아.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대나무      |     |       | 명     | 삼치잡이 배에 쓰이는 도구.                                                      | 줄에 뒤시를 달아놓고 {대나무}를 눌러놓고 쫓고 영기는 거예요.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0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양대       |     |       | 명     | 주숫에 쓰이는 부표의 역할.                                                      | 양 {양대}라고 하는 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 배<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스프링돌발    |     |       | 명     | 개량식 돌발                                                               | 그런 {스프링 돌발}이고.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0        |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 상세분류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림말                           | 발음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티 정보 사진 | 별티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1    | 2    |          | 돌막                            |       | 명     | 돌막이를 건조하기 위해 맨바닥 위에 돌을 막아 놓은 것    | 그 건조기 자귀 {돌막} 짚아는 거기다 모기장<br>놓고, 밑에서 밑에서 받지도 쓰고, 이렇게 쭉<br>놓는 안 썼고요 것 쓰고, 소름 낄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자갈                            |       | 명     | = 자갈                              | 건조정이라고 다 해가지고 {자갈} 짚아 갖<br>고, 모기장 낄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모기장                           |       | 관     | 돌막 건조에 쓰이는 얇은 망사전망                | 건조정이라고 다 해가지고 자갈 짚아 갖<br>(모기장) 낄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낚설망                           |       | 명     | 실지와 같은 자갈한 돌고기를 잡는 매우 튼튼<br>한 그물. | 그것보고 {보청망}이라 하는데, 그 옥같은 것<br>생망이라든 걸 수도 따지지, 언제 저같은 미더<br>도 따지지만 옛날에는 걸 수도 이렇게 우리들<br>이 뱀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생망이다. 사정하<br>다 이렇게 따졌거든? 그러면 그게 45절짜리<br>가 심지잖는 그 벤 그물이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경신                            |       | 명     | 뽕시 따위에 쓰이는 굵은줄. = 경신줄.            | {경신}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 거.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수지                            |       | 명     | = 경신.                             | 경신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 거.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나일본 그물                        |       | 명     | 나일본으로 만든 그물.                      | 저근은 또 {나일본 그물} 쓰는 사람이 있어<br>저기, 저 저근인데 나오는 건 민어 장정애 민<br>어, 민어그물에 이렇게 한 건, 그것은 전부 나<br>일본 그물이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영그다                           |       | 형     | 자갈해도의 반대.                         | 넙이를 이야기 하니까 정수를 따져서 {영근}<br>에서부터 자귀 베는걸로 정수를 놓아지지,<br>그러니까 지금 뽕뽕이 그물 켜임 앞에 그 물<br>것이 이질어거든? 이질이니까 이질에서부터<br>사람이질까지 내려가는 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베다                            |       | 형     | = 자갈해다.                           | 넙이를 이야기 하니까 정수를 따져서 영근<br>에서부터 자귀 {베}는걸로 정수를 놓아지지,<br>그러니까 지금 뽕뽕이 그물 켜임 앞에 그 물<br>것이 이질어거든? 이질이니까 이질에서부터<br>사람이질까지 내려가는 거야.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줄지사                           |       | 명     | = 열래                              | 동지 이렇게 뽕시 오는 사람들이 {줄지사} 당<br>라 해왔고 그러데, 그 감는 거 얘기를 하는 거<br>지.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줄모래                           |       | 명     | = 열래                              | 성애는 {줄모래}라고 하는 거지.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뽕시                            |       | 명     | 미끼를 쬐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br>고리.  | 돌에 {뽕시}를 묶어갖고 대나무를 놓여갖고,<br>쬐고 양기는 거예요.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 0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          | 삼지는 뽕시 히<br>뽕하는 것만 뽕<br>도 뽕다. |       | 관     | 삼지가 잘기 수월한 데서 열래                  | 그렇지, 걸리지, {삼지는} 뽕시 히 뽕 하는 것만,<br>뽕만 쬐어서 뽕어버리거든?                                                                                                                |      | 박차연(충남보령시) |       |          | 0        |         |         |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기본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비닐     | 비닐루      | 올린말 | 명 = 비닐  | 명                                                                          | 뿔뿔이                                                                            | 인자 우에다가 하나 댄 거 못 들어가게 {비나, 룩} 댄 뿔뿔 | 日語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솔      | 솔        | 올린말 | 명 = 솔   | 명                                                                          | 이런 {솔}이 있어. 비나(비너) 불 때 갖고서는<br>솔지.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버나     | 버나       | 올린말 | 명 = 버나  | 명                                                                          | 이런 솔이 있어. {버나}{버너} 불 때 갖고서는<br>솔지.                                             |                                    | 日語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호스     | 호스       | 올린말 | 명 = 고무관 | 명                                                                          | 공장에서 인자 큰 작 가지고 와서 빨아 돌려,<br>배에서, {호스} 바꿔서 배에서 빨아 무이로,<br>돌리거든.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채      | 채        | 올린말 | 명       | 뿔뿔 따위의 것들을 통칭하는 말.                                                         | 그런 것이 없었으니깐 {채}에다 이렇게 받침<br>지, 이렇게 한쪽으로 차지고서는 물 풍덩풍덩<br>해서 채에다 걸렸지.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항아리    | 항아리      | 올린말 | 명       | {아래위가 잡고 배가 부른 칠그릇}                                                        | 그렇지. {항아리}에다.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둑      | 둑        | 올린말 | 명       | 간장, 솔,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br>오지그릇이나 칠그릇. 문두가 높고 등배가 조<br>금 부드러 편이 달려 있다. | 그냥 가정에 옛날에 큰 {둑} 이런 거 있었잖<br>아. 그런데다.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장독     | 장독       | 올린말 | 명       |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거나 담그<br>는 독                                           | 지큰 {장독} 같은 거 그런 거지. 그런 거를<br>주로 삼 같은 데는 전채가 썼지.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옹기그릇   | 옹기그릇     | 올린말 | 명       | 칠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옹기그릇} 팔려 대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br>옛날에는 그칠도 건부 많았는디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도로무    | 도로무      | 올린말 | 명       | 연기통 모양의 큰 통.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br>것으로, 주로 기름 따위를 담는다                             | 그렇지 않으면 도로무(드림통). 그 세우진 담<br>는 도로무 있잖아. 도로무에다가 {세면종이}라<br>고 누런 종이 있잖아.         |                                    | 日語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고무다리   | 고무다리     | 올린말 | 명       | 까나리액정을 숙성시키는 도구                                                            | 그렇게 해가워서 인제 {고무다리} 하나 딱 지<br>면 에에다 스큰 쪽 해 갖고 하얗게 해 갖고 똑<br>똑 두드려서 댄야놓지.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통      | 통        | 올린말 | 명       | 까나리액정을 숙성시키는 도구                                                            | 그 아래로 꽂는다는 말이지. 그 {통}이 이렇게<br>있으면 통 밑구멍에서 손가락 두어마디도,<br>통에 띄어가지고서.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세면종이   | 세면종이     | 올린말 | 명       | {세면종이를} 담는 종이. = 크라프트지.                                                    | 그렇지 않으면 도로무(드림통). 그 세우진 담<br>는 도로무 있잖아. 도로무에다가 {세면종이}<br>라고 누런 종이 있잖아.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어로도구 |     |        | 부대종이   | 부대종이     | 올린말 | 명       | {부대종이를} 담는 종이. = 크라프트지.                                                    | {부대종이}. 그 정도였었어. 그 종이를 똑 안<br>에다 싹 넣고, 그리고서는 버니루 불다리 큰<br>거. 그것을 넣고선 거기다 담았거든.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 0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정보 사진 | 별칭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꽃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가구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콘테이너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단위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푸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젓국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칼치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반지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황새기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꼴뚜기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이기미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밴댕이젓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 표제어 표준어 | 오이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사진 | 별칭 음성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사진 | 별칭 음성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                |     |     |        |        |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야채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불거나 된장, 고추장에 막았다가 조림식이나 찌개 형태로 조리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 장아찌  |       | 명     | 오이, 무, 마늘 따위의 야채를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불거나 된장, 고추장에 막았다가 조림식이나 찌개 형태로 조리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                | {장아찌}구만.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배추를 소금에 짠 채로 잘라서 뒤쳐 두고 먹는 김치                                                                    | 배추찜지 |       | 명     | 배추를 소금에 짠 채로 잘라서 뒤쳐 두고 먹는 김치                                                                    | 봄에 여름에는 깍두기를 담고, {배추찜지}를 담아도 씹스럽게.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소금                                                                                            | 소금   |       | 명     | = 소금                                                                                            | 편갈고 오면 그냥 바로 {소금} 넣어서 이렇게 먹는거.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비릿물을 허벌과 배양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해수(海水)를 염전의 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 풍력 따위로 수분을 증발, 결정시켜 만든다. | 천일염  |       | 명     | 비릿물을 허벌과 배양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 해수(海水)를 염전의 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 풍력 따위로 수분을 증발, 결정시켜 만든다. | {천일염}으로 담았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찬맛이 나는 흑갈색 액체. 메주를 소금물에 30~40일 정도 담가 우려낸 뒤 그 국물을 떠내어 술에 붓고 달여서 만든다              | 간장   |       | 명     |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찬맛이 나는 흑갈색 액체. 메주를 소금물에 30~40일 정도 담가 우려낸 뒤 그 국물을 떠내어 술에 붓고 달여서 만든다              | 뉘어서 먹고, 또 인자 {간장}치고 찌셔도 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볶다   |       | 형     | 볶다                                                                                              | 멸치 뉘듯이 {볶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찌다   |       | 형     | 찌다                                                                                              | 뉘어서 먹고, 또 인자 간장 치고 {뉘서}도 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말리다  |       | 동     | = 말리다                                                                                           | 요새는 빨리 {말리지}. 기계에다 말리니까.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굽다   |       | 동     | = 굽다                                                                                            | 옛날이고 지금이고 자기를 먹고 싶은 대로 인자 생선이 많으니까 {구워}도 먹고 튀게도 먹고 지져도 먹고 자기를먹고 싶은 대로 해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튀기다  |       | 동     | = 튀기다                                                                                           | 옛날이고 지금이고 자기를 먹고 싶은 대로 인자 생선이 많으니까 구워도 먹고 {튀게}도 먹고 지져도 먹고 자기를먹고 싶은 대로 해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지지다  |       | 동     | = 지지다                                                                                           | 옛날이고 지금이고 자기를 먹고 싶은 대로 인자 생선이 많으니까 구워도 먹고 {튀게}도 먹고 지져도 먹고 자기를먹고 싶은 대로 해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무지다  |       | 동     | = 무지다                                                                                           | 이렇게 채 썰어갖고서는 {무척} 먹으면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고.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 고다   |       | 동     | 고기나 배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볶는다.                                                              | {무릇}가사리는 생이로는 못 먹어. {고외}서만 먹지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 0                                       | 0       | 0       | 0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음린말   | 받은 정보 | 조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동 = 뱀다    | 뱀다    |       | 형 = 뱀다    | 이렇게 채 {뱀어}잡고서는 무척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 성태순(충남보령시)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형 = 고소하다  | 고소하다  |       | 형 = 고소하다  | 고게 더 맛있어, {꼬슴고}, 기름이 많으니까, 전남 방언으로만 기재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형 = 구수하다  | 구수하다  |       | 형 = 구수하다  | 기름기가 많아서 맛있어, {구수하니} 맛있어,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형 = 찜찜해하다 | 찜찜해하다 |       | 형 = 찜찜해하다 | {찜찜}하요? 찜찜하면 그게 조개가 아닌가본데,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음식  |     |        |        | 형 = 씹스레하다 | 씹스레하다 |       | 형 = 씹스레하다 | 봄에 여름에는 까두기를 담고, 배추짚을 담아도 {씹스레해},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0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기타  |     |        |        | 관         | 관     |       | 관         | 인자 초종에는 삼고, 농음에는 굵으면 것 담고 그렇지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기타  |     |        |        | 관         | 관     |       | 관         | 까나리가 {고기가} 많이 들면 깨우침, 미이 안 들고 조금 들을 때는 이것도 들고 자것도 들고 막 섞어서 이렇게 팔든지만 먹어야 할 만,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기타  |     |        |        | 관         | 관     |       | 관         | 그러게 그가 겨울에는 배량이 많이 들어가자고 {하느님이} 돈뿔이라 하야 하지, 배량풀어갖고는 예지간해서는 못 해,                                                                          |            |      | 성태순(충남보령시) |       | 0  |    |         | 0       |
| 어로 생활 | 까나리잡이와<br>멸치잡이 | 기타  |     |        |        | 관         | 관     |       | 관         | 우리가 볼 적에는 이 {굵은} 놈이 먼저 오고 그 굵은 놈이 늦게 오는 모양이며, 그러니까 양 뱀이, 그놈 양뱀은 많이는 못 잡거든? 약간 인자 뿔 가꾸씩 잡으면 그 고기 다 지나가고 나야 까나리가 들어와, 뿔따라 들어와, 양 뒤 따라 들어와, |            |      | 박치연(충남보령시) |       | 0  |    |         | 0       |
| 어로 생활 | 뽕어제            | 제의  |     |        |        | 명 = 뽕신제   | 뽕어제   |       | 명 = 뽕신제   | {양제} 지내는 거,                                                                                                                              |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0  |         | 0       |
| 어로 생활 | 뽕어제            | 제의  |     |        |        | 명 = 산신제   | 산신제   |       | 명 = 산신제   | 어르신들하고 모여 갖고 인제 날이 좋다 해가지고 인제 산제를 모시자 일년에 한 번씩 {산제}를 모시는 거니까,                                                                            |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0  |         | 0       |
| 어로 생활 | 뽕어제            | 제의  |     |        |        | 명         | 명     |       | 명         | 그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마들해서 귀하게 여기는 나무 앞에 제단을 두어고 지내는 고사                                                                               |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         | 0       |
| 어로 생활 | 뽕어제            | 제의  |     |        |        | 명         | 명     |       | 명         | 그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지내고 이때 띄우고 그러고선 이제 안당이 아니라고 안당 들어가서 안당 고사라고 안당 고사 지내고                                                         |            |      | 안상철(충남외연도) |       | 0  |    |         | 0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 1 | 상세분류 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만 | 받은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대추       |     |       | 명 = 대추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딸        |     |       | 명 = 딸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황소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산소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반골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유통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죽벌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앞죽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뒷죽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횃간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더덕구이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고사리나물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숙지나물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시금치나물    |     |       | 명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칭 | 별칭 사진 <td>표준국어 사자</td> <td>표준국어 사자</td>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3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의 어로 생활 조사어휘(박원호)

| 번호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상세분류1 | 상세분류2 | 원표제어 표준어 | 올린만                       | 받은 정보 | 품사 정보 | 뜻풀이                                                         | 용례                                                                                     | 기타정보 | 출전정보1      | 출전정보2 | 별타 정보 사진 | 별타 정보 음성 | 표준국어 사자 | 표준국어 사자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음식  |     |       |       |          | 도랫술                       | 명     | 명     | 명                                                           | 고서에 쓰는 술. 누룩주. 도랫술을 제사 지내는 술을 도랫술이라 했다.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행위  |     |       |       |          | 지대                        | 명     | 명     | 고서를 지낼 소를 해제하는 과정                                           | 그때 {지대}라고 소를 잡는 거예요.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행위  |     |       |       |          | 침당 치다                     | 구     | 구     | 용왕제를 지낼 때 임금을 모신다                                           | 이것이 이제 침당이라 해서 용왕제. 회관 앞에서 용왕제라 해서, {침당 치다}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행위  |     |       |       |          | 퇴술                        | 명     | 명     | 고사를 모두 마치고 피배에 음식을 씌어 버다                                    | 고기 띄우는 거 술 같은 거 이제 다해서 고사라 하는 거야. 그걸 {퇴술}이라 그러지.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행위  |     |       |       |          | 풍장 치다                     | 구     | 구     | 풍물을 치다                                                      | 이건 {풍장 치는} 사람들.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금기  |     |       |       |          | 부인이 담겨라(해)면 남편은 제사 못 지낸다. | 관     | 관     | 고사를 지낼 때 정양에 담겨라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부정하다(여)가 그 짐 남자는 고서에 함여하지 못한다. | 담겨라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하면 남편이 거를 올라갈 수가 없어.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금기  |     |       |       |          | 소가 명예 단 더는 안 쓴다.          | 관     | 관     | 제물로 바치는 소의 몸 가운데 명과 맞닿는 부위는 제사 음식으로 올리지 않는다.                | 소를 흰 머리를 다듬어서 {명애 단 더는 신애 안 쓰고}, 밑에는 안 쓰고 명애 안 단 쪽만 위에 선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사들.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금기  |     |       |       |          | 부정 없는 사람                  | 구     | 구     |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정양이나 자신에게 병이 난 양귀가 없는 남자. 초상, 담겨라, 병한 모두 해당한다.   | 초상 같은 게 나면은 안되고 아 동년서 얘기 같은 거 놓고 하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안 지내니까, ...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부정 없는 사람}.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어로 생활 | 풍어제 | 금기  |     |       |       |          | 정한 사람                     | 구     | 구     | = 부정 없는 사람.                                                 | 그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부정있으면 안된다 이말이지. 그러고 그 때도 부인들이 집에서 담겨라 하는 사람들도 안되고.     |      | 인상철(충남외연도) |       |          | 0        |         |         |  |



# 찾아보기

ㄱ

가구 .....96  
 가이상고 .....94  
 간재미 .....91  
 경심 .....94  
 고두메 .....100  
 고해 .....93  
 구량 .....94

ㄴ

나일론 그물 .....94  
 낫설망 .....94  
 냉끼 .....94  
 노구체 .....99  
 노쫇 .....94

ㄷ

다부리 .....93  
 돌막 .....95  
 두지 한다 .....90  
 둔탱이 .....92  
 뜯마선 .....93  
 띠배 .....99

ㄹ

맬 .....91  
 맬잡이 .....92  
 메르치 .....91  
 머르치 .....91

명태바리 .....93  
 미수꾸리 .....93

ㅂ

바람 터지다 .....90  
 반골 .....100  
 배가 나다 .....92  
 배말 .....91  
 뱃밀 .....94  
 베다 .....92  
 봄고기는 말려서 먹으면 맛이 없다 .....90

ㅅ

산끼도 .....93  
 삼 .....94  
 새지 .....94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 .....90  
 소가 땅에 단 데는 안 쓴다. ....101  
 수지 .....94

ㅇ

아시탕 .....93  
 안어장 .....99  
 야끼다마 .....93  
 암마 .....93  
 울조개 .....91  
 유통 .....100  
 이까바리 .....93

ㅈ

젓국 .....96  
조기바리 .....92  
족발 .....100  
줄모태 .....94  
줄자사 .....94  
중선 .....93  
지태 .....100  
질지 .....99  
짬고기 .....91

大

초등 .....92

ㅁ

퇴송 .....100  
틀 .....96

ㅎ

화장 .....99  
횃감 .....100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 연구원: 박원호(한남대학교)

---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2년 9월 26일

발행일 2012년 9월 28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